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6월 19일 수요일 (주간) 제 374 호

신개발품 - 안전성 · 경제성 · 편리성
전자칼라 안동 佛心院
서울 조계사 入口 상춘무심1후
☎ 02)725-0250(代)

법석 조대 **무구 스님** 과천 유덕사 주지



"탐욕이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조사들이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 한 겁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에 부처님 명호는 본래 자기의 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염불을 하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화되면 그만큼 세상이 청정해지고 우주가 정화된다고 믿으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주말 · 가족 수련회 확산

주요사찰 주5일제 본격화 대비 프로그램 준비

영남불교대 감포에 대규모 수련장 마련

가족단위 참가문의 늘어 … 정보센터 개소

오는 7월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불교계가 연휴를 이용해 산사를 찾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말수련회와 가족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주말수련회를 준비한 사찰은 해남 대둔사, 보성 대원사, 서울 길상사, 나주 불회사, 대구 영남불교대학 등. 이중 대둔사의 '새벽숲길 2002'가 대표적인 주말수련 프로그램이다. 매달 1, 3주 주말에 여는 '새벽숲길'은 상당한 인내를 요구하는 여름, 겨울철의 수련회와 달리 진지하면서도 여유롭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

영남불교대학은 경주 감포에 대규모 주말 가족수련법회장을 마련했다. 오는 22일 개원하는 수련법회장은 법당을 비롯 요사채 5개 동으로 연면적 5000평 규모다. 매주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토요일 오후 3시에 입재 일요일 오후 2시에 회향한다. 참선, 예불, 간경, 사경 등 수행프로그램과 해수욕과 산행, 도자기 빚기 체험, 농사 짓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원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일요일 오후 2시 '염불선 주말수련회'를, 길상사는 매월 넷째 주 '주말 선 수련회'를 연다. 나주 불회사는 7월 13일부터 8월까지 실시하는 총 7차례의 관음대참회 여름수련회가 끝나면 격주로 주말수련회를 상설화한다.

가족수련회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화성 용주사(8/2~4, 예산 수덕사(8/6~8, 대구 동화사(7/30~8/1), 서울 진관사(8/3~18, 홍천 칠불선원(7/22~25)은 가족단위의 참가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가족수련회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은 12일 사찰수련법회 정보센터(소장 용하스님, www.posjo.org)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련회 홍보에 나섰다. ☞용하 스님 인터뷰 4면

12일 현재 정보센터에 취합된 자료에 따르면, 50여 사찰 및 단체가 어린이(34곳), 청소년(23곳), 일반(28곳), 가족(5곳) 대상의 수련회를 준비중이다. 명상음악캠프(대원사), 한문학당(미황사), 한민족문화체험(삼보사), 불교상담워크숍(불교상담개발원), 선무도(골굴사), 효행수련(용주사), 관음참회(불회사), 청소년국제캠프(파라미타) 등 다양화되고 있다. 사찰수련법회 정보센터 = (02)720-1097.

김재경 기자 jkim@buddhapa.com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도난문화재 되돌린 불심

조사당 비각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중흥불사가 한창인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법조)가 때아닌 경사를 맞았다. 바로 30여 년 전 사라진 조사 진영 7점 등 8점의 성보를 되찾은 것이다.

이번에 성보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한 불자의 노력 때문이다. 지난 해 우연히 조사 진영 7점과 나반존자 족자를 입수하게 된 이 불자는, 조사 진영이라면 당연히 절에 조성돼 있었을 것이란 생각에서 어느 절에 있었는지를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들'의 〈고승 진영〉 편에서 송월당 혜민 스님 진영을 발견한 이 불자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진영과 같은 것을 확인하고 고운사를 찾았다. 그리고 고운사 '성보대장목록'을 뒤진 끝에 67년 목록에서 이를 확인했다. 나머지 6점의 진영도 고운사에 봉안돼 있던 것임을 확인했다. 99년 조계종 총무원서 펴낸 〈불교 도난문화재 도난백서〉에도 빠져 있던 성보가 한 불자의 신심 어린 노력 끝에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고운사 측은 80년대초 작성된 목록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봐 70년대에 없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조계종 총무원은 도난당한 불교 문화재가 소장하고 있던 사람의 자발적 기증에 의해 돌아온 것은 '거의 처음'으로 감격해 했다.

조계종 총무원 통계에 따르면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는 84~99년 316건 453점, 99년 16건 2000년 14건, 2001년 12건에 이르지만 회수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조계종은 몇 년 전부터 문화재 도난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 전담 수사반 결성, 비지정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등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다. 지금도 도난 문화재 은닉 및 보관 행위에 대해 공소 시효를 연장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자들의 관심이다.

고운사 재무 성오 스님은 "사찰과 불자들이 성보에 대해 애정을 가질 때 도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취재2부 기자)

"이종욱 · 허영호 스님 친일 안했다"

광복회에 반박자료, 인명사전 공정평가 요청

지난 2월말 이종욱, 허영호 스님이 광복회가 발표한 친일인사 708명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조계종이 광복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계종 교육원은 11일 이종욱, 허영호 스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요청하는 사유서를 광복회에 전달했다. 교육원은 사유서와 함께 광복회가 제시했던 두 스님의 친일행적 가운데 오류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반박자료를 첨부하고, 일부 연구가의 견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두 스님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당시 제시했던 자료가 임해봉 스님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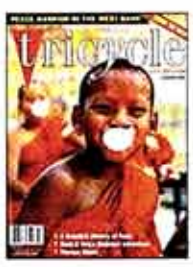
교육원은 또 현재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벌이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에도 이 자료를 전달하고 인명사전 편찬에 공정한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원의 반박자료는 광복회가 제시한 자료 중 문제 부분을 9개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에 대해 사찰 소장 자료 및 당시 불교 잡지, 불교계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광복회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한국팀 월드컵 16강 진출 월드컵에서 한국이 사상 처음 16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14일 저녁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예선에서 1:0으로 승리했다. 태극전사들이 피와 땀으로 16강 고지점령의 선하를 창조한 것은 4천7백만 국민과 해외동포들이 하나로 뭉쳐 열화와 같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포르투갈과의 축구사합이 열린 14일 조계사등 전국 사찰과 불자들도 응원에 열렬히 동참, '필승 코리아'를 외쳤다. 사진은 조계사에서 청년 불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하는 모습. 사진=고영배기자





미술 월간지 Asian Art
불교 계간지 Tricycle

본사, 독점계약 · 판매

본사가 영문 미술월간지 〈Asian Art(아시안 아트)〉와 불교계간지 〈Tricycle(트리사이클)〉(사진 위)을 독점 계약 판매한다.

홍콩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Asian Art(www.asianartnewspaper.com)는 런던의 아시안 아트 신문사에서 만드는 타블로이드판 월간 미술 전문지로 아시아 지역의 전시 소식과 미술관과 박물관 소식, 중국과 일본, 타이 등 아시아 국가의 미술품을 소개한다. 7월과 8월에는 발행하지 않는다.

불교계간지 Tricycle(www.tricycle.com)은 1991년 창간한 불교잡지로,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다. 국배판으로 세계 불교계의 각종 이슈와 불교문화에 대한 기획기사, 칼럼, 인터뷰, 소설, 최신 불교서적 등을 소개하고 있다.

책은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이나 교보문고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값 Asian Art 1만5천원, Tricycle 1만2천원. 02)732-1521

새 연재 시인 김흥성의 '네팔사는 이야기' 7면
박영재 교수의 '첨단과학과 불교' 10면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불교사이트

1. 현재 가동 중인 불교관련 사이트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라 평가하십니까?
①매우 높다 ②높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낮은 편이다
⑤매우 낮다 ⑤사이트 마다 차이가 심해 평균적 평가가 어렵다.

2. 가장 보강해야 할 분야는?
①뉴스 ②D/B(교리, 경전 등) ③디자인
④회원관리 ⑤커뮤니티 ⑥기타

설문 참여: 6월 20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75호 9면에 싣습니다.

本紙 구독료 자동이체 바랍니다

'신행의 동반자' 현대불교를 보다 편리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로 전화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보다 편한 마음으로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좋은 점
-매월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구독료 연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 절약 효과도 있습니다.
-통장에 구독료 납부 내역이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납부확인이 명확합니다.
2. 자동이체 신청방법
① 독자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일자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② 자동이체 신청가능 은행: 모든 은행 및 수협(단, 우체국은 제외)
③ 이체 희망일: 매월 5, 15, 25일 중 택일

▶자동이체 문의 · 신청 전화 (02)737-0090(직통) (02)737-8881(대표)

현대불교신문사

직접 드셔 본 분들의 추천사

자성스님 (한불사)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이상 좋은 공양은 없다. 늘상 머리가 맑은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 몸이 조금 마른 편이고 공부를 하는 중이라 탁생식을 주로 먹는다.

김일태 (불문학 박사, 동덕여대 교수) 생식이 좋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는 들었으나 직접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효과가 너무 좋아 진작에 시작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한명호 (서양화가) 10년 전보다 10년은 젊어졌다. 생식의 효과다.

김중철 (공인회계사) 아침 대용식과 건강식으로 이만한 제품을 보지 못하였다. 특히 다이어트 생식의 효과는 대단하다.

김원기 (백두대간 보존 협의회 회장)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생식은 너무나 중요하다. 산에 갈 때는 꼭 생식을 지참하고 간다.

생식이 화식보다 좋은 이유

1. 생식은 화식에 비해 영양가치가 6배~10배 높음 (과학적 데이터 검증)
2. 화식은 생식에 비해 피꺼기를 많이 배출, 독소와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켜 인체내에 과산화지질이 많이 발생 (암, 성인병 원인)
3. 생식은 소식이 되기 때문에 무기력감 (식곤증)이 없고 정신을 맑게 한다.
4. 활성 효소가 살아 있어 노화방지 세포재생에 도움을 준다.
5. 식이섬유가 다량함유, 변비에 좋고 장에 좋다.
6. 자극적인 조미료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완전식품이다.
7. 칼로리가 높지않아 과다한 영양을 몸에 저장하지 않으므로 성인병예방, 미용에 좋음

전국 불자님들을 위한 특전판매

깊은산 두메생식 심신(心身) 청정!!

지금 깊은산 두메생식을 구매하시면 3가지 특전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특전1 프리미엄 상품(64포)을 15% 할인가 149,000원에 할인 판매!
특전2 www.healthnfood.com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하시면 6개월 무이자
특전3 생식 구입시 구입대금의 10%를 보시금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구입방법 : 헬스앤푸드 홈페이지(healthnfood.com)에서 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전화로도 구매 가능 ■문의 : 031)638-7977(代) 헬스앤푸드 담당자

깊은산 두메생식은 이렇게 좋습니다

- 10년 넘게 생식을 만들고 직접 체험한 분들이 모여 개발했습니다.
- 백두대간의 청봉산 등천과 보령의 청라호수지역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만듭니다.
- 자연의 순리를 바탕으로 한국사람의 체질과 섭생에 맞게 배합했습니다.
- 저온건조공법, 맑은 암반수 이온처리, 에어샤워 등 과학적 최신설비로 만듭니다.
- 맛이 산뜻하고 담백하며 물에 잘 녹아 매우 드시기 편합니다.
- 생식을 아는 분들일수록 찾는 정말 생식다운 생식입니다.

고가 특수성분 함유
- 콜라겐 (피부활성, 노화방지)
- HCA (지방분해, 다이어트)
- 비피더스균 (정장 유산균)
- 유청칼슘 (골다공증 필수영양)
- 해조칼슘 (성인병예방 영양소)
- 키토산 (생체항상성 및 면역)

*각 제품의 특성과 품목에 따라 선별 배합합니다



깊은산 두메생식 일반식(프리미엄)

특 징 유기농산물, 각종 필수 영양소가 살아있는 건강프로그램의 결정체 / 동결건조방식이 아닌 자연건조 방식 사용
성 분 수수, 팥, 현미, 약콩, 보리, 흑참미 (국산), 현파, 당근, 감솝, 감자, 키토산, 비피더스 균, 요구르트 분말, 코코넛 0.2% 등 40여종
구 성 2,560g (40g×64포)
제조원 상화생식영농조합 (한국) 판매원 헬스앤 푸드

품 명	일반판매가	불자님판매가	할인금액	보시적립금
깊은산 두메생식 일반식 (프리미엄)	175,000원	149,000원	26,000원	14,900원
깊은산 두메생식 다이어트식 (프리미엄)	175,000원	149,000원	26,000원	14,900원
깊은산 두메생식 학생식 (프리미엄)	175,000원	149,000원	26,000원	14,900원

헬스앤푸드 www.healthnfood.com 구입문의 031)638-7977 (대)

사 설

중진스님 연수에 부쳐

조계종교육원이 법랍 20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제1회 고급 지도자과정 연수교육을 실시했고, 법랍 25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는 중진 지도자과정 연수교육을 경기도 화성 신흥사에서 실시한다.

조계종은 승려의 자질 향상과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1981년 단일계단 시행, 1991년 행자교육원 개원, 2000년 7월 승가고시위원회 발족으로 5급(사미 · 사미니), 4급(비구 · 비구니) 승가고시를 시행하고, 2001년 10월 법랍 10년 차 스님들을 대상으로 제1회 3급 승가고시산림을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교육은 그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스님들의 위상 정립과 종단발전에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 동안 교육원에서 본말사 주지 연수와 각종 교역직 종무원 및 교계단체 관리자들을 위한 특정교육을 통하여 사찰관리와 포교, 문화재 보존관리 등 사찰운영과 신도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특히 이번 교육은 불교 지도자로서의 '사명과 자세' 특강을 시작으로 한국 종교의 특징과 동향, 불교 지도자론, 환경 및 생태활동, 경영혁신 등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의로 진행돼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현실인식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랍 20년, 30년 된 중진 스님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를 이끌어 갈 현실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불자는 물론 국민들도 한층 신뢰할 수 있는 정신적 지도자로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번 연수가 종단발전과 더불어 한국 불교의 토대를 다지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스님들도 초심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동참하길 기대한다.

내실있는 여름수련회 돼야

여러 사찰에서 여름 수련회 참가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발맞춰 조계종 포교원은 '사찰수련회 정보센터'를 열어 관심있는 이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수련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여름, 수행 열기가 전국의 사찰들에 넘쳐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전통적인 수련회뿐만 아니라 자연캠프, 영상캠프 등 일반인들이 손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들을 통해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하는 다양한 캠프들도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매우 자연스럽고, 또 긍정적이라 하겠다. 다만 이러한 특성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모습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찰의 전통적인 수행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여러 방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종단에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심성계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자를 양성하여 주요 사찰에서 상설로 수행 프로그램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주5일 근무제를 겨냥한 상설 주말수련회와 가족수련회가 잇따라 준비되고 있는 것은 포교 활성화를 위한 고무적인 일로 기대가 크다.

문화와 환경 자연 등을 주제로 한 캠프들은 아직은 주제와 불교가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좀더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주제와 불교를 완전히 융화시켜, 재미있으면서도 내실있는 캠프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하루아침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주 5일제 근무에 부응하여 주말에 수련회와 캠프들이 상설되고, 그것이 여름과 겨울의 장기적인 수련회로 집약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만, 경험과 성과가 축적되어 훌륭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조계종, 사관학교등 37개 교육부대 집중지원

1사찰 1군법당 결연 추진

교구본사별로 군승요원 추천받아

'군 교육부대에서의 한번의 종교 선택이 26개월간의 종교활동을 좌우한다.'

조계종이 각군 사관학교와 종합행정학교 등 주요 교육부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7개 군교육관련 부대 군법당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나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12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전국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군포교 진흥의 해'를 맞아 24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37개 교육관련 부대에 대한 집중지원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날 포교부장 상운스님은 "군내에는 다양한 규모의 390여개 군법당이 있지만, 각급 교육부대에는 유동인원이 많고, 입대 후 처음 종교활동을 선택하는 곳이란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37개 군법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7월까지 해당 지역 군법당을 중점관리할 교구본사를 선정하고 각 본말사별로 '1사찰-1군법당'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 군법당 수계법회시 법사 및 예산지원, 일 · 수요일 정기법회 지원, 군법당 운영예산 지원 등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포교원은 또한 스님 가운데서 군승요원을 선발하는 것이 군포교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교구본사별로 군승요원 추천을 받기로 했다. 또 법사난 해소를 위해 스님들이 군부대 지도법사로 활동하는 '상임포교사 제도'(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부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각 교구본사에 요청했다.

조계종이 종단차원이 아닌, 교구본사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군내 신도등록 사업을 추진, 군 신도관리의 체계화에 나설 방침이어서 군포교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본 · 말사 주지 연수교육 실시

권역별로 여섯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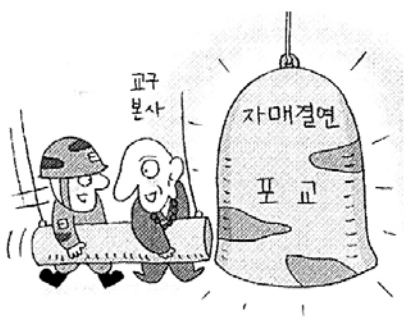
7월11~12일 서울 · 경기 · 강원권 사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권역별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2002년도 조계종 본 · 말사 주지 연수교육이 실시된다.

올해 본 · 말사 주지 연수교육은 '신도조직화와 활성화 방안' '불교문화재 관리와 국고보조금 운용' '불교 환경활동의 현황과 생태사찰 가꾸기'를 주제로 실시되는 것이 특징. 이는 주지스님 마인드 제고에 초점을 두었던 예년과는 달리 종단 종책 이해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종단 및 사찰 운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연수 일정을 보면 직할교구 · 용주사 · 신흥사 · 월정사 · 봉선사 등 서울 · 경기 · 강원권은 7.11~12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법주사 · 마곡사 · 수덕사 등 대전 · 충청권은 9.4~5일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금산사 · 백양사 · 송광사 등 광주 · 호남권은 구례 송원연수원에서 열린다. 해인사 · 쌍계사 등 부산 · 경남권은 9.17~18일 산청 삼성연구소에서, 직지사 · 동화사 등 대구 · 경북권은 9.26~27일 동화사에서, 제주권(관음사)은 10.1~2일 관음사 포교당에서 연수교육이 각각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군법당을 부속 암자로…

어린이집 관리자 워크숍

진각종, 21~22일 통리원서

진각종 교육원(원장 혜정)은 6월 21, 22일 양일간 '불교와 21세기 리더십'을 주제로 통리원에서 종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자 워크숍을 실시한다.

23개 종립 유치원과 진각복지재단 산하 10개 어린이집 관리자 30여명이 참가하게 되는 이번 워크숍은 불교교육 중간관리자 양성 및 다양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워크숍은 '리더십 특강'을 비롯한 네 차례 강의와 '교사연수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대한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불교대학 대표자회의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20일 오후 12시30분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불교대학 대표자(학장) 회의 및 신도전문교육 고불식을 개최한다. 이번 고불식은 43개 신도전문교육기관에서 고급불자 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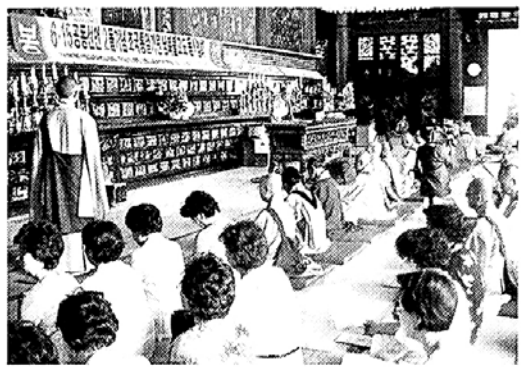
6·15선언 2돌기념 조계·보현寺서

6.15공동선언 2돌 기념 조국통일 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가 14일 남한 조계사와 북한 보현사에서 개최됐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남북공동법회는 종단협 회장 정대스님의 법어, 조불련 박태화 위원장의 인사말, 남북공동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남북공동법회 개최는 지난 4월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단의 평양 방문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과 6 · 15공동선언 2돌을 맞이하여 민족의 화합과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의 불교도들의 뜻을 모아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봉행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김원우 기자



◇14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남북동시법회 모습.

6·15 남북동시법회 공동발원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우리 남과 북의 전체 불교도들은 역사적인 6 · 15공동선언 발표 2돌이 되는 뜻 깊은 이날을 맞으며 남과 북의 모든 사찰들에서 '6 · 15공동선언발표 2돌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 불교도동시법회'를 열고 이 땅 위에 현세의 지상정토,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앞당겨 오려는 서원을 담아 삼가 부처님 전에 발원합니다.

우리들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법등명으로 삼고 꾸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남북의 불자들은 조국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통일로 힘차게 나아가려는 우리들의 앞길에 언제나 무량한 가호를 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기 2546년 6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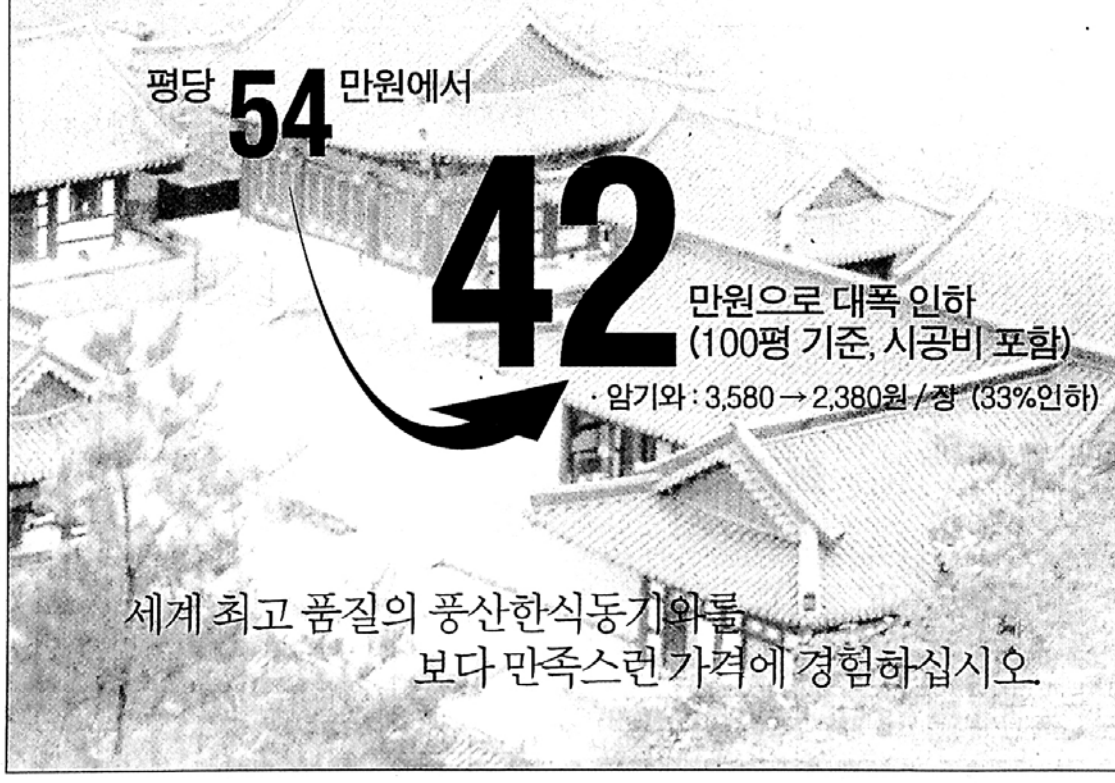
'6.15공동선언발표 2돌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 불교도동시법회' 참가 사부대중 일동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풍산한식기와 가격을 대폭 내렸습니다



평당 54 만원에서
42 만원으로 대폭 인하
(100평 기준, 시공비 포함)
· 암기와 : 3,580 → 2,380원 / 장 (33%인하)

세계 최고 품질의 풍산한식동기와를
보다 만족스런 가격에 경험하십시오.

풍산한식동기와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 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념 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지붕재입니다.

풍산한식기와는 이런 곳에 시공하면 좋습니다.
- 세찬 비바람과 추위로 기와가 날아가거나 동파가 심한 곳
- 건물 지반이나 골조가 약해 지붕의 하중을 줄여야 하는 곳
- 한국의 전통미와 실용성이 필요한 건물
-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 해야하는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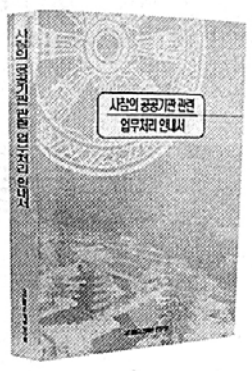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부품 하나 하나마다 새겨진
풍산한식기와 마크를 확인하십시오.
풍산한식동기와는 당사 지정 전문시공사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풍산지정 전문시공사
보광금속(서울) : 011-204-6238
성원금속(서울) : 011-445-7811
세주판금(청주) : 011-401-5312

문의 : (주)풍산 건축자재 담당 02-3406-5114, 011-898-9720
주식회사 풍산
www.poongsan.co.kr

공공기관 관련 민원처리 안내서 나왔다

건축·문화재 등 절차·방법 정리



◇사찰의 공공기관 관련 업무처리 안내서.

항목별 근거법령·구비서류 등 자세하게
사찰재산 등기·이전 '부동산 관련' 수록
종토세·취득세·세금권리구제 절차도

사찰 등 종무기관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청과 관련한 민원처리절차와 방법을 알기 쉽게 해설한 공공기관 관련 업무처리 안내서가 나왔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일 행정관청 관련 종무행정 수행에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826쪽 분량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찰의 공공기관관련 업무처리안내서(이하 공공기관 업무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공공기관 업무안내서에는 사찰의 주지스님을 비롯한 종무원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청과 관련한 건축, 부동산, 세금 등 사찰의 업무처리에 있어 그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종단에 요청해온 내용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사찰에서는 행정관청과 관련된 각종 분야의 처리절차와 방법을 몰라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정부의 문화재 보수비지급의 경우 행정기관과 가깝거나 관련 업무를 이해하는 일부 사찰만 혜택을 받는등 불협화음이 일기도 했었다.

그런 만큼 공공기관 업무안내서에는 각 항목별로 정부공공행정 민원의 개요, 근거법령 조문 및 내용,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업무처리 흐름도, 참고사항, 행정관청 홈페이지안내, 서류양식 등이 자세하게 실려 있어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기관 업무안내서에는 사찰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찰소유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지목변경, 토지 및 임야 신규등록신청, 지적소유자 신청, 건축물 등·초본 보기, 부동산거래 등의 부동산관련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돼 있다.

건축 및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건축인허가 처리절차, 용도변경, 착공신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및 토지매수청구 등이 있고, 종무행정과 관련된 세무로는 총합토지세, 법인세 감면, 비영리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농지·등록·주민·종합토지·취득세 비과세, 법인의 취득 및 등록세 환수,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등이 설명돼 있다.

문화재 관련 내용으로는 국보보물 지정절차, 시·도 문화재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사범 단속 및 보상등 문화재법령,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문화재 수리·보수 국고보조금 신청절차, 문화재 지표조사, 박물관 등록절차 등이 소개돼 있다.

이밖에도 국·공유재산 토지재산 및 망실재산 환수, 전통사찰보존법, 농지 및 산림, 공원,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사찰의 납골시설 설치절차,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도시계획, 북한 방문절차, 민사소송 절차, 행정심판제도, 법인관련 업무 등이 상세하게 실렸다.

종단과 사찰에서 행정관청과 관련한 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 업무안내서가 발간돼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주지스님들의 업무능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은 공공기관 업무안내서를 본말사 주지연수와 종무원 연수시 교육교재로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 안내자 역할과 동시에 불합리한 공공행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사찰의 공공기관관련 업무처리안내서는 종도들에 대한 종무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교구 본·말사에서 행정관청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의 안내자 역할과 동시에 불합리한 공공행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02) 733-4749.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북한산 관통도로 재검토"
"환경파괴 최소 방향 추진"

이명박 서울시장·손학규 경기지사 당선자 밝혀

13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서울시장 이명박, 경기도지사 손학규 당선자가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광역신도회(회장 김진관)가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보낸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문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는 "국립공원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과 같은, 환경을 훼손하면서 개발위주의 시정을 하지 않겠다"며 "환경단체, 불교계 등과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손학규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5일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로 부터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받고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우이동 쪽으로 지나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새로이 변경된 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며 "북한산 관통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환경파괴 및 해당 지역 주민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6·13선거' 당선 불자 광역시·도 단체장

13일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 제3기 지방선거의 16개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중 불자는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자 광역시·도 지자체 단체장은 안상영(한나라당) 부산광역시장, 김진선(한나라당) 강원도지사, 박태영(민주당) 전남도지사, 우근민(민주당) 제주도지사 등이다.



97년 한국불교자원봉사단 창립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산 범어사 관통에 반대합니다. 부산이 세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 부산시장인 안상영 당선자는 97년 한국불교자원봉사단을 창립해 이사장을 역임하는등 불심 돈독한 불자다.



전통사찰 보존책 펼 터

김진선 강원도지사 "신흥사 월정사 등 전통사찰과 자연자원을 잘 활용한 관광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진선 당선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만해 한용운 스님을 거론할 정도로 독실한 불자. 김 도지사는 월정사, 신흥사 등과 태고 천태종 등 각 종단 사찰의 스님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법회를 개최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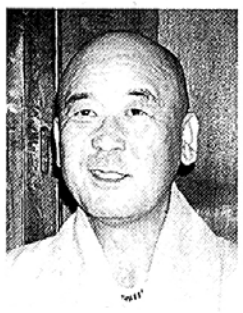
화합으로 지역내 갈등 치유

박태영 전남도지사 "화합을 제일 기치로 지역 내 갈등을 치유하고 자랑스런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박태영 전남도지사 당선자가 고향을 찾으면 제일먼저 장성 백양사를 참배한다. 박 당선자는 주로 순천 송광사 법회에 참석해 신행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 스님들을 자주 친견하고 있다.



관음사 성역화 … 지역발전 도모

우근민 제주도지사 "제주지역 대표 사찰인 관음사 등을 성역화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見我衆生 歡喜發心(견아중생 환희발심,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이 샘솟게 하자)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좌우명을 갖고 있다는 우 당선자는 도지사로 재직하면서 불교 관련 문제에는 항상 적극적인 지원을 해 왔다.



조계종 제6교구 마곡사는 10일 연화당에서 산중총회를 갖고 제 22대 주지 후보에 진각스님(중앙종회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총 106명이 참가하여 진각스님이 57표, 장곡스님(갑사 주지)이 47표를 얻었다.

진각스님은 1952년 인천 강화에서 출생하여 취담 일현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72년 마곡사에서 지정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은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84년 오봉암 주지, 98년 고산사 즈지를 거쳐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전산화 통해 사찰행정 공개"

마곡사 주지 후보 진각 스님

포교활성화 위해 담당국장 공개채용
문중위계질서 확립 노력…협조 당부

◆본사 주지로 당선된 소감은.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된 것에 대해 더욱 화합하라는 의미로 새기고 있다. 그런 만큼 말사 주지스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본사 운영을 하겠다."

◆이번 선거가 상당히 치열했는데.

"주지 선출을 위한 교구본사 선거제도가 변해야 된다고 느꼈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다.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등 서운한 점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 모두를 더욱 탁마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정진하겠다."

◆마곡사 발전을 위한 구상은.

"본사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열린마당을 만드는 것이다. 열린 종무행정을 위해 전산화를 통한 본사 행정공개에 나서겠다. 또 모든 본사회의는 말사 주지회의를 거쳐 본말사 스님들로부터 검증받은 사안을 가지고 할 생각이다. 본사 운영은 철저하게 대중공의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다."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본사 포교국장을 공개 채용할 생각이다. 관할지역내 포교에 관련된 사안은 포교국장이 체계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 진행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

◆문중스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회에 사회질서가 있듯이 불가에는 불가 나름의 전통적인 질서가 있다. 특히 승가에는 위계질서가 중요하다. 문중의 위계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 문중스님들도 마곡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으면 한다."

마곡사= 김원우 기자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쉽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사바세계 온 중생들에게 자비 광명을
추모대제 세계초대 법왕 일붕존자(一鵬尊者)원적 6주기 추모대제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일붕존자를 추모하시는 전국 종도님과 문도님 그리고 불자여러분의 존체금안 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 일들이 부처님의 불은으로 원만하게 이룩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저희 중생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초대법왕을 역임하신 일붕존자 열반 6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 하실줄 사료되오나 부디 동참하시어 일붕존자의 그 높은 뜻을 기리고 6주기를 추모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 음

◇ 일 시 : 2002(불기2546)년 6월 19일(음5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남 의령군 궁류면 평촌리 176번지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본산 일붕사(一鵬寺)
◇ 만등불사 : 6주기 추모 만등불사 (1등에 1만원)
◇ 참석여부 : 장소 정리관계상 참석여부를 사전에 연락바람
◇ 연 락 처 : 1) 봉행위원회(총무원) 전화 02)998-8161~2 팩스 02)998-8384
2) 경남의령(일붕사) 전화 055)572-9990, 7777 팩스 055)572-8444
◇ 중식공양 : 본 위원회 (의령 일붕사)구내 식당에서 공양합니다.
※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영국 기네스북에 등제된 세계최대 석굴 법당(세계적인 청정 영험도량) 기도 참배

일붕존자 6주기 추모대제 봉행위원회

대 법 주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정 김무찰 큰스님,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이사장 김혜운 큰스님
증 명 : 홍학암 큰스님(일붕존자 유지보존협의회공동의장), 조혜륭 큰스님(일붕사조실), 김지산 큰스님(한국불교정토종 종정), 유청송큰스님(장로의원), 정금봉 큰스님(장로의장), 서무공큰스님(한국승가회장), 이윤환큰스님(은상좌 대표), 김도기(일붕문도회장), 각 종단 종정 큰스님
지 도 위 원 : 각종단 총무원장 큰스님, 교계 대덕 큰스님, 내외귀빈
봉 행 위 원 장 :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정동봉 큰스님
봉행부위원장 : 엄지공(호계원장), 김명종(종회부의장), 이법운(교육원장), 김화엄(포교원장) 진억두(감사원장), 정 철 ((사)호국법사단이사장)
준 비 위 원 장 : 최혜천(총무원부원장), 최용암(총무원부원장)
준비부위원장 : 김법선(총무부장), 이정수(재무부장), 김지성(규정부장), 안법해(교육부장)
집 행 위 원 장 : 정법성(호계부원장), 강삼현(종회사무처장)
교구준비위원장 : 이법운(서울종무원장), 이법상(부산종무원장), 가덕양(대구종무원장), 최덕산(인천종무원장), 박도안(대전종무원장), 김화엄(울산종무원장), 유법안(경기남부종무원장), 이혜성(경기북부종무원장), 이보해(강원종무원장), 김혜성(충남종무원장), 김법청(충북종무원장), 김혜성(전남종무원장), 정금봉(전북종무원장), 이정수(경남종무원장), 김도기(경북종무원장),
봉 행 위 원 :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장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세계불교초대법왕 일붕존자 6주기 추모대재 봉행위원장 정 동 봉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본산 일 붕 사 주지 김 혜 운 합 장

일주문



한 · 일 학술심포지엄 참가

혜성 도선사 회주는 15~20일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한 · 일 지역복지 국제학술 심포지엄'에 한국대표로 참가한다.



서경보 스님 추모재 봉행

동봉 일붕선교종 총무원장은 19일 오전 10시 경남 의령 일붕사에서 서경보 스님 열반 6주기 추모재를 봉행한다.



'환경의 날' 장관상 수상

일연 동학사 승가대학장은 자연보존 운동에 힘쓴 공로로 환경의 날인 5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춘천박물관장에 임명

최응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10일자로 10월 개관 예정인 국립춘천박물관장에 임명됐다.

12년간 강의료 전액 3880만원 동의대 기탁

강선태 대성한의원장



12년동안 대학 강의료 전액을 후학 양성에 써달라고 기탁한 교수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강선태(62 · 前 부산불교신도회장 · 사진) 대성한의원 원장.

강원장은 지난 90년부터 동의대 한의학과 신경정신과에서 받은 강의료 전액을 13일 마지막 수업과 함께 학교에 기탁했다. 90년 신경정신과 개설 당시부터 시간강사로 활동하다 97년부터는 겸임교수로 강의를 해온 강원장의 총 강의료는 3천8백8십만원.

강원장의 이러한 결심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이미 스스로와 부처님께 발원했던 것.

"금액은 비록 적지만 한의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정성을 전하고 싶었다"는 강원장은 후학들 가운데 허준같은 명의가 배출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13일 마지막 강의에서 아는 만큼 행하는 것, 즉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정신을 강조했다.

부산= 천미희 기자

고 침 본지 373호 4면 혜총스님은 부산불교교육대학장이 아닌 부산불교교육대학 운영위원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한국불교 알리는 씨앗 됐으면 …"

영문 사찰안내서 낸 국제포교사회 백원기 회장



"영문 한국사찰 안내서가 월드컵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귀국 후에도 한국불교를 알리는 작은 인연의 씨앗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일 조계종 포교원 지원으로 한국불교 최초의 영문 사찰 안내서인 〈Guide to Korean Buddhist Temple〉(조계종 출판사)를 펴낸 국제포교사회 백원기(동국대 전자계산원 교수 · 사진) 회장은 "국제포교사회 70여 도반들의 손으로 3년간 기획, 집필, 번역, 편집된 해외 문서포교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70여 회원과 3년간 기획 · 집필

사찰의 전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서 하나 없던 한국의 현실에서 국제포교사회가 출간한 이 책은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 가이드를 위한 본격적인 사찰 안내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불교 관련 상용용어들이 일반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불교의 역사, 한국 고승 소개, 사찰 구조 및 예절, 불교용어 및 사찰정보 등을 조계종 영문표기법에 따라 통일함으로써 한국불교 세계화의 기초자료 역할을 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의 표기법과는 다른 체계의 로마자 표기법인 '충북대 김복문 교수식 표기법'을 채택, 한국의 불교용어를 우리 언어와 똑같은 음가로 표기한 것은 국제포교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국제포교사회는 주요 국가의 도서관 등에 책자를 배포하는 한편, 조계종 사이트 등에 이 책의 내용을 게재해 인터넷을 통한 한국불교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산행 통해 불법과 인연 맺게"

한국불교산악회 노종백 3대 회장



"산을 통해 불교의 힘을 결집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행으로 불법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산악회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16일 부산 적십자 회관에서 열린 한국불교산악회 창립 2주년 기념행사에서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한 노종백(54 · 무역업 · 사진) 회장은 9월부터 월 1회 산사 법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 인근 사찰을 찾아 열게 될 산사법회는 "불교 공부가 깊어지면 바른 산악인이 된다"는 노 회장의 소신에 따른 것.

이 밖에도 노회장은 1999년 10월 창립 준비 산행 때부터 꾸준히 이어온 월 1회 정기산행, 자연보호 활동, 복지관 후원 봉사 등은 변함없이 이어갈 생각이다. 또한 행정담당 정상근 부회장을 비롯한 각 부서의 역할을 강화해 현재 80명인 회원을 배로 늘이는 등 조직 재정비와 회원 유대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65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등산을 시작해 불교와 등산의 접목을 꾸준히 시도해온 노 회장의 등산 이력은 화려하다. 1977년 부산등산학교를 설립해 등산 대중화에 앞장서 왔고 1990년에는 한일 에베레스트 최고봉 합동원정 대장을 역임했다. 또한 올 2월에는 불자등반대 단장으로 네팔 히말라야 공대봉 빙벽 등반에 성공했다. 노회장은 전문 산악인으로서의 경력을 한국불교산악회 활동에 접목시켜 9월 해발 6400m인 티베트 수미산 등정을 계획중이다.

유대 강화 … 수미산 등정 계획도

"힘든 산행은 자아 성찰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노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나'를 찾기 위한 여행과도 같은 산행과 불교공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테마별 수행프로그램 개발"

사찰수련법회 정보센터 소장 용하 스님



"3년째 운영되고 있는 수련법회 정보센터는 포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불교 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2일 개소식을 가진 '사찰 수련법회 정보센터' 소장 용하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 사진)은 "매년 수련법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테마별로 수행 프로그램이 특성화되고 있다"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인 참여 유치 위해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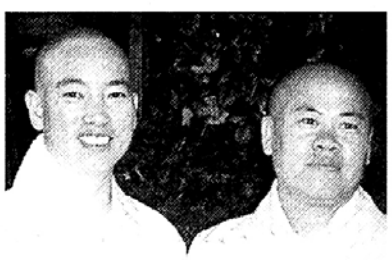
용하스님은 수련법회 정보센터(www.pogyo.org, 02-720-1097) 상설화를 통해 각 사찰 및 단체의 테마별, 대상자별 수련법회 일정을 알리고 〈수련법회 자료집〉 증보판과 홍보 리플렛 1만부도 제작, 각 사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5일제 근무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서는 수련법회 실시 사찰의 2년간의 자료 분석과 수련생 설문조사 등 수련법회 운영현황 조사 및 통계 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찰수련회와 연계한 주말수련회, 시민선방, (내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 상설화 등 다양한 사찰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장기적인 포교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찬불가 · 수화 함께 가르쳐요"

'부루나 수노회' 발족 정율 · 해성 스님



◇정율(왼쪽)스님과 해성 스님.

성악가 정율 스님과 연화복지원 원장 해성 스님이 찬불가와 불교 수화를 함께 배울 수 있는 모임 '부루나 수노회'를 만들었다. '부루나 수노회'는 수화로 노래한다는 뜻. 21일 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부 원광사에서 찬불가와 불교 수화를 가르친다.

정율 스님은 "음성 · 복지포교에 뜻이 있는 스님들과 보살들이 찬불가와 수화를 함께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 이 모임을 만들게 됐다"며 "현재 수녀님들도 배우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등 반응이 좋아 종교의 벽을 넘어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선승가대에서 수화 강의를 하고 있는 해성 스님도 "찬불가와 불교 수화와의 만남은 특히 장애인 복지 포교에도 한 몫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부루나 수노회를 통해 부처님의 감로법문이 들어 있는 찬불가의 가사들을 장애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들이 많이 생긴다면 그들이 바로 훌륭한 포교사가 아니겠느냐"고 의욕을 보였다. (02)2202-5831

장애인 복지 · 포교에도 한 몫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천태종 상월대조사 28주기 열반대재

천태종은 7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중창주 상월 원각 대조사 28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열반대재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 스님을 비롯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2만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운덕스님은 "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상월 원각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불국정토를 이룩하자"고 말했다. 운덕스님이 추모사를 하는 모습.



범일국사 입적 1113주기 대재 봉행

통효 범일국사 열반대재 봉행위원회(위원장 혜강)는 10일 강릉 굴산사에서 청운(통도사 취운선원장) 청우(강릉사암련 회장)스님과 심기섭 강릉시장, 방등인 관동대 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일국사 1113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통도사 취운선원장 청운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제주 존자암 대웅전 상량식

제주 존자암(주지 법정)은 7일 존자암 사지 복원을 위한 대웅전 상량법회를 봉행했다. 서귀포 법륜사 주지 상천스님, 민주당 조한천 의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법정스님은 "이곳은 천혜의 도량으로 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복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착공된 대웅전은 팔작지붕 형태로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로 8월 중순경 완공될 예정이다.



윤이상 음악연구소 악기 지원

불기 2546(2002)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조계종 민추본 악기 평양 전달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련)는 14일 서울 조계사에서 평양 윤이상 음악연구소에 전달할 악기를 상차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부장 원택스님, 사회부장 양산스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되는 악기는 윤이상 음악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콘트라베이스, 팀파니 등 총 10만달러 규모다.

영산작법 전통불교의식 전문교육

불교의식에는 규모에 따라 **상주권공, 시왕각배, 생전예수재, 수륙재, 영산재**로 나누며 간단한 불공과 시식은 안채비성으로 모든 스님들은 알아야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본의식 행위이다. 스님으로써 필수적 기본의식 이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므로 여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전통의식으로 여법하게 행하므로 대중을 한마음으로 이끌 수 있고, 환희심을 내어 굳건한 신심으로 기도정진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영산회** 주최로 전통불교 의식을 배우고져 하시는 스님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7 번지(운천사)
- 일 시 : 불기 2546년 음 5월 16일(양 6월 26일) 오전 10시~
  음 5월 22일(양 7월 2일)까지(일주일간)
- 접수일자 : 6월 15일 ~ 6월 22일 까지
- 교육내용 : 불공의식, 다비의식, 시련, 대령, 관욕, 시식, 신중작법,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북) 다루는법, 민바라 및 천수바라, 사다라니
- 교 육 비 : 5만원 (농 협 175401-52-044692 : 이기행)
- 준 비 물 : 가사장삼, 필기구, 세면도구, 기타
- 주 최 : 영산회
- 후 원 : 태고종 광주 전남 종무원
- 협 찬 : 광주불교방송국, 현대불교신문 광주지사, 주간불교신문 광주지사
- 접수 및 문의전화 : 062)375-1820, 011-604-8902
  062)222-4133, 016-651-6006 fax : 062)381-0944

교육 일정 시간표

날 짜	시 간		교 육 내 용	강 사
6월 26일	오전	10시	입소식, 불공, 점심공양	
	오후	2~5시	전체 교육내용 강의	보운스님 · 영산회 회장
6월 27일	오전	09~12시	시련, 신중작법, 사물 다루는 법	보운스님
	오후	2~5시	사물 다루는 법, 민바라	영산회원 스님
6월 28일	오전	09~12시	불공의식	보운스님 · 영산회 회장
	오후	2~5시	사물 다루는 법, 바라구단	영산회원 스님
6월 29일	오전	09~12시	대령관욕	보운스님 · 영산회 회장
	오후	2~5시	천수구단, 바라	영산회원 스님
6월 30일	오전	09~12시	시 식(관음시식, 영반)	보운스님 · 영산회 회장
	오후	2~5시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영산회원 스님
7월 1일	오전	09~12시	다비의식	보운스님
	오후	2~5시	전과정 점검	영산회원 스님
7월 2일	오전	09~12시	전과정 예 · 복습 및 점검	
	오후	2~5시	회 향(수료증 수이)	

대구교사불자회 임원단·운영위 구성

대구교사불자회(회장 최성일)는 8일 대구 능인중·고교 반야전에서 6월 법회를 열고 임원단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부회장에는 이동주(정동고), 신연섭(덕원중), 서용선(남송초교) 교사를, 사무국장에는 김상만(능인고) 교사를 선출했다. 한편 전 회장 손기완 교사는 지도고문으로 추대했다. 최성일 회장은 "초발심의 자세로 정진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법륜교수불자회 기림사서 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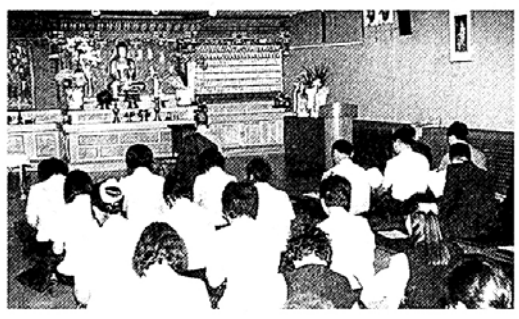
법륜교수불자회(회장 배동호)는 2일 경주 기림사를 찾아 특별정진법회를 가졌다.

이번 법회에서 전 동국대 교수 호진스님이 '교수불자들의 바른 믿음'을 주제로 법문했다. 또 영남이공대 최영식 교수(문화재위원)의 안내로 감은사지를 참배했다. 40여 회원과 회원가족이 동참했다.



경찰청불교회 인등기도 법회

경찰청 불교회(회장 김재진)는 5월 30일 경찰청 법당에서 인등기도법회를 봉행했다. 5월 9일 법당 개보수를 희향한 경찰청 불교회는 법당과 불교회의 발전을 위해 100여 경찰불자 가족의 인등을 밝혔다. 경찰청 불교회는 향후 월 한차례 인등법회를 봉행하기로 하는 등 법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직장불자회

여름휴가는 사찰에서

철불협 '발상전환' 주제 은해사서 산사체험
교사련 월정사서 수련회…교육포교모델 개발
포교원 직장직능단체 지도자연수회 개최

직장인 불자들이 바쁜 일과와 업무를 잠시 접어두고 특색 있는 주제를 설정, 전통사찰에서 짧은 기간의 산사체험 등 수련회를 열어 불심을 달군다.

주말과 휴가기간을 이용한 여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와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등 연합단체들이다. 조계종 포교원에서도 전국 직장직능단체 임원 등 지도자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직장단체 중 가장 먼저 수련회를 여는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회장 정동진)는 29~30일 경북 영천 은해사에서 '발상의 전환'을 주제로 산사체험을 갖는다. 이번 수련회는 짧은 기간의 사찰 생활체험을 통해 소비지향적 삶을 버리고 생태적 삶으로 바꿔가기 위해 마련됐다.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회장이 '환경친화적 불교의 가르침' '환경친화적 불교문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철불협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철도불자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도 8월 10~12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청소년포교의 새 모델'을 주제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한다. 서울·경인, 부산지부 등 전국 11개 지부 200여 회원이 참가하는 이번 수련회는 회원들의 신심 고양과 수행의 생활화를 통해 올바른 교육포교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 특히 청소년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해 교육포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는 오는 9월 6~8일 수련회를 개최한다(장소는 미정). 불자교정인연합회는 수련회를 통해 목적사업인 재소자 포교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행사례 발표와 '포교론' 특강·재소자 포교방안 토론 등의 프로그램를 마련, 회원들의 포교역량 발휘를 돕는다. 이 수련회에는 전국 39개 지회 3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전체 직장직능단체 임원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수련회도 마련된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관하는 지도자 수련회는 7월 6~7일 대구 동화사에서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체험'을 주제로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은 직장직능단체 지도자들의 신심 고취와 자질 향상, 직장단체간 정보공유와 유대감 형성 등 직장불교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발우공양, 새벽예불 등 불교의식에 대한 강좌 및 체험을 비롯해 발원문 작성, 3보 1배, 참선 실수 등 수행, '직장불자의 신행생활' '채워야할 나 버려야할 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직장불교와 포교 활성화를 모색한다.

조계종 포교원 조양희 주임은 "바쁜 직장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산사에서 체험하는 불교는 신심을 다지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직장단체별 수련회와 사찰에서 여는 여름수련회에 동참해 사찰체험과 실수(實修)를 익히고 포교의 기반을 닦는 기회로 삼는것도 휴가를 보람있게 보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국회불교신도회 승진축하법회 20일 정각선원

국회 정각회 불교신도회(회장 김종환)는 20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지하 2층 정각선원에서 올해 상반기중 승진한 회원들의 승진축하법회를 봉행한다.

올 상반기 중 승진한 회원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문희 재정경제위 수석전문위원(1급)을 비롯해 지복조 이사관(2급), 최성욱 부이사관(3급), 김동배 서기관(4급) 등 10여명이다. 불교신도회는 이들 회원들의 승진을 축하하고, 굳은 신심으로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축하법회를 마련했다.

또 이날 법회에서는 박영희 한국전통불교연구원 강사를 초빙해 원각경 강의를 들을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원각경 강의는 매월 한차례씩 회원들의 올바른 신행을 돕고 경전 강독을 위해 마련되고 있으며, 이번은 6회째.



"여의도 금융기관 포교 앞장"

재정경제위 **김문희** 수석전문위원

"잦은 만남과 교류가 회원간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회원들을 국회내 법당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월 28일 입법부 내 최초 수석전문위원 자체승진의 명예를 안은 김문희(50·재정경제위·사진)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 前 회장의 말이다. 그는 드러내지 않고 신행활동을 하는 불자들이 많아 이 불자모임 활성화의 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2000년과 지난해 2년동안 직원불교회 회장을 역임한 김 수석위원은 신도회내에서 신심 깊은 불자로 정평이 나 있다. 매일 아침 법당에 들러 실천,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보여줬기 때문.

회장직을 물려준 후에도 여의도 금융기관 포교를 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여의도에 집중돼 있는 금융기관과의 교류를 가짐으로써 불교신도회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의도 직장불자 교류에 대한 원을 밝히기도 했다.

김 수석위원은 회원들의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신심도 깊어진다는 것이다. 김 수석위원은 국회내 불우이웃돕기 모임 '소나무' 회장으로도 활동하며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며 국회 직원불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불우이웃돕기 '소나무' 회장 활동

호국영령·구민위한 법회
효행·모범학생에 장학금
은평구청 불심회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호국의 달을 맞아 25일 은평구청 대강당에서 '호국 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대법회'를 개최한다. 은평구사원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법회는 성운스님의 법문과 축원, 호국발원문 낭독 등 조국을 위해 산화한 영령들의 극락왕생과 은평구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법회에서는 성적 우수생, 효행학생 등 은평구내 중·고등학교 모범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전달될 예정이다. 구청 직원자녀 18명에게 전달되는 500여만원의 장학금은 은평구사원연합회가 후원한다.

이길영 불심회장은 "'호국의 달'의 의미가 2002 월드컵과 6·13 지방선거로 인해 퇴색되어서는 안된다"며 "불자들이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조국과 국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한국불교산악회 창립2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가입

부산 한국불교산악회가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정인악)의 42번째 단위산악회로 가입했다. 이로써 불교산악인연합회는 서울, 부산, 경기 등 10개 광역시·도 지회와 42개 단위산악회가 활동하는 단체로 확대됐다.

한국불교산악회는 창립 2주년을 맞아 16일 경남 고성 옥천사에서 기념법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불교산악인연합회 가입을 승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불교산악인연합회 가입 인준패와 회기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2000년 창립 이후 부산 초량동에 사무실을 두고 매월 정기산행과 사찰 참배 등 신행활동을 펼쳐온 한국불교산악회는 이날 노종백 씨를 제3대 회장으로 추대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했다. <신임회장 인터뷰 4면>

노종백 신임회장은 "회원들의 불심을 모아 한국불교산악회와 불교산악인연합회가 불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모임에선

소비자보호원 법우회 수계법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회장 신동구)는 28일 서울 종로구 국청회 법당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창립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수계법회를 기점으로 법우회는 본격적인 회원 확대 등 포교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신동구 회장은 "수계를 계기로 회원들이 직장내 포교 역군으로 활동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본격적인 포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KBS 불교연구회 육조단경 강좌

한국방송공사(KBS) 불교연구회(회장 정종철)는 29일 정오 본관 제1회의실에서 육조단경 강좌를 개최한다. 인오법사의 강의로 열리는 이날 법회에서 회원들은 하반기 성지순례와 모임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서울경인교사불자회 화계사서 월례회

서울경인교사불자회(회장 이호영)는 2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우이동 화계사에서 월례모임을 갖고 성지순례지 선정과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국제선원 원장 도관스님으로부터 법문도 듣는다.

공 한국불교 태고종 보우승가회 창립총회 고

◎ 일시 : 불기 2546년 6월 18일(음력 5월 8일) 오후 5시 ◎ 장소 : 장충동 앰베서더 호텔 동궁홀

창 립 취 지 문

1,600여 년 동안 겨레와 함께, 민족 종교로서 민족문화와 정신의 근간을 이루어 온 한국불교는 급격한 시대 조류의 변화 속에서도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물질 만능 주의와 배금주의로 인한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는 중생들에게 근원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중에도 승가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나, 의식 개혁 등 의 승가 내부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기대에 뭇 미쳐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승가 스스로의 안일과 방관에 기인한 것이며, 승가 본연의 정신인 수행과 중생교화라는 대전제를 망각한 것으로서 엄격한 내부의 자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우리 한국불교 태고종의 뜻을 같이하는 사문들은 의식개혁을 통하여 불교가 대 내외적으로, 불자들이 깨침의 삶을 지향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사회를 선도하여 시대와 부합하는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신뢰와 희망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하는 광명의 싹을 튀우고자 한다.

우리는 종조이신 태고 보우 원종국사의 정신을 면면히 계승하여 종도의 일원으로서 자정을 통한 올바른 승가상 확립과 불법 홍보를 통한 사회불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불교 역사 창조의 미력한 힘을 보태고자 한다.

승가가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승가 스스로가 의식을 개혁하고, 위상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확산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에 참여한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아 건강한 승가단체인 보우승가회 창립의 취지를 밝히는 바이다.

불기 2546년 6월 14일

준비위원회

회 장 임호명(서울 염불사)
부회장 김우준(인천 경불사) 이무위(안양 상불암) 양법해(서울 원각사)
감 사 이도성(제주 백우정사) 류지홍(서울 안정사) 이월봉(경남 석봉암)
기 획 김법성(서울 불국사) 간 사 권대원(포천 기원정사)
총 무 최상진(동두천 광덕사) 간 사 최진안(서울 원각사)
재 무 신도명(서울 백련사) 간 사 김청호(경남 관음사)
사 회 이도암(양주 성불사) 간 사 심지허(안산 천수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회 종무행정강좌 개설

본종 총무원에서는 현재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의 종무행정 수행능력 향상과 향후 우수한 종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종무행정강좌를 개설합니다.

— 다 음 —

■강좌내용 : 종무행정 일선에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함
1. 중앙종무기관 종무 2. 단위사찰 종무
3. 관공서 관련 종무(부동산, 세무, 불교문화재관리)
4. 종헌·종법 5. 불교관련 국가법령
6. 불교조직·재무·인사관리 7. 사찰의 홍보방법 등
■교 수 진 : 1. 권위있는 종무행정분야 교수
2. 전문성 있는 교역직·일반직 종무원
3. 종무행정관련 재가전문가
■수강대상 : 1. 조계종단소속 사찰의 스님 및 재가종무원
2. 조계종단에 봉직하기를 희망하는 자
■강좌시기 : 입재 — 2002년 7월 1일(월) 오후 2시
회향 — 7월 5일(금) 오후 2시
■개강장소 :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강의교재 : 별도지급
■수강인원 : 40명(선착순 마감)
■접 수 처 : 총무원 총무부(FAX 720-3302)
■계좌번호 : 농협 053-01-252967 예금주 재)불교중앙교원
■수 강 료 : 25만원(교재비 및 4박5일간의 숙식비 포함)
■접수마감일 : 6월 28일(금) 오후 6시
■특 전 : 1. 스님에 대해서는 본말사 주지연수교육과 초임주지연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재가자에 대해서는 종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발행 수료증 수여
■문 의 처 : 총무원 총무부 ☎ 02)735-5861~2
■교 통 편 : 7월 1일 오후 1시 중앙승가대학교행 버스가 조계사 앞에서 출발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정 대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사회윤리로서의 지계

6월-지계(持戒)의 달
- 제가불자와 계율
- 지계 없는 수행의 위험
- 사회윤리로서의 지계
- 일상 속에서의 지계



산푸르고 물맑

◇환경보호는 '불살생계'의 사회적 실천이다.사진은 지난 3월 있었던 자연과 사찰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범불교도 대회 모습.

"오계는 단지 부처님의 제자들이 몸을 닦고 도를 행하는 규약으로 삼은 것인데, 국가 경제나 민생의 문제, 또는 세계 평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불자가 지켜야 할 세속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표적 경전인 〈불설선생경〉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자 부처님께서는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모든 중생들에게 네 가지 공양(음식, 의복, 와구, 탕약)을 백년 동안 보시하더라도,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계를 지킨 공덕만 같지 못하나니, 계법은 정(情)과 비정(非情)의 온갖 경계에 두루 통용되기 때문이다"고 갈파한다.

불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부처 되기'다. '부처 되기'는 부처님을 닮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바로 '지계'인 것이다. 〈화엄경〉에는 "계는 무상보리의 근본이다"는 말이 나온다. '부처님을 믿는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계를 받아 지키지 않으면 진정한 불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 계율의 근본이 바로 오계다. 가장 간단하지만 불교의 모든 계는 오계에서 나온다. 오계는 흔히 금지하는 말로써 '~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표현되지만, 무엇 무엇을 실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라고 이해해야 옳다. 이 '긍정적 실천'의 의미 속에는 '지계'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금계가 아니라 고도의 사회윤리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오계 가운데 '불살생계'는 살생을 금지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모든 생명의 존중을 요구한다. 불교환경교육원,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 지리산살리기 댐 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 불교환경연대 등 90년대 들어 불붙기 시작한 불교계 환경 운동은 오계 가운데서도 기본인 '불살생계'의 적극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오계지키면 사회 절로 맑아져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이자 광주에선 처음으로 주남호보전협의회를 만들기도 한 현고 스님은 "불교의 환경 운동은 간단히 말하면 '불살생계의 사회화'라고 말할 수 있다"며 "승단 안의 계율이 사회적 계몽과 실천 덕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해인총림 율원장 혜능 스님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 있고, 가정의 근본은 구성원 각자의 수신에 있다"며 "가장 기본이 되는 자신의 몸을 닦는 것은 바로 오계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오계의 실천이야말로 이 사회를 맑고 밝게하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신행 캘린더

6월 19일 (수)

■대구불교대학 '찬불가' 공연=대구불교대학이 개교 10주년을 맞아 찬불가 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 이르시네' 등 12곡의 찬불가와 법현스님의 휠로공연, 금강사물놀이단의 초대공연 등 다채로운 불교음악을 감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후 7시 30분 대구시민회관 대강당.(053)256-3725

■종교지도자협 '대한민국종교미술제'='관세음보살도', '서원의 탑', '은해사 계곡', '선(禪)에 든 비행기' …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인사동 라메르 갤러리에서 유명작가 161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승오스님, 원성스님, 영인스님 등의 작품 27점도 전시된다.(02)766-4776

6월 20일 (목)

■불교상담개발원 '정기교양강좌'='세 쌍 결혼에 한 쌍 이혼', 현대사회에서 부부 싸움, 이혼 등 가정불화는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오후 2시 조계사 불교대학 2층에서 바람직한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상상과 현실 사이' 강좌를 마련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종수 원장이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무료.(02)737-8803

■마야문화원 '아함경 강좌'=부처님 말씀을 최초로 기록한 경전인 〈아함경〉 속에 나타난 '근본불교의 사상을 공부하는 강좌.



◇마야문화원 경전 강좌.

마야문화원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마다 오전 8시 본원에서 동국대 인도철학과 강사 안승준 씨가 진행하는 '아함경' 무료강좌를 마련했다. (02)722-1950

6월 22일 (토)

■신라문화원 '달빛역사기행'=찬란한 달빛 속에서 느끼는 천년 신라의 정취.

신라문화원이 달빛 속에서 고도(古都) 경주 유적을 답사하는 역사기행을 마련했다. 분황사와 황룡사터, 안압지 등 대표적인 경주 불교유적을 둘러보고, 탑돌이와 전통차 마시기, 전통음식 먹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오후 5시 국립 경주박물관 앞, 참가비는 5천원. 외국인은 무료다.(054)774-1950

■맑고향기롭게 주말 '선 수련회'=일상생활에 찌든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맑고향기롭게는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오후 3시부터 1박 2일로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리'를 주제로 주말 선수련회를 마련했다. 참가비는 3만원.(02)741-4696

6월 23일 (일)

■광주불교교육원 '불교 유적 답사'=한여름에 맡는 그윽한 산사의 향기.

광주불교교육원은 '자장율사의 자취를 찾아서'를 주제로 양산 통도사로 떠나는 불교문화 유적답사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전남불교문화연구회장 이순교 법사의 안내로 진행될 예정. 출발은 오전 8시 광주시 계림동 교육원 앞. 참가비는 2만 3천원.(062)228-9098

6월 25일 (화)

■묘주스님 '금강경 강의'=수원포교당 거사회가 오후 7시 30분 수원포교당 관음전에서 묘주스님을 강사로 '금강경' 강의를 개최한다. 무료.(031)245-9670

"독거노인 위한 쉼터마련 주력"

우리 절 우리 신도

인천 옴누리선원 임진옥 포교부장

"우리 주변에는 가족들에게 소외된 채 버려진 노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부처님의 품안에서 편안히 쉬며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지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간 마련에 팔을 걷어붙일 생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옴누리선원(원장 종연스님) 포교부장 임진옥(49, 법명 혜련아)보살은 노인복지에 대한 각오가 대단했다. 사찰일에 적극적으로 나선지 2년도 채 안된 임 보살이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말벗이 돼 주는 등 봉사일에 앞장서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임 보살은 3개월 과정인 옴누리선원의 '인성불교 교양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선원장 종연 스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종연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을 몸에 익혀 실천하는 것이 더 힘들고 중요한 일"이라고 항상 강조했다. 이때마다 임 보살은 스님의 가르침대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워왔다.

실제로 옴누리선원은 개원한지 1년 6개월 밖에 안돼 절 살림이 넉넉지 않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평에 한옥 한 채를 얻어 독거노인들을 위한 '자비의 쉼터'를 마련했다. 이에 머물지 않고 올해 안으로 인천 지역에 5곳 정도의 쉼터 개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임진옥 보살(왼쪽)이 옴누리선원을 찾은 불자에게 사찰의 기초예절을 일러주고 있다.

"배운것 실천" 초심자 안내부터 시작

신도1인 1이웃 돕기에 적극 동참

노인복지불사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임 보살이 옴누리선원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옴누리선원의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을 보고 부처님법을 배워야겠다고 발심을 하면서부터다. 우선 기초교리와 습의의식, 참선 등을 강의하는 '인성불교 교양대학'을 통해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배운 것을 실천에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선원을 찾는 초심자들의 안내부터 시작했습니다. 인천 지역은 기독교세가 강하고 더군다나 옴누리선원은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기에 찾는 신도수도 얼마 없었어요. 그랬기에 선원을 찾는 이웃 주민들에게 포교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임 보살의 꾸준한 노력 덕택이었을까. 1년이 지나자 신도가 2백명을 넘어섰다. 포교환경이 열악한 인천 지역에서는 놀랄만한 일이었다. 아직도 옴누리선원을 처음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임 보살일 정도로 임 보살은 초심자들의 신행상담에 열심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30~40대 보살이 주 신도인 옴누리선원에서 힘들고 지쳐 선원을 찾는 이들에게 등을 다독거리며 인생상담까지 해주는 등 큰 언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낮에는 직장인 인천시 계양구청에서 일하는 탓에 선원에서 일하는데 제약을 받긴 하지만 밤중에라도 선원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뛰어올 정도로 옴누리선원에서 없어서는 안될 임진옥 보살.

임 보살의 활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임 보살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정담당을 맡으면서 투명한 사찰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선원의 1인 1불우이웃 돕기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임 보살이 다른 신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은 단순히 선원일에 헌신적이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무차참회기도와 108배 기도, 경전 독송 등 1년 내내 진행되는 옴누리선원의 기도정진에 빠짐없이 동참하며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옴누리선원이 임 보살을 보배로 여기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김주일 기자

추천의 말

종연스님 옴누리선원장



임진옥 보살은 자기수행도 열심히 하고, 포교에도 혼신을 다하는, 옴누리선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신도입니다.

개원한지 2년도 안된 옴누리선원이 포교환경이 열악한 인천에서 인터넷 포교와 복지불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임 보살과 같은 불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임보살은 '자비의 쉼터'를 개원할 때 각 가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보시하도록 다른 신도들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독거노인을 방문해 자신의 부모처럼 모시고 정성껏 봉사행을 펼치는 임 보살을 보면서 옴누리선원, 더 나아가서는 한국불교의 희망을 보는것 같았습니다.

또 바쁜 일상과 신행활동 와중에도 틈틈이 기도와 불교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어 다른 신도들의 귀감이 됩니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敬愛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오가피를 아신다면 이글을 꼭 읽어보십시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업 체 명	제 품 명	아칸토사이드D 함량(㎍/g)
(주)수신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차 골드	98.82
(주)한국자연과학	함박재 가시오가피 백두	16.52
(주)한국자연과학	함박재 가시오가피헤피니스	7.47
(주)바이오젠코리아	고려가시오가피	15.49
파진바이오(주)	경희가시오가피	21.32
고려한백인터내셔날	실크오가피Q	검출안됨
대전충남염소농협	토종가시오가피	검출안됨
고려인삼과학	토종아생가시오가피	7.00

※상기함량은 각 제품 1g에 들어있는 아칸토사이드 D의 함량입니다.

업 체 명	제 품 명	아칸토사이드D 함량(1회복용분)
(주)수신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4957.75
파진바이오(주)	진생성장원	504.90

안녕하십니까?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입니다.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래들어 우후죽순으로 오가피 혹은 가시오가피를 사용했다는 제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는 원료가 없는 것을 알고있는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이들제품들을 무작위로 구입하여 분석해봤습니다. 그결과는 너무나 경악스런일이었습니다. 혹시나 착오가 아닐까 재차, 삼차 분석해봤습니다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칸토사이드 D(Acanthoside D = Eleutheroside E)란 성분은 오가피의 지표물질로 삼고있는 오가피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오가피의 제품은 가짜입니다. 또 이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냐에 따라 정말로 제대로된 원료를 사용했는지, 또 원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시오가피가 좋다고 선전해오던 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시오가피가 다른 오가피들보다 월등하게 좋으며, 그 이유로 아칸토사이드 D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주장을 하곤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이 만드는 제품에 저희제품보다 이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 오가피가 비쌀이유가 없다면서 저희제품보다 훨씬 싸다고 선전하는 제품들이 연일 신문지상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제품과 같은 양의 오가피를 섭취할수 있으려면 표에서 보실수 있듯이 멧돼에서 멧십배나 되는 양을 더 먹어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싼것입니까?

이 실험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업주께서는 시중에서 무작위로 구입한 귀사의 제품과 저희 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청등 국가기관에 공동의뢰하여 공개적으로 실험할 것을 제의합니다. 참고로 이곳에 게재된 실험결과는 저희 실험실만이 아니라 국립대학교 2곳, 제약회사 1곳, 국가공인기관 1곳에서 실험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비자여러분께서는 오늘 게재된 제품외에 다른 오가피제품이 있다면 저희에게 실험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무료로 성분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혀 오가피 또는 가시오가피를 수확하지도 않으면서 오가피제품이라며 판매하는 제품이나 겨우 몇칫짱에 불과한 재래지를 몇만짱, 몇십만짱으로 부풀려 광고하는 제품, 북한산야생이라 훨씬 좋다는 제품들에 더이상 현혹되지 마십시오. 품질은 정직한것입니다. 앞으로 국내의 모든 오가피제품을 검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 올림.

문의전화 (02)447-9114

불교대학을 찾아서

② 부산불교 교육대학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생들이 월드컵 기간동안 시내를 환하게 밝힐 연등을 달고 있다.

포교사 최다배출, 각계 각층에서 맹활약
학사관리 엄격-석달마다 사정 미달자 제적
불교회관에 校舍…빔 프로젝트등 첨단시설

불교교육은 불교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이하우)은 부산불교의 자양분이요 요람이다.

국내 불교 교육기관중 조계종 포교사를 최다 배출시킨 부산불교교육대학. 1982년 설립 이후 총 810명의 포교사를 배출한 불교 교육의 명문이다.

1991년, 이하우 학장 취임 이후 교육의 기틀을 다지게 된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기초교리과정, 불교학과, 경전연구반, 수화반 등 전과정에서 3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각계 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졸업생이 수두룩하다.

불심 최고 도시로 통하는 부산불교의 중심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 졸업생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류진수 부산불교방송 사장를 비롯 부산불교보현회, 부산시경 경불회, 한빛은행불자회 등 크고 작은 신행단체의 장으로 활동하는 졸업생이 많다. 이것은 '부산불교교육대학을 나왔으면 틀림없다'는 명제가 통할 만큼 학사관리가 엄격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교과과정외에 수련회, 야외법회, 봉사활동 등을 좋아하여 3개월마다 사정을 거쳐 미달자는 과감하게 재적시키므로 입학생의 50%이상이 탈락될 정도. 수강생의 70% 이상을 거사들이 차지해 보살들이 많은 다른 불교교육기관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부산불교교육대학의 특징이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졸업생들의 긍지 또한 매우 높아 졸업생들의 기수별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하다. 각 기수별로 보훈병원, 통합병원, 항만사령부 등의 법회를 이끌고 있는가 하면 수화반 출신의 심여희는 불교행사의 수화통역과 농아들을 위한 법회를 열고 있다.

이같은 원만한 신행과 봉사활동 외에도 부설기관인 〈환희지 문화원〉과 〈환희지 사회복지원〉을 통해 전통문화확산과 복지사업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합창단, 사물놀이패, 다도, 매주 3회 극빈자들을 위한 무료급식 등은 교리와 실천이 조화된 교육 방침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뛰어난 강사진, 엄격한 학사관리로 올해 조계종 불교전문교육기관 중 최고 등급인 갑종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법, 도생, 정진의 교훈아래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는 부산불교교육대학은 2000년 학사를 부산시 청옆 부산불교회관으로 이전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150평 규모에 350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에 컴퓨터로 강의하는 빔프로젝트 시스템, 초대형 프로젝션 TV 등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추고 불제자 양성의 요람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하우 학장은 "문교부 인가를 받은 정규미니불교대학으로 키우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며 "불교학과, 간호학과를 비롯 전통적인 학과를 개설해 불법을 생활 속에서 널리 펼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야채행상하며 무료급식봉사
12기 재학생 조동조거사



"정법을 배우고 싶어 등록했어요. 그리고 배운만큼 실천하려고 무료급식에도 빠지지 않고 있지요."

부산불교교육대학 12기 불교학과에 재학중인 조동조(52 · 사진) 거사는 매주 수요일 무료급식 봉사에 빠지는 법이 없다. 차량 야채 행상을 하고 있는 조 거사는 가까운 노인정을 찾아 적은 양의 야채지만 정성껏 보시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조 거사는 "재산과 건강을 잃은 고통을 겪은 만큼 불법의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쁨도 크다"고 말했다.

연중 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뇌성마비 자식 보살피는 실향민 할머니

나 죽으면 아들놈은…

"영감님은 나보고 차라리 죽으라고 했어. 순규 놈은 잘 보살필테니 편히 가라고. 그러면서도 때 되면 밥 떠 먹여 주더라구. 살아야 한다고…. 그러던 영감이 먼저 가다니…. 나 죽으면 아들놈은 어떡한다지? 아들놈하고 같이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 한날한시에 죽으면, 아들놈 혼자 남지는 않을 거잖아…."

실향민 장정옥(72) 할머니. 마흔이 다 된 선천성 뇌성마비 아들 최순규(39) 씨와 서울 면목동 14평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10년 전 중풍을 앓으면서 누워 지내던 장 할머니가 6년 만에 그나마 앉아서라도 생활할 수 있게 된 사연부터 풀어놓는다.

10년전 중풍발병 앉아서 생활
이웃도움으로 생활보호 혜택



◇들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들 최순규 씨.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진다.

"갑자기 쓰러져 누워 지낼 때, 영감님이 나하고 아들놈 수발 다 들었지. 동네 사람들은 다들 내가 곧 죽을 거라고 난리들이었어. 그런데 말이야, 영감도 영감이지만 아들놈을 두고 차마 죽을 수는 없었어.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

이렇게 장 할머니의 와병 생활이 이어지면서 살림은 전적으로 남편 최 씨의 몫이 됐다. 낮에는 공공근로에 나갔고, 밤에는 두 모자의 뒷수발을 다 들어야 했다. 급기야 북에 두고 온 고향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남편 최 씨는 술로 지내다 결국 4년전 세상을 떠났다.

남편 최 씨가 떠난 빈 자리. 그 자리에 뇌성마비 아들 최 씨가 자리 잡았다. 아들 최 씨가 장애인 판정을 받기까지의 사연도 참 기구하다. 집밖 출입을 전혀 못하던 장 할머니가 중랑보건소에 민원편지를 보냈다. 딱한 사정을 접하게 된 보건소에서는 직접 출장을 나와 아들 최 씨의 증세를 진단하고 장애등급 판정을 내주었다. 하긴 두 모자가 비좁은 방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지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들 최 씨가 '호된 바깥나들이'를 한 적도 있다. 최 씨가 8살 때, 장 할머니가 잠시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리고는 4일간 연락이 없었다.

"초상난 집처럼 영감님하고 4일 동안 밤낮으로 통곡한 채 지냈었지. 우연히 라디오 방송에서 미아를 찾는 내용의 방송이 나오더군, 거기에 아들놈의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다시 찾았어.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찔하다구."

부채를 집어든 장 할머니의 오른손이 계속 떨린다. 한 마디 내뱉는 말조차 힘겨운 기 그지없다.

이들 두 모자가 이 정도라도 연명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3년 전이다. 바깥출입이 어렵다보니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조차도 불가능했다. 어렵게 이웃의 도움으로 이들은 정부로부터 한 달 지원금 30만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아파트 임대료, 공과금 등 기초생활비로 20만원을 빼고 나면, 반찬비는 커녕 병원비도 마련하기 힘들다.

남편 생각과 아들 최 씨 생각만으로도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내리기 바쁜 장 할머니. 먼저 간 남편에 대한 원망도 원망이지만,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장 할머니는 마음이 아프다.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 면목도시개발아파트 3동 413호

전화번호 : 02-439-2460

후원계좌 : 한빛은행 139-082921-12-101(예금주 장정옥)

김철우 기자

시인 김홍성의 네팔사는 이야기

〈1〉 히디가웅



카투만두市 가장 오래된 동네…곳곳에 주막
불탑 · 신전 · 보리수 많고 축제 계속 이어져

지난 2월, 우리는 또 다시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난한 동네와 부자 동네의 낯선 골목과 낯익은 골목을 종일 걸어다녔습니다. 어떤 집 울밑에는 복사꽃이 피었고, 어떤 집 유리창은 먼지가 두껍게 붙어 있었습니다. 버려도 될 것을 여기저기 쌓아놓은 마당도 있었고, 컴컴한 골방에서 기침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나간 집은 휑뎅그렁했고, 나갈 집 안방에 걸어 놓은 주인 부부 사진은 우울해 보였습니다. 한 집을 보고 또 한 집을 보러 골목에 나설 때마다 따가운 햇살 속에 뽀얀 먼지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찾아낸 마을이 하디가웅입니다. 카트만두 시내의 여러 동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라는 하디가웅은 옛 문화를 말해 주는 불탑과 신전들과 보리수가 유난히 많으며 마을 전통 축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콧구멍 같은 대포집들이 골목골목 구석구석 박혀 있어서 가난이나 고단한 노동이나 너무 늙어서 노동마저 없는 권태에 지친 주민들이 허리 구부리고 그 작은 주막집 문을 드나듭니다.

카트만두 시내에서 술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이 동네이며, 한 때는 우범 지대로 손꼽기도 했다는 이 가난한 동네의 허름한 집에 세 들어 살기로 결정한 것은 주변에 보리수가 유난히 많은 것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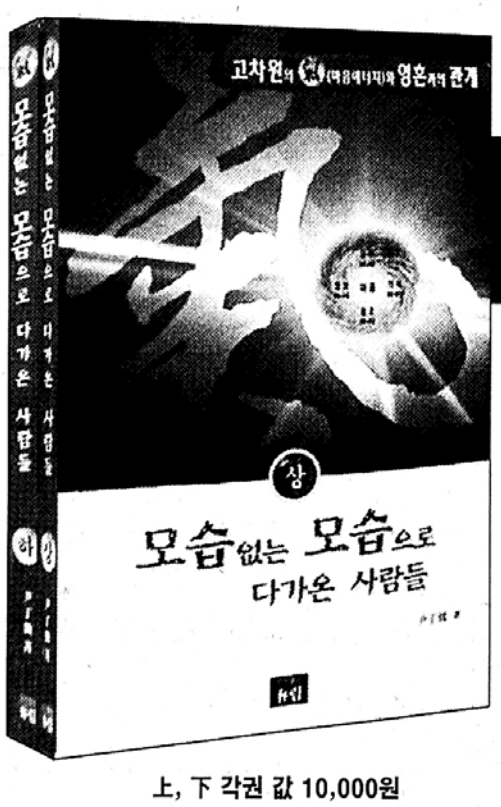
우리는 지난 삼일절 날에 이사했습니다.

이사하자마자 봄이 무르익었습니다. 온 마을 꽃나무들과 화초들은 벌써부터 꽃을 피워서 벌 나비들을 불러모으고 있는데 마을의 보리수들은 겨우내 지다 만 낙엽을 마저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새잎을 다는 작은 풀과 작은 나무들을 위한 큰 나무의 배려였습니다. 만일 큰 나무들이 먼저 새잎을 달아버리면 그 밑의 작은 나무들과 작은 풀들은 햇빛을 못 봐서 싹을 틔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마을 사람들은 보리수에게 날마다 경건한 기도를 바칩니다. 경찰관도, 품팔이나 청소부도 보리수 앞을 지나갈 때는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머리 숙이고 잠시 기도를 하거나 묵념을 합니다.

프로필 김 홍 성 coolwind@wlink.com.np 1954년 서울 출생.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졸업. 월간 '나그네' 등의 창간 작업에 동참했고, 월간 '사람과 산' 편집장을 마지막으로 히말라야 기슭을 떠돈 지 7년에 접어들었다. 1985년 동인지 〈反詩〉 8집을 통해 등단, 1991년에 시집 〈먼지 속에 꽃씨 하나〉를 냈으며 〈히말라야 기행〉 〈방랑수첩〉 등의 수필집도 냈다. 현재 네팔 카트만두에 거주하면서 히말라야를 무대로 한 소설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우리 곁에 혜성처럼 나타나 영가천도를 원격(遠隔)으로 1~2초에 하고 있는 초능력자 윤정주씨의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 이야기

우리의 氣(마음에너지)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저 자 : 尹 丁 做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신체(身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 : 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심신의 아픔과 온갖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실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놨다.

이 책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껏 유래없었던 혜성 같은 이야기와 저자의 신비로운
기(氣 : 에너지)가 가득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上, 下 각권 값 10,000원

신비한 기(氣: 에너지)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다

도서출판 슈 첨

■ 전화 : 02-736-7148, 723-3856
■ 팩스 : 02-736-7148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②



그림 · 문병성

박사학위와 인가

필자는 지속적인 선 '수행 결과 1987년 '무문관(無門關)' 을 투과하고 종달 이희익 노사로부터 인가(印可)를 받았다. 인가란 이제 스승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제자를 지도할 수 있고 독자적인 수행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 결코 석가세존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뜻은 아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도 박사학위 후 세계적인 학자들의 지도 아래 '박사후 과정' 을 밟게 된다. 이 과정은 학문에 대한 담금질을 위해 꼭 필요하며 수행의 세계도 이와 비슷하다. 즉 수행자들이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오후(悟後) 수행' 이라는 과정이 있어 자신의 깨달은 바를 여러 노사들께 입참(入參)해 체득한 바를 확실히 다지는 일이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 화계사 조실로 계신 숭산(崇山) 스님의 배려로 1991년과 1997년 두 차례 독참(獨參) 입실 점검을 받으며 참선 지도 법사로서의 역량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었다.

덧붙여 필자는 1989년 9월부터 모교인 서강대학교로 돌아와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연구과제는 지도교수가 주지만, 동료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좋은 연구성과(20년 동안 SCI 등재 국외학술지에 90편 게재 및 박사학위 6명 배출)를 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종달 노사께서 입적하신 1990년 6월 7일 이후 선도회 제2대 지도법사가 되어 선도회 문하생들의 입실 지도를 해오며 지금까지 6명의 법사를 배출해오고 있다.

사실, 오늘날 첨단과학 분야에서 독붙장군식으로 혼자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인접한 여러 세부 분야들이 함께 연구팀을 이루고, 공동연구(작업)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구성원끼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원 각자의 인격적인 수양도 매우 필요로 하는 시대인데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각 구성원들은 둘이 아니라는 불이(不二) 사상을 온몸으로 체득케 해주는 (선)불교 수행법은 매우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이제 필자의 (선)불교 수행 모임인 '선도회(禪道會)' 의 법사로서 체험한 바와 물리학 교수로서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지도를 해오면서 느낀 바를 바탕으로 '불교(종교)와 과학의 상호관계' 를 살펴봄으로써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선)불교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나투고자 한다. 우선 과학은 서양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현대적인 과학이 종교(기독교)와 어떻게 첫 만남을 시작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중세 카톨릭 "모든 학문은 신학의 시녀"

뉴튼이후 과학 · 종교 독자적 영역 구축

과학 · 종교 우호적 만남

고대 그리스는 해상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자 부유층은 노예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여가가 생기자 자연스럽게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학자들이 출현하게 되고 순수학문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자연학(physica)은 자연(physis)을 연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 오늘날 '물리학(physics)' 이라 불리는 이 학문 분야는 그 어원만 살피더라도 자연학이 발전하여 형성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리스 문명을 계승한 로마 시대에는 순수과학보다는 세계 정복과 더불어 필요에 의해 실용적인 토목과 건축 분야가 발달하게 되었기 때문에 4원소설이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포함한 그리스의 자연과학은 별 검증 없이 기독교 신학체계에 자연스럽게 흡수 · 통합, 중세 기독교 시대까지 신학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유지된다. 특히 중세에는 수도원적인 금욕주의와 물질의 가치를 무시하는 풍토로 자연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였으며, 심지어 가톨릭의 보나벤투라 성인은 신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의 목적은 '성서 해석에 도움을 주어 신앙을 공고히 함으로서 하느님을 영광되이 하는 것' 이라고 주장, 다른 학문을 '신학의 하녀' 라고 규정짓기까지 하였다. 그 이후 16세기가 되면서 신학적 반대에 부딪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비록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브라헤, 케플러, 갈릴레이 등의 헌신적인 탐구 노력을 바탕으로, 뉴턴이 지구가 태양 둘레를 타원궤도를 그리며 공전하고 있다는 관측사실을 정량적으로 나타냈다. 뉴턴이 역학에 관한 운동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완성함으로써 기독교에서 주장해오던 천동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종교와 과학은 서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는 동시에 서로 상호 영향을 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갈릴레이의 경우, 지동설을 주장할 때 그 근거로 망원경을 이용한 관측 결과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자유롭게 성서를 해석' 함으로써 가톨릭계의 강한 반발을 일으킨 반면, 영국은 17세기에는 '하느님이 주신 자신의 재능을 과학적 탐구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 이라 생각한 청교도들에 의해 종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과학이 장려되고 있었기에 뉴턴을 배출할 수 있었다.

박영재/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jpark@ccs.sogang.ac.kr

이렇게 들었다

분한 마음 일면 원한도…

러시아 훌리건의 난동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내는 사람 속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해 남들이 모두 악행한다고 하더라도 가담하지 말라. 강한 자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고, 자기와 같은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잡보장경>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고요히 해 성냄을 자제하라고 가르치셨다. 이런 부처님 말씀을 항상 가슴에 되새겼다면 러시아 훌리건들의 난동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10일 일본과의 경기에서 러시아팀의 패배에 흥분한 수천여명의 러시아 팬들이 모스크바 시내 중심가에서 난동을 벌여 경찰관을 포함해 두 명이 죽고 71명이 부상하는 등 대형사고가 있었다. 특히 러시아 훌리건들은 시내를 몰려다니며 일본인으로 보이는 동양계를 무차별 습격해 차이코프스키 음악콩쿠르에 참가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온 음악가와 유학생 등 5명의 일본인이 다쳤다. 또 훌리건 일부는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의 습격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알렉세이 볼린 러시아 내각 사무차장은 "이번 난동은 수백만명의 러시아 축구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격분해 이번 난동은 러시아는 물론 세계 축구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 앞으로 남은 월드컵을 지켜보는 관중들도 경기결과에 승복할 줄 알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이 분한 마음을 일으키면 원한을 맺는다. 사람이 분한 마음을 일으켜 원한을 맺으면 그는 스승을 공경하지 않고 법을 보지 못하며 계를 지키지도 않는다. 또 그가 싸움을 일으키면 결국 천상과 인간에 지극히 심한 고통과 재앙을 일으키게 된다. <증일아함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대한불교 조계종이 종단명칭과 종무기구를 비롯한 불교용어의 영문표기법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총 백여 개 용어 중 주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 오른쪽이 바뀐 표기법)

조계종 Korean Buddhist Chogey Order →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참)선 Seon(zen) →Seon meditation
스님 Monk → Monk / Buddhist Monk
선사 Seon Master
방장(스님) Spiritual Patriarch
주지스님 Chief → Abbot
행자 Novice → Apprentice
중생 Sentient being
예불(의식) Buddhist Service → Buddhist Ceremonial Service
오계 The Five Precepts
삼귀의 Tree Refuges → The Tree Refuges
사홍서원 The Four Great Vows
발우공양 Buddhist Meal with Traditional Bowls
포교당 Buddhist Center → Dharma Instruction Center/ Buddhist Center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⑭

텅 빈 것이 진실하다

사물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삼세 시방에 부처와 조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만 법(法)을 구해서일 뿐이며, 지금 도를 배우는 여러분도 다만 법을 구할 뿐이다. 법을 얻어야 비로소 끝마치게 되고, 법을 얻지 못한다면 여전히 5악도를 윤회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법인가? 법이란 마음법(心法)이다. 마음법은 모양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관통하고 눈앞에 드러나 작용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이름과 말로써 알아차리고 문자 가운데에서 구하며, 뜻으로 불법을 헤아리니, 하늘과 땅 만큼이나 어긋나는 것이다. 마음법은 범(凡)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성(聖)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깨끗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더러움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진(眞)에도 들어갈 수 있고 속(俗)에도 들어갈 수 있다. 요컨대 그대가 진속범성(眞俗凡聖)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진속범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진속범성이 이 사람에게 이름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석가세존이 깨달은 것을 일컬어 법이라 한다. 그러므로 법을 불법이라고 한다. 이 불법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사물을 가리켜 마음이라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사물이 곧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마음이 드러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마음이 있고 그 밖에 따로 사물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사물은 마음 위에서 마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해야 한다.

사물은 마음 위에서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러나 마음은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사물의 변화를 통하여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이 별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변화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마음에 계합하여 스스로 체험한 상황에서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욱 진실이고 근원임을 확신하게 된다.

변화하는 것은 모양이 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것은 모양이 없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다. 즉 모양 있는 것은 무상(無常)하게 변화하는 것이요, 모양 없는 것은 변화에 대하여 말할 수가 없다.

모양은 지각기관을 통해서든 내면의 느낌을 통해서든 생각을 통해서든 알려진다. 즉 알려지는 것은 모두 모양이 있으며, 모두 무상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매 순간 순간 변화하며 흘러가는 눈앞의 모양이나 느낌이나 생각의 바탕에는 흘러가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무엇' 이 있다. 비유를 들면 이것은 마치 물결이 물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다. 다양한 물결이 쉼 없이 흘러 지나가지만, 물결의 바탕이 되는 물은 늘 그렇게 있을 뿐이다. 늘 그렇게 있지만 물결로 드러나지 않으니 모양으로서 알려지지는 않는다.

마음도 그와 같다. 무상하게 변화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의식 아래에 그 의식이 나타나는 바탕이 되는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은 경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텅 빈 허공이라고도 하고 실상(實相)은 무상(無相)이라고도 한다. 선 공부란 텅 빈 이 바탕을 체험하고 맛보아서, 텅 빈 이 바탕이 진실한 것이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무상하고 허망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의심 없는 믿음을 얻는 것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대학교: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침구학 단기 연수안내

국내최초 도입된 중국의
평형침구의학 강의
새로 창안된
남정 사상 침구학 강의

한의사, 전통침구사
침구학에 관심 있으신분
대환영합니다.

질병을 치유코저 하시는 분도
연락 바랍니다.
본원장은 ○대학에 침구학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대체의학 연구원장
대체의학박사

연락전화 02)3159-8886
3158-6977
011) 722-6977

특히, 수행하시면서 쉬 피로를 느끼실 때
복용하시면 반드시 효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물장어엑기스

허린이나 노약자는 물론 허약하신분들
특히, 관절염 골다공증 환자분들에게 좋습니다.

민물장어는 인체에 필요한 필수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덩어리이면서 항암효과 피부미용
노화방지 시력보호에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 A, D, E의 보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동충하초는 천식 악성 간염 위염
폐결핵 만성결핵 각종암에 항암 효과가
탁월하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만성피로
노화방지 빈혈 허약체질에 약리효과가 있습니다.

「정진하는 맘으로 6시간이상 정성껏 다렸습니다」
- 지운거사 -

※ 택배도 가능(1개월분 이상)

● 민물장어 6kg + 동충하초 120,000원(택배비 포함)
● 민물장어 6kg + 십전대보탕 150,000원(택배비 포함)

동천민물장어
연락처 051)643-8592 / 019)515-7239

속편안한세상

부건 속편 차(茶)

위 속편 茶는 약 6-7년전 산에서 수행하던 선도인(仙道人)의 비법으로 개발된 신비한 효험이 있는 차 입니다. 산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병이 나면 스스로 약초를 찾아서 질병을 다스리며 때로는 산에서 만난 속가의 사람들에게 약초나 약을 보시하여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편안 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차는 수행하는 도인이 깊은 명상에서 찾은 비법인 만큼 그 효능은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입니다.

● 산에서 산인(山人)이 개발한 차입니다.
● 일주일만 드셔도 속이 편안해집니다.
● 우리 산에서 자생하는 약초로 만들어서 효능도 좋습니다.
● 속편 차는 속이 불편하신 분만 드시라고 만들었습니다.
● 약 2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속편 차를 드신 후 설맛'닌다고 하십니다.
● 한번 드시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 만드는 비법이 특허출원 중입니다. [특허출원 번호 : 10-2002-0018148]
● 연락 주시면 소상히 알려 드립니다.

합자회사 부건식품
전화 : 041-674-6955,6966 / 017-724-3355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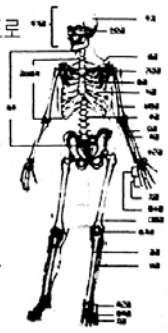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목어 '붉은 악마'



중국신화에서 대표적 악마는 치우(蚩尤)다. 중국의 시조로 신화시대 최고 권력자였던 황제(黃帝)에 대항, 그의 간담을 몇 번이나 서늘케 한 장본인이니 중국에서야 악마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치우가 누군가. 동이족과 연원이 닿아있는 염제(炎帝) 신농씨의 후예로 한민족 신화에서는 단군 이전 환웅시대 14대째 임금인 자오지 천황이 바로 치우다. 구리머리에 쇠 이마를 했으며 슬기롭고 지혜로워 능히 아홉 겨레를 거느렸고, 모래와 돌, 쇠붙이를 먹고 안개와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했으며 우수한 병기 만드는데도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황제와 10년에 걸쳐 전쟁을 치르면서 치우는 광대한 중국 땅을 차츰 정복, 한때 동이족의 국토를 크게 넓혀 민족의 군신(軍神)이 되었다.

그럼에도 민족 신화에 무지했던 한국의 한 TV에서 중국 신화를 그대로 작품화해 치우가 악마로 나오는 만화영화를 방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그 치우가 이제 세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공식 응원하는 '붉은 악마'의 상징 캐릭터로 등장, 세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세계는 지금 '붉은 악마'를 '콜리건'이라 부르며 영국의 '홀리건'이나 러시아식 '헐리건' 등 세계의 광적 축구 팬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 응원단으로 소개하고 있다. 응원에 있어서는 한국이 세계 월드컵의 우승국이라는 찬사까지 아끼지 않는다.

수많은 거리의 응원 인파들에게 질서의식의 모범을 보이고,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만을 불태우는 '붉은 악마'는 진정 우리사회에 하나의 희망을 던져주면서 미래 시민사회의 건전한 가능성까지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이 택한 상징, 신화속의 군신인 치우의 재생 역시 반기고 싶다. 한 나라의 신화는 그 민족의 원형질이라 하지 않는가. 한민족의 원형질이 이 시대에 재생, 건전한 모습을 세계에 드러내고 있음인데 앞으로 남은 경기기간에도 '붉은 악마'들의 건투를 기대한다.

김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불자의 생각

수행



불자들은 하루에 참선이나 기도, 염불, 경전 읽기 등 수행을 위해서 평균 30분미만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30분 미만" 51.2%

82명이 동참한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에서 42명(51.2%)이 30분 미만, 18명(22%)이 1시간 미만, 9명(11%)이 2시간 미만, 13명(15.8%)이 2시간 이상 이라고 응답했다.

개인적인 수행을 하는 시간은 주로 언제냐는 질문에는 46명(56.1%)이 형편대로, 26명(31.7%)이 새벽, 10명(12.2%)이 저녁이라고 답변했다.

임연태 기자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 교수
행정대학원장

탈북자 입국·복지 함께 고민할 때

탈북자 문제가 이제는 국제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탈북자가 외국의 외교공관에 진입한 경우 중국과의 외교적 교섭을 통해 제3국 추방을 거쳐 서울로 가는 방법을 택해왔다. 그런데 최근 중국정부가 중국 내 한국공관에 들어온 탈북자의 신병을 요구하는가 하면, 탈북자를 연행해가고, 우리나라 외교관을 폭행한 사건까지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북한을 떠나 중국, 러시아 등지에 있는 탈북자는 그 수가 얼마나 될까. 또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 정부는 탈북자 수를 2천~3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인권단체, 종교단체들은 4만명에서 20만명 정도라고 말한다.

그러면 탈북자들을 우리는 어떤 범주에서 해석해야 하는가. 첫째,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있으므로 그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주장. 둘째,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일반적 범위의 북한 이탈주민을 말하는 경우 셋째, 우리나라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탈북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 이탈주민 중 보호의사를 표시한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세 범주 중 가장 협의의 범위를 법으로 정해놓고 그것도 통일정책, 대북정책의 '상황적 논리'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우리나라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접근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 놓아야 한다. 나아가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과 협력하여 난민지위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은 '사회연계체계의 빈약으로 인한 외로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말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생존기술'에 능숙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자신을 '문제아'로 보는 남한사람들의 시각에 괴로워하며,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부족에서 생기는 심리 ·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정부의 탈북자 대량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하다. 북한이 엄중한 감시를 하기 때문에 대량의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미온적 생각을 하고 있다.

둘째,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체제적응 프로그램이 일률적이고 형식적이다. 예를 들면, 탈북자는 우선 정보사령부 합동심문소에서 6개월, 보호시설(하나원)에서 6개월, 거주지의 경찰에 의한 보호 2년 도합 3년을 보호하는데 담당경찰의 수시 점검으로 인해 인권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셋째, 취업프로그램도 본인의 취미나 특기를 고려하지 않고 공장노동자를 양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식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기면서 남한에서의 직업인, 생활인으로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건전한 시민 양성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탈북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탈북자가 가지고 온 정보의 가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잘먹고 잘살던 사람'이 정보수준의 제공에 따라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도 잘먹고 잘산다'고 불평한다. 또 탈북자들은 정부로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탈북자의 80%정도가 영세민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탈북자문제는 외교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입국시키는 합리적이고 상호 이해적 차원의 해법을 찾는 문제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복지문제를 다함께 고뇌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불교학과 신행

"한국의 불교학은 수행 및 신행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학 전공 교수들이 만나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에 좌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연다. 조계종 포교원이 27~28일 부안 내소사에서 '불교학의 실사구시'를 주제로 개최하는 '불교학 전공 교수 연수회'가 그것.

이날 발표되는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불교학의 실사구시-체계불학과 실천불교의 정립을 위한 小考'라는 주제발제와 함께 토론에 나서는 박태원 울산대 교수와 서재영 동국대 강사의 '불교학과 신행, 수행의 문제'를 미리 들어본다.

<편집자>

체계·실천불교학 정립을



김성철 교수
동국대 불교학

오늘 우리나라의 불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불교적으로 살아가게 해 주기 위해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불교학은 수행체계를 정립하는 체계불학(體系佛學)과 실천불교학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문학적 연구만이 불교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불교관의 혼란으로 인해 방황하는 수많은 불자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불교신행의 현장에서 무엇이 가르쳐져야 할 것인가? 불교신행의 현장에서는 티베트의 〈보리도차제론〉에서 가르치듯이, 불교에 대한 '지식교육'이 아니라, 수행자의 심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심성교육'이

심성체득 위한 교육 이뤄져야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불자를 만드는 교육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명상'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다음 심성의 체득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승속을 떠나 우리 모두는 부처님을 닮기 위해 수행한다. 우리가 부처님을 닮고자 한다면, 가부좌 틀고 앉아 깨달음을 추구하는 좌선 수행 이전에 '복락조차 고통으로 자각하게 하는 수행(不淨觀)'과 '모든 생명체를 자비심으로 대하는 수행(慈悲觀)'부터 닦아야 한다. 그 다음에 번뇌를 끊는 좌선 수행을 하여 깨달음을 추구해야 진정으로 부처님의 모든 인격을 닮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수행이 완성된 이후 마지막에 제시되는 지관(止觀) 수행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좌선 수행'이다.

수행해야 겉돌지 않아



박태원 교수
울산대 철학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선사가 질문자의 공부 내력을 먼저 살펴보니, 그는 불교 이론에 익숙하다. 공이며 마음의 도리, 사사무애 일념삼천 등에 대한 사변적 이해에 정통해 있다. 그러나 답답하다. 지적 토대도 견실하고 실천윤리적 체득도 수준급이건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국면에 눈뜨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넘친다. 정작 불교 언어가 열어주고자 하는 수행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한 국면에 눈뜨지 못하고 있다는 갑갑증이 긴장하게 하고 있다. 선사는 그에게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소화되지 않는 언어, 사변의 틈에서 해방시키는 새로운 언어를 던진다.

서구적 배움의 길 방식 '비판'

"뜰 앞 잣나무니라."

불교 언어는 수행의 언어요, 걸어나간 만큼 이해되고 감당되는 언어이다. 이성, 감성, 윤리의 모든 층을 안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독특한 길이다. 서구적 배움의 길을 걷는 방식으로는 항상 겉돌게 마련이다. 불교학과 수행 혹은 신행의 문제가 근자에 부각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현대 불교학 이면의 서구적 배움의 길에 대한 열등감과 그에 따른 예속적 후유증이 심각하게 인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의 지적 전통에 따라 구성된 근대 이후 한국 불교학, 기본적으로 서구 학(學)의 길을 추종한 일본 불교학과 그것이 한국 불교학 발달에 미친 명암 등을 비로소 비판적으로 비추어 보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신앙·수행적 연구 절실



서재영
동국대 강사

현재 한국불교학의 일차적인 문제점은 불교학과 신행과의 괴리, 이론과 실천의 불일치라고 생각한다. 불교학은 불교라는 살아있는 종교를 연구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방향은 대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학문적 연구 성과들이 일선 포교현장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불교학의 문제가 단순히 인문학적 방법으로 불교학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방법론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원인은 불교 신행이 애초부터 외부에 의한 학문적 연구에 의해 확립된 체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종단 차원서 방향제시·성과 수용하길

불자들은 역사적 과정에서 왜곡된 불교가 아니라 불교의 핵심 즉, 부처님의 정법과 만나야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곧바로 만나야 한다. 이제 정말 인문학적 관심에서 벗어나 불교의 신앙적, 수행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미 불자들의 요구 수준이 전통과 관습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고 질높은 신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불교학이 바로 서야 신행이 방향이 올바로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종단적 차원에서 스님들과 학자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기구의 설립을 통해 불교학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그 성과를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강단 학문에 머물지 않고 불교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학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이다.

삼매체험 선 수련 법회

▼ 5일동안 수행으로

1) 불교, 선 수행의 기초를 확립한다.
2)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행복적인 미혹한 삶에서 탈피하여 뜻하는 일을 하고 활동하며 살 수 있다.
3) 불교의 목표인 깨달음과 해탈의 삶으로 나아간다.
4) 기복과 타력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5) 잘못된 불교관을 바탕으로하여 평생동안 심혈을 기우려 공들여 쌓아온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6) 선수행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활동과 일을 선택하여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다.
7) 수련후 삼매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1. 대상및인원 20 ~ 60세 남 · 녀 일반인 70명

차 수	1차	2차	3차	차 수	1차	2차	3차
수련기간	8월1일~5일	8월8일~12일	8월15일~19일	대 상	일반인		
신청기간	6월 15일 ~ 7월 15일			인 원	70명		

2. 수련일정 (4박5일)
3. 접 수 접수후 개별 통지함. 항공편 이용자는 속히 신청하여 항공편을 예약하여야 합니다. (항공편 이용자는 우선적으로 접수 통지합니다.) ※항공사 예약전화 : 대한항공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4. 신청 및 서류 아래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세요
1. 성명(한글.한자)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자택,직장) 4. 전화(자택,직장,휴대전화) 5. 종교
6. 직업-학교(과)반 7. 참가동기 8. 수련회 참가경험 유 · 무(유경험자는 순서별, 언제 어디서 기간) 9. 원하는 차수
5. 문의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 전화를 해주세요.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6. 접 수 처 제주시 화북 1동 4684번지 조계종 원명선원 ☎ 064-755-3322 팩스 064-755-0880 (팩스 신청후 꼭 전화로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www.wmsonwon.net

즉심즉각 본분도량 한라산 원명선원

2002년 단기출가 수련학교 수련생 모집 안내

올해로 15회째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4박 5일간의 전국불교청소년 수련대회를 해온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수련원을 개원하여 2002년 단기출가 수련학교를 개설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다 음

1. 기 간 : 7월 28일(日) ~ 7월 31일(水) 3박 4일
2. 어디서 : 경기도 안성 까치 마을 청소년 수련원
3. 대 상 : 초 · 중 · 고생 4. 참가비 : 60,000원 5. 정 원 : 100명

◆ 프로그램 :
- 참선수련, 독경, 한문예절교육으로 인성고취
- 등산, 극기훈련, 전통생활체험, 모닥불 이야기 등 인내심과 협동심 고취
- 자연과의 대화로 심성고취
- 청소년상담(장난꾸러기, 주위가 산만하거나 공부에 취미가 없고, 과잉스트레스, pc게임 중독, 공부에만 몰두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또는 교우관계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고민하는 자녀를 상담 지도해 드립니다.)

◆ 준 비 물 : 쌀 1되, 세면도구, 운동화, 슬리퍼, 필기구, 양말 4켤레, 손전등, 개인구급약, 갈아입을 옷 (속옷포함 상 · 하) (모든 물건에 이름을 꼭 써 주세요)
◆ 마 감 : 2002년 7월 10일까지(선착순 조기 마감)
◆ 접 수 처 : **서울 지장사 ☎(02)856-1558 청소년수련원 ☎(031)673-5899**
http://www.ggachimaul.or.kr / 단기출가 수련학교 / 접수하기 e-mail : webmaster@ggachimaul.or.k
◆ 송 금 처 : 국민은행 812-01-0134-991 예금주 : 까치마을

대지 700평 건평 100평 법당 요사채 등을 구비한 청소년 수련원이 경기도 안성에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지 장 사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청소년 수련원**

印 불가촉천민 생명줄 지바카 병원

작년 1만6천회 진료… 하루 환자 53명꼴
전문의료진 빈약… 시설·장비 가동 어려움

JTS, 비하르주 중심 기아·질병퇴치 앞장

부처님께서 전도기간의 상당기간을 보낸 인도 비하르 주. 최근 이곳에서 부처님께서 뿌린 전법의 싹을 큰 나무로 키워내고 있는 NGO가 있다. 바로 JTS(Join Together Society, 이사장 법륜스님)다.

1991년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의 서원으로 시작된 이 NGO는 제3세계 저개발 국가들의 기아, 질병, 문맹퇴치를 위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업장은 인도 비하르주 보드가야 근교 둥게스와리 지역에 있는 수자타아카데미와 지바카병원이다.

이중 JTS와 인도 사람들이 가장 자주 만나는 곳은 '지바카 병원'이다. 지난 한해의 진료횟수만 15,688회로 주위 80여개 마을에서 하루 평균 53명의 환자들이 다녀갔다. 작년 10월부터는 환자등록사업을 시작하였는데 7개월이 지난 금년 5월 현재 등록환자가 2,0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기초의료시설이 없는 오지에서 지바카병원은 지역민들의 건강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바카병원에는 상근의사가 없다. 전문 의료진이 부족해 입원시설들을 운용하지 못하고 고가의 엑스레이 장비나 기타 의료시설들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전문 및 일반 의료 자원봉사 인력의 동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현재 지바카병원에는 7명의 자원봉사 의사들이 자신들 병원을 개시하기 전인 이른 오전 시간에 교대로 환자들을 봐주고 있다. 적을 때는 일, 이십명, 많은 날은 이백명 넘어까지 찾아오는 환자들로 인해 병원의 오전은 늘 분주하다.

지바카 병원은 특별사업의 하나로 '결핵 퇴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가장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결핵'으로, 가족간 전염을 일상화시키고 있으며 만성적인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주민들로서는 다른 어느 집단보다 발병의 위험이 높다.



◇JTS 이사장 법륜스님(왼쪽)이 몸이 불편한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에게 목발을 선물해 걷기 연습을 시키고 있다.

지바카병원이 관리하고 있는 결핵 환자는 5월 현재 36명, 연내 100명의 환자를 관리할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02년 인도 JTS의 주요 핵심사업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지바카 병원의 도움으로 둥게스와리 주변 16개 천민 마을의 의료체계 건설의 첫 단계로 마을별 보건요원(Health Teacher)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한편 JTS(www.jts.or.kr)는 7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인도체험 봉사활동인 제4차 JTS 국제워크캠프를 연다. 문의=(02)587-8756

인도 보드가야= 김동훈 통신원

16국 시대 도안법사 석조상 발견

중국 섬서성서, 높이 17m 漢나라 복장

중국 섬서성 호현(戶縣)에서 고대 16국시대(316~439)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안(道安, 312~385) 법사 석조상이 발견됐다. 전문가들의 고증에 따르면 소조상은 대륙에서 유일한 것이자, 가장 오래된 도안법사 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조상은 서안에서 약 10km 떨어진 호현 대왕진(大王鎭) 착지촌(鑿地村) 북쪽 보살묘(菩薩廟)에서 나왔다. 석조상은 청흑색 석영암질에 높이가 17m, 가슴 둘레가 90m, 한(漢) 나라 복장을 하고 있다.

섬서성 호현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석도안 스님의 속성은 위씨, 상산(常山) 부류인(扶柳人)으로 되어있다. 중국불교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안 법사는 365년 〈중경목록(衆經目錄)〉을 편찬하고, 스님들의 성씨인 '석(釋)'을 가장 먼저 사용했다. 379년 장안에서 전진(前秦)의 국가영경장원의 주지를 맡아 100만언(言)을 역경, 중국 역사상 저명한 역경대사가 되었다.

세계 종교지도자 회의
泰 방콕서 200여명 참석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가 12~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불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를 비롯한 주요 종교와 기타 종파 등 각국의 종교지도자 2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종교 지도자 회의는 평화 증진, 빈곤 퇴치, 환경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태국불교대학과 '밀레니엄 세계평화 정상회의(The Millenium World Peace Summit)' 주최로 열린 이번 종교 지도자 회의는 미국 테러 참사 사건과 이스라엘과 중동간의 충돌 등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 평화와 포용을 권고했다.

이번 종교 지도자 회의는 2년 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2000여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종교지도자 회의에서 세계 평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세계 종교 지도자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데 따라 열리게 된 것.

세계 종교 지도자 위원회는 앞으로 방콕에 사무국을 두고 유엔 및 각국 정부와 협력아래 평화증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김교각 스님 지장보살金印' 공개

唐 숙종이 하사… 금과 옥으로 조성(4.5kg)
스님 얼굴조각·머리에 뿔… 史料 모습과 닮아


◇당나라 숙종 황제가 하사한 김지장 스님 금인.

신라 왕자 김교각(金喬覺, 696~794) 스님이 생전에 중국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았음을 입증하는 '금인'(金印)이 최초로 국내에 공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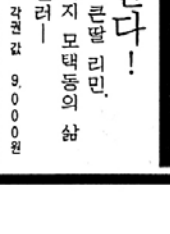
김교각 스님의 형상을 본뜬 이 금인은 당나라 황제 숙종(肅宗)이 757년(지덕 2년) 스님의 법력을 존중해 하사한 것. 월간 〈선(禪) 문화〉 최석환 사장은 금인을 보관중인 중국 안휘성(安徽省) 무호(蕪湖)시를 방문, 시 당국자의 입회 아래 무호시정부의 1급 유물인 금인을 확인, 사진과 관련기사를 6월 11일 발간된 〈선 문화〉 6월호에 실었다.

〈선 문화〉에 따르면 당 숙종이 하사한 금인은 가로, 세로 각 12㎝ 정방형으로 무게는 7근반(4.5kg)에 달하며 금과 옥으로 조성됐다. 금인의 등쪽에는 사자를 에워싼 구룡(九龍)이 조각돼 있으며 바닥 등에는 '지장이성금인'(地藏利成金印)이라는 여섯자가 전서로 새겨져 있다.

특히 금인의 받침부에는 '당 지덕 2년'이라고 새겨져 있어 금인의 하사 시점이 김교각 스님의 생전(입적 37년 전)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 스님의 얼굴이 조각된 금인의 머리부위에 뿔이 솟아 있어 중국 사료가 전하는 스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당시 인물인 비관경(費冠卿)은 〈구화산 창건 화성사기(化城寺記)〉에 '머리에 뼈가 불룩 솟아났다'고 스님을 묘사하고 있다.

해외 불서



• 당신을 놀라게 하는 곳들-힘들 때 두려움 없애기: 〈The Places That Scare You-Guide to Fearlessness in Difficult Times〉는 미국의 여성 수행자인 페마 쵸드론(Pema Chodron)이,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비심과 깨어있는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 비밀을 일러준다. 그녀의 저서 〈When Things Fall Apart〉의 후속편으로 나온 이 책은 가장 고통스런 경험 가운데, 오히려 정신적인 각성의 씨앗이 들어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 그녀는 불안, 불확실성, 두려움을 제거하고 우리의 근원적인 선량함을 일깨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러하다. △친절함, 자비심, 즐거움, 평정심을 기를 것 △나와 타인의 실수와 결함을 받아들일 것 △고통스런 삶을 이끄는 자아의 전략들을 순간순간 관찰할 것 △자비관(慈悲觀)을 행할 것 △영적 스승과 교류할 것 등이다. 美, Shambhala Publication 출판.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7. '6·25' 4일째 큰스님 네분

6·25발발 53주년을 맞이한다. 참혹한 동족상잔과 국토의 분단이라는 그 처참하고 무모한 비극성으로해서 영원히 아물지 않을 한국근대사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6·25. 그때 우리의 큰스님들은 그 기나긴 비극과 고통의 나날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여기에 한 스님이 기록한 6·25 발발 최초 4일째 되는 날, 지금의 강남 봉은사에서 이동광, 근래의 선지식이였던 이춘성, 수덕사의 조실이셨던 최혜암, 양산 천성산 내원사를 중건하신 이수옥 비구니 스님 등 4명의 스님이 겪은 이야기가 있다.

동광스님은 51세되는 1950년 음력 5월5일(단오일)에 경기도 가평군 상면 청우산 청우사의 불사 초청을 받아 갔다가 5월 11일 자신이 머물고 있던 파주군 아동포교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청평에서 6·25발발 소식을 듣는다. 즉 청평에 당도하니 "어제 새벽(6·25, 음력 5월10일)에 이북 괴뢰군이 가평읍에서 5리되는 곳까지 월남해 들어와서 작전중이다"라는 것이다. 동광스님은 서울방면으로 향하는 피난민들

북한군 총구 앞에서도
의연히 염불·장좌불와

의 인산인해를 따라서 트럭을 얻어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근근히 서울 안국동 선학원까지 올 수 있었다.

6월 27일 들려오는 총소리에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선학원의 스님들이 새벽에 비로소 선학원 문밖에 나가서 알아보니 북한군들이 벌써 시내 각처에 들어와서 요소마다 점령하고 있고 인심은 극도로 흉악해졌다.

6월 28일 동광스님은 이춘성스님과 함께 선학원을 떠나 광주군 봉은사 견성암(지금의 강남 봉은사, 당시 견성암은 비구니 선방)으로 건너가서 최혜암스님과 이수옥 비구니 스님등과 만나서 합류하여 피난한다. 당시 봉은사는 북한군이 점령한 강북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스님들의 제1집결지였던 것이다.

6월 29일(음력5월 15일) 저녁예불을 하고나자 총소리는 더욱 다급하고 가깝게 들리기 시작했다. 위기를 느낀 동광스님은 대중스님들에게 "자, 일이 이같이 다급해졌으니 별도리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이나 지극히 부릅시다"라고 권했다. 동광스님은 〈한글 관음경 영험록(1968)〉과 자신의 체험을 정리한 〈동광영험록〉이라는 문건이 있을 정도이다.

혜암, 춘성 동광 세 스님이 객실로 돌아가서 관세음보살만을 일심으로 속으로 부르고 누워있는데 동광스님의 뇌리에 비몽사몽간에 누가 "춘성스님이 좌선하고 있는 방으로 가거라"라는 말이 들렸다. 동광스님은 "왜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뒷방으로 가라는가?"라고 의문이 일어났지만 곧 "앞방과 뒷방 사이에 큰 기둥이 서 있으니 그것이 의지가 될 것이니 곧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곧 옮겼다.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방안에 있던 스님들은 춘성스님에게 "스님도 어서 엎드리시오"하고 권해도 스님은 장좌불와(長坐不臥)하는 모양인지 그대로 앉아 계셨다. 바로 방 앞에서 "따닥따닥"하는 총소리가 총소리가 크게 두번 나자 귀먹은 혜암스님이 놀라면서 "이크"하면서 일어나시고 춘성스님도 "이크"하면서 옆으로 몸을 숙였다.

그때 비구스님들이 머물고 있는 옆방에서 한 비구니스님이 소리를 높여서 북한군을 향하여 말했다. "아무일 없이 수도만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총질을 합니까?" 북한군의 총부리 앞에서도 할 말을 하는 비구니스님의 용기있는 행동과 기백에 찬 말을 들은 춘성스님은 아예 방문을 열어두고 좌선을 하고 있다가 마루에 나가기에 동광스님와 혜암스님도 따라나가서 서서 있으니 북한군 지휘관은 스님들이 있던 방 열어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또 다시 물었다. "이 절에 국방군이 없는가?" "한사람도 없소"라고 스님들이 대답하자 지휘관은 쭐지어 있는 군인들을 향하여 "사격중지"하고 명령하여 멀리있는 군인들은 아직도 못듣고 여전히 사격하고 있으니 대장이 또 다시 말하되 "사격중지, 쌍녀러 자식들"하고 큰 소리를 지르니 그때서야 사격을 중지하고 "돌아, 앞으로 갔"하니 군인들이 떠나가 버렸다.

이 글을 마치며 나는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도 장좌불와를 하던 춘성스님과 그 살육의 와중에서도 총질을 하던 군인들에게 호통을 친 비구니스님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이들이 6·25발발 초기에 보여준 언행에는 수도자의 의연하고 굳건한 삶이 있다. 그리고 이분들은 모두 훗날 종단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

경학회 회주

종합 출판 범우사

책으로 선물합시다

서울·마포구 구수동 21-1, 전화 717-2121 www.bumwoosa.co.kr 국민·BC카드 도서구매 가능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21세기를!

국내외 문제작에 대한 초유의 거꾸로 책읽기 — 완전무삭제 수록!

오늘날 누가 얼굴을 똑바로 하고 자기 자신을 쾌락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 단어가 가진 가장 엄밀한 의미를 좇는, 쾌락주의자가 되고 싶다.



3년간의 침묵을 깨고 작가 장정일이 예리한 비평의 메스를 가한다!



장정일의 독서일기5

*신국판 | 320면 | 값 9,000원 ♣ 전국서점 판매중

* 한 권의 책으로 200여 권을 읽는다!

● '아웃사이더' 장정일이 지난 3년간 그가 읽은 책 중 200여권에 대한 단평을 담은 〈독서일기5〉를 들고 돌아왔다. 장씨는 말한다. "지금 작가가 된 뒤 행복을 느낀다면 〈독서일기〉를 낼 수 있어서다. 환갑 때까지 한 30권 낼 수 있었으면!" 하고. —조선일보(2002. 1. 21)

● 문단의 '앙팡 테리블'로 불리는 장정일씨가 3년여 만에 책을 내놓았다. 개별 책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과 분방한 사유는 다른 지면을 통해서는 익히 보지 못한 것이라 책창고같은 서점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기쁨을 작가와 공유할 수 있다. —동아일보(2002. 1. 21)

나의 아버지 모택동



중국 산시성 돌산의 동굴에서, 모택동과 허쯔전 사이에서 태어난 큰딸 리민. 20여 년 동안 마오 주석의 총애를 받으며 성장해 온 그녀가 아버지 모택동의 삶과 가족사를 감동적으로 묘사한 2001년 중국 최대의 베스트셀러!

*리민 지음 | 김승일·양순창 옮김 *신국판(상) 342면·(하) 354면·각권 값 9,000원

무소유 114만부 돌파!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 김수환 추기경

이번 '무소유' 35쇄 판매금 전액(30,000,000원)을 범우출판장학금에 출연(出捐)합니다!

(범우 출판장학금은 전국의 출판학관련 전공자들에게 11년째 지급되고 있으며, 2002년 현재 3억 4천만원 중 1억 천60만원이 기 지급되었습니다.)



무소유

법정 지음

*4×6변형판 | 양장본 | 값 6,000원

무소유는 공동 소유의 다른 이름이다. 나눔과 섬김의 바탕은 무소유에 있다. '나무 한 그루 베어내어 아깝지 않은 책'으로 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들겠다. - 윤구병, 변산공동체 대표

칠보공덕이 못미치는 지혜, 법정 스님의 명언을 빌어 설파되는 무소유 지혜!
- 도올 김용옥

주머니 속에 친구를!

범우문고

각권 2,800원

제21회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하는 등 수백만 독자여러분의 사랑을 독차지해 온 범우문고가 표지 장정과 편집을 새롭게 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독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범우문고'가 될 것입니다.

005 오, 고독이여 니체/최혁순
013 무진기행 김승옥 지음
015 고독한 당신을 위하여 루이제 린저/곽복록
027 노자도덕경 노자/청명국
035 로렌스의 성과 사랑 D.H. 로렌스/이성호
047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김진욱
053 박재삼 시집 박재삼 지음
060 별·마지막 수업 알퐁스 도데/정봉구
080 문주반생기 임주동 지음
101 인간만사 새옹지마 리영희 지음
105 찰스 램 수필선 찰스 램/양병석
106 구도자 고은 지음
116 복덕방 이태준 지음
117 실천론·모순론(외) 모택동/김승일
139 푸슈킨 산문 소설집 A. 푸슈킨/김영국
143 에머슨 수상록 에머슨/윤삼하
160 동물농장 G. 오웰/김희진
161 신록 예찬 이양하 지음
167 귀여운 여인(외) A. 체호프/박형규
168 아리스토파네스 희곡선 아리스토파네스/최 현
169 세네카 희곡선 세네카/최 현
170 테렌티우스 희곡선 테렌티우스/최 현
171 외투·코 고골리/김영국
172 카르멘 메리메/김진욱
173 방법서설 데카르트/김진욱





독일 함부르크에서 서울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는 지도상 직선거리 2만Km, 5만 리의 먼 길을 자전거 하나로 달려왔다.
384일이 걸렸다.
작년 부처님 오신 날에 함부르크를 떠나 올 부처님 오신 날에 서울의 남대문에서 고단한 여정을 마감 지었다.
그리고 남해의 산사에 묻혀 지난 1년을 정돈하여 차곡차곡 마음속에 갈무리 했다.
행창 스님.
함부르크대학 인도학 티베트학연구소 연구원인 스님이 자전거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일까?
"2001년 5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이다.
독일 함부르크는 청명한 날씨.
1년간의 자전거 대륙횡단. 눈썹하나 조차도 무겁게 느껴지는 자전거로의 여정이지만,
출가자로서 단하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사' 한 벌을 챙겼다.
떠날 때 언제나 뒷정리를 말끔히 하여야함은 다시 돌아올 기약을 않겠다는 출가수행자의 의지이자 마음자세이다.
'가사' 한 벌이면 저 세상길을 떠날 충분한 준비인 것을."


◇세월을 초월해 그 자리를 지키는 길이 있는 한 여행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사진은 키르기스탄의 천산산맥에서 비단길로 이어지는 길.



◇행창스님의 여행경로. 함부르크→부다페스트→이스탄불→바쿠→사마르칸트→우루무치→서안→천진→서울

1년여동안 여행할 각오
알미늄제 산악용자전거에
가사·부품·카메라등 준비

지난해 초파일 함부르크 출발
자전거 핸들을 죽비로 삼아
현장·혜초의 '구도의 길' 달려

영하 30도 추위에 죽을 고비도
지난 5월19일 부처님 오신날
384일만에 조용히 서울에

행창스님의 자전거 여행기전문은
buddhanews.com에 있습니다.

행창 스님

"어여쁜 달마 찾아" 화두 자전거타고 5만리 정진

행창스님은 가사 한 벌을 자전거에 실으며 향후 1년간의 여행에 대한 각오를 했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 상황마저도 고스란히 받아들이겠다는 비장함으로.

알미늄제 산악용 자전거 한 대에 부품과 수리용 장비,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비상약품, 캠핑도구, 취사용구 등을 싣고 출발한 스님의 유라시아 대륙 자전거 횡단의 화두는 '어여쁜 달마를 찾아서'.

자전거 핸들을 죽비삼아 삼장법사 현장과 혜초 스님의 옛 구도 길을 달려오면서 행창스님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사람뿐인가.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웅장한 산맥들과 드넓은 평야, 강과 호수 그리고 죽음의 공포까지도 무시로 만나는 여행의 동반자였다. 이스탄불을 지나면서 9.11테러 사건을 접했을 때는 자칫 여행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었지만 아프간 지역은 계획에 없었기에 그대로 전진해 나갔다.

스님은 이번 여행에서 죽음의 고비를 두 번 넘겼다. 불가리아의 해안 산악지역을 달리다가 기어가 고장 나면서 뒷바퀴 살 9개가 부러져 아찔한 순간을 넘겨야 했다. 자전거와 뒤엉켜 몇 바퀴를 뒹굴고 간신히 몸을 추스렸는데 다치지는 않았다. 부처님 가피였을 것이다. 준비해 간 바큐 살을 끼워 넣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 자전거 여행자는 스스로 자전거 수리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다.

또 한 번의 고비는 해발 3천 미터 키르기스탄 산맥에서의 추위였다. 15일간을 영하 30도 안팎의 추위와 싸워야 했던 것. 한 마디로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함 뿐인 15일간의 사투를 마쳤을 때 스님은 "다시는 자전거 여행을 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는…"이라 외쳤다.

그러나 그런 다짐은 선방의 좌복이 아닌 자전거 안장을 택한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푸념에 불과했다. 죽을 고비야 수시로 닥쳐오는 여행자의 일상이지만 온사스님의 열반 비보를 들어야 했을 때는 수미산 같은 슬픔으로 베달을 밟아야 했다.

384일의 일정 가운데서 100여일은 야영을 했지만 지나 온 길을 기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도시 지역에 닿으면 원고와 사진을 정리해 붓다뉴스(buddhanews.com)를 향해 송고해야 했던 것이다. 스님이 보낸 원고들은 월 2회 업데이트 되며 붓다뉴스의 인기 연재로 자리잡아 왔다.

카스피해를 건너기 위해 배를 탔고 카자흐스탄에서 중국 우루무치로 들어가는 비개방지역에서도 버스를 타야 했다. 북한을 경유할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못해 천진에서 인천행 페리호를 탈 수 밖에 없었다. 이들 지역 외에는 모든 길을 자전거로 달렸다. 그렇게 두 바퀴를 굴려 서울의 남대문에 닿은 날은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 붓다뉴스팀의 조촐한 이벤트 제안도 사양한 채 조용히 고국에 돌아 온 행창스님은 "여행은 끝났지만 아직 길은 남아 있다"는 한 마디로 1년간의 구도 여행을 마무리 지었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apa.com

행창스님이 만난 달마들

행창스님의 자전거 여행 화두는 '어여쁜 달마를 찾아서'였다. 어여쁜 달마는 다름 아닌 사람.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가 반갑고 따뜻한 달마였다.

장정의 초반, 함께 자전거를 달리며 출정식 이벤트를 열어준 함부르크의 유학생들과 베를린에서 만난 닉 교수(브레멘 예술대학 멀티디자인 강의)의 따사로운 격려, 한국인 배낭여행자만을 재워 주는 프라하 파벨 아저씨의 넉넉한 인심은 여행 내내 큰 힘이 되었다. 비엔나에서 만난 금파화백은 미술이라는 장르를 통해 스님의 눈을 열어 주었고 부다페스트에서 만난 이광희씨(리스트 음악원서 10년째 지휘공부 중)는 귀를 열어주며 곤곤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만난 조선족 도(都)아저씨와 서울정 식당의 한국인 부부 역시 동족애와 사람의 냄새를 실컷 느끼게 해준 '보살'들이었다.

中央亞 거주 동포들 삶에서 뭉클한 감명
민박집 배낭여행자들 모두 따뜻한 친구

무엇보다 이번 여정에서 행창스님은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꿋꿋하게 살고있는 조선족들의 삶에서 감동 받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김치를 만들어 팔면 고려인 아줌마와 키르기스탄에서 만난 많은 카레스키(고려인)들이 엮어 내는 가슴 뭉클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참 맛을 느낄 수 있었다. 키르기스탄의 국경에서는 뜻밖의 이국인 처녀가 비자문제를 해결해 주어 입국을 허락받기도 했고 수도 비쉬켁에서는 최행장(D은행 지점장)의 도움으로 까다로운 중국 비자를 쉽게 받을 수도 있었다. 민박집에서 만나는 배낭여행자들은 언제나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친구였고 일정이 맞으면 함께 유적지들을 탐방하는 동료가 되기에 주저함이 없었다.

행창 스님은

행창스님은 범어사에서 벽파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일본 동양대학 인도철학과와 동경대학 대학원, 인도 마이솔 대학 대학원을 거쳐 델리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영국과 프랑스 유학을 거쳐 델리대학 연구원으로 활동 했으며 현재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인도학 티베트학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다. 1989년 인도와 네팔지역의 배낭여행을 시작으로 90년에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91년 유럽일주 배낭여행을 했으며 92년에 일본 열도를 자전거로 여행했다.

일·印·영·불 유학마치고
함브르크大 객원연구원

네팔·유럽·아시아 배낭여행

94년부터 2년간은 아시아 대륙과 중국 티베트 지역을 배낭여행 했다. 87년에는 인도대륙을 오토바이로 왕복 횡단했으며 2000년에는 동유럽의 배낭여행을 마치고 중동지역을 자전거로 여행했다. 이 자전거 여행의 기록은 작년 〈자전거에 사막을 싣고〉라는 책으로 펴냈다. 올 9월부터는 중국 서안의 교통대학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일본불교학과 문학을 가르칠 계획이다.



◇행창스님의 자전거여행 출정식에 동참한 독일 유학생들.


◇5만리를 달려 부처님오신날 서울 남대문에 도착한 행창스님.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의 시장에서 만난 고려인여성들.

육임래정비법
六 壬 來 情 秘 法
좌정용 1,300,000원 시간으로 판단하는 역술인 필수 秘奇書! 휴대용 1,500,000원
- 바인더 차트식으로 되어 있어 해루처백 계내 보게 됩니다 -
음양오행을 몰라도, 역술공부가 부족해도, 이 「육임래정비법 혁신판」만 있으면 그 고민은 이제부터 해결 됩니다.

■육임은 시간으로 보는 고등역술로서,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사람의 비밀한 속사정을 먼저 말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는 비서(秘書)입니다.

■출생 년월일시를 몰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찾아 온 그 날 그 시간, 전화 온 그 날 그 시간, 가서 만난 그 날 그 시간만 보면 이미 그 해당 시간 칸칸 마다에 상대방의 비밀한 속사정들이 다 적혀 있는 기서(奇書)인 것입니다. 먼저 할말은 앞면에, 묻는 대답은 뒷면에 적혀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명이 오거나 전화하거나 가서 만나더라도 각기 다르게 말해 줄 수 있게끔 쓰여 있어서 편리하고 신통합니다.

■이처럼 핵심사항들에 대해 들어서자 마자, 전화 받자 마자, 가서 만나자 마자 즉시 말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당장 기선이 제압당하게 되고 맙니다.

■이 외에도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 승진, 구직, 시험, 혼사, 임신, 가정, 이사, 소송, 질병, 매매, 도난, 가출, 대인, 방문, 채용, 투자, 승부, 가격, 점포, 묘지, 기후 사항 등을 밝혀 놓았습니다.

■육임은 참으로 신통해여 역술인이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워낙 난해하여 포기하고 마는데, 이처럼 쉽게 차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년여에 걸쳐 그 정확성이 검증 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활인전문 천역자 분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전화 : 02-993-8680, 02-996-3335
부산지사 : 051-851-2349 (당일배달 : 정현철)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북문
제 2차 육임강의 접수 중
매월 3개월 완성 1,500,000원(효사육임강의록교재포함)
육임비디오 강의 접수 중
총 28개 1,200,000만원(효사육임강의록 포함)
「효사육임강의록」 300,000만원 출시!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⑨ 권지품 제13

여인에게 수기

본장(本章)에서는 석존에게 가장 가까운 두 사람에게 수기를 주고 있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리푸트라(舍利弗) 존자(尊者)를 비롯하여 성문(聲聞)으로 불리는 많은 직제자(直弟者)들에게 차례 차례로 미래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완성하고 부처가 될 것을 보증해 왔다. 그 가운데는 석존이 태자로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태어난 라훌라의 밀행(密行)에 대해 도칠보화여래(蹈七寶華如來)의 수기를 준 것도 포함돼 있다. 라훌라는 석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조차 없는 노력을 한 것을 '밀행'이라는 말이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튼 이렇게 차례 차례로 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緣)이 깊은 석존의 양모(養母)와 지난날의 아내에 대해서는 아직 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은 이러한 근친자(近親者)들도 석존의 뒤를 좇아 출가하여 오랫동안 수행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석존은 이러한 근친자의 생각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우선 젊어서

그때 라훌라의 어머니 야쇼다라가 "석존께서는 미래 성불을 보증하는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나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는구나" 생각하자, 이를 아신 석존께서는 "그대는 장래에 백 천 만 억의 여러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보살행을 닦아 대법사가 되어 점차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완성해 축복받은 땅인 선국(善國)에서 마침내 성불할 것이니, 이름은 수많은 반짝이는 깃발을 가진 사람이라는 구족천만광상여래(具足千萬光相如來)라 할 것이다"는 수기를 내리신다.

이와 같이 '권지품'은 '제바달다품 제12'에서 설한 여인성불(女人成佛)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석존의 출가 이전의 양모와 부인에 대한 기별 즉 미래 성불의 보증이 밝혀져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마하프라자파티는 석존의 이모로서 탄생이래 계속 석존을 양육한 분이며 또한 라훌라의 어머니 야쇼다라 비구니는 지난날 석존이 태자로서 카필라바스투에 있었을 때의 아내였다.

지금까지 석존은 이러한 가장 가까운 근친자

직제자→악인→여인→근친에 수기
"누구나 成佛"…皆成·일승사상 기조

부터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구해 온 직제자들에게 수기를 주고, 그런 다음 비로소 근친자에게 수기를 줄 기회가 왔으리라고 본다.

즉 보살들이 미래의 악세(惡世)에서 나름대로 '인내(忍耐)'를 가지고 〈법화경〉 전할 것을 맹세한 정경(情景) 뒤에, 석존의 양모(생모의 동생)인 마하프라자파티가 근심 어린 얼굴로 석존을 우러러보는 것이다.

그러자 석존은 "아직 저희들에게는 장래에 성불을 이룰 것이 보증되지 않는다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나는 모든 성문들에게 장차 성불함을 보증한다고 밝히고 있지 않는가" 하고 말씀하신 후, 다시 구체적으로 "미래의 세상에서 6만 8천 억의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대법사(大法師)가 된다"고 밝히고, 또 함께 있는 6천인의 비구니에게도 동시에 '법사(法師)'가 됨을 보증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점점 보살의 수행을 쌓아가서 이를 완성하여 부처님이 될 것이니 그 이름은 일체 중생의 눈에 기쁨을 준다는 일체중생희견여래(一切衆生喜見如來)가 될 것이며, 이 일체중생희견여래와 6천의 보살들은 서로 차례차례 이어가며 수기하고 각기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신다.

에 대해 구체적인 미래 성불의 보증을 주지는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섯 사람의 직제자의 대표를 최초로 하여 차례차례 기별을 주어온 석존은 최대의 악인인 제바달다에게 기별을 주는 것에 의해 어떠한 악인에게도 성불이 허락됨을 설하고, 이어서 여덟 살된 용녀의 성불에 의해 여인성불을 밝힌 연후에 비로소 근친자 중의 근친자인 길러주신 어머니와 지난날의 부인에게 수기를 설한 것이다.

여기에 석존의 위대한 교화방식이 있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기별은 최초에 널리 주어지고 있지만,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들어서 수기를 밝혀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석존은 빼어난 직제자들, 오랫동안 석존을 따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수기하고, 다시 악인·여인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에의 지침을 우선하고 최후에 근친자에의 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법화경〉은 평등대혜(平等大慧)라는 반야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누구나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개성사상(皆成思想)을 비롯한 일승사상(一乘思想)이 기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설정사 조실



◇탐욕에 휘둘리는 생활을 하지말고 마음다스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무구스님.

가까이서 뵌

무구스님 (과천

과천 경마공원 인근에 있는 유덕사는 에 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울창한 있다. 무구(无求)스님이 지난 69년 지어 고 있는 유덕사는 5평 남짓한 법당과 조름하기 그지 없었다.

11일 유덕사로 무구스님을 뵈러 갔을 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매일 네 번 기다. 새벽예불후, 아침공양후, 점심 먹고 스님께 삼배를 드리려는데 1배만 하라로 답례를 하셨다.

"내가 부처"…염불삼매

물질에 치우친 삶 수행에 장애
우리마음 정화되면 우주가 청정

불교계 최대 명절인 지난 부처님오신날, 유덕사에서는 여느 초파일 때처럼 등값을 받지 않았다. 작은 절이지만 초파일때는 등을 달려는 신도들이 꽤 온다. 스님은 미리 등을 600개 정도 만들어 놓는다고 하신다. 그리고는 마음대로 등을 달게 한다. 정 그냥 가기 미안해 하는 신도들은 형편대로 등값을 법당 탁자위에 올려놓기도 한다.

"스님, 절에서는 초파일 등값으로 1년을 산다는데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사람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하지만 스님의 대답은 간단하다.

"부처님 생신날 불제자로서 경축하면 됐지, 등 팔아 돈벌이 하는 날인가요? 부처님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등을 밝히면 되는 거고." 그래서 유덕사의 등은 모두 똑같은 크기다. 불자들이 부처님 생신날을 축하하고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새롭게 발심하며 등을 밝히면 그것으로 됐다는 것이다.

스님은 49재가 들어와도 얼마 내라고 지정해 주지 않는다. 자기 집의 재정상태를 자기가 아는 만큼 성의껏 내면 된다. 절에서는 천도만 정성껏 해 주면 그뿐이라는 것이다.

"수행자는 부처님 모시고 수행만 잘 하면 되지 돈 관리 같은데 마음 쓰면 수행에는 멀어지는 법"이라는 방침따라 유덕사에는 불전함도 없다.

그런데 허름한 집에서 30여년을 사셨는데 중창할 생각은 안 하셨을까.

"이곳에 들어온 후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그런 생각을 안해 보았지만 나는 외양 잘 꾸미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크고 화려한 절에서 도리어 그 운영 때문에 소임자들이 쩔쩔매는 것도 많이 봤고… 사실 개울가에 앉아 있으면 어떻고, 절벽끝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수행을 하려는 마음만 굳으면 장소의 좋고 나쁨은 문제가 안돼요. 요즘 한국 승가는 물질적으로 너무 풍족한데 그것이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살아야 수행이 됩니다."

스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다. 집을 늘여서 보다 큰 집,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꿈이지만, 막상 큰 집에서 살면 그 집을 유지하거나 채우기 위해 급급해 하고 신경 쓸 일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늘 부족함과 불만을 갖고 있지만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손을 움켜쥐고만 있어 더 어려운 곳에 손을 뻗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가진것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이 더 허전한 것도 물질위주의 그릇된 가치관과 소비 위주의 잘못된 대중문화의 세뇌를 받아 자꾸 밖으로만 찾고, 많이 소유하려는 집착에 사로잡혀서가 아닐까.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무구스님의 말씀에 귀기울여 보자.

"사람들은 보통 '이것만 되면 난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저것만 성취하면 행복해 질텐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예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도 또 불만이 생기고 욕심이 생깁니다. 탐욕이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 조사들이 다른 곳에서 찾지말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 한 겁니다."

스님은 또 덧붙인다. "큰 스님들이 발이 닳도록 다녀 시주를 모아 절을 잘 지어놓거나 중창해 놓았지요. 스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 절에 사는 사람들이 수행을 잘 하면 훌륭한 수행처지만, 수행을 제대로 못하거나 도리어 부처님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거리낌없이 한다면 그곳은 마구니소굴밖에 안되는 거예요."

올해 세수로 일흔 넷이지만 나이가 드니 젊을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을 하는 후회가 있다고 하신다. 해방무렵 문경 김용사에서 열일곱의 나이로 출가한 무구스님은 김용사 강사인 은사 화산 스님에게 경전도 배우고 선방에서 안거도 여러 차례 났다.

"예전에 내가 선방 다닐 때 선방에서 조실스님이 결제법문과 해제법문은 하셔도 참선할 때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자상히 일러주지 안 했어요. 그래서 (참선수행이) 어렵습니다. 업이 두터우면 아무리 참선 하려고 가부좌 틀고 앉았어도 망상만 떠올라요.

또 해제하고 다른 절에 갈 경우가 있



◇유덕사의 반찬을 책임

어요. 그곳의 큰 스님이 잘 살펴서 근기에 맞는 화두를 주어야 하는데 그 스님이 꿰뚫지 못하고, 너 무슨 화두를 가졌느냐 물어보거든. '무' 자 화두니다 하면 이놈아 그 화두 갖고 안된다 하시며 다른 화두를 줍니다. 발아드는 사람은 큰 스님의 지시니 (그 화두로 금방 성불할 줄 알거든. 그래서 마삼근 화두를 붙잡고 한철 나게 되지요. '마삼근…' 하지만, '무' 자 화두가 저절로 들려, 마삼근으로 돌리는데만 한 철이 가요. 한철 그냥 좇아다니는 거야. 자기 머리에 착 잡히는 것이 화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신간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그릇된 마음을
항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공부를 잘 성취하고자 하십니까?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 큰스님께서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마음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시어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욕과 무소유의 가르침을 오롯이 담아낸 핵심 경전 금강경!

〈이 책의 특징〉
· 한글 번역의 문체가 아름답습니다.
· 심오한 금강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 일상생활과 접목시켜 강설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능히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감동을 주는 일화들을 많이 삽입하여 재미를 더했습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는가?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우룡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염불·간경·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 속에서 혼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 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천수경 천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에 대한 강설집. 경에 숨겨져 있는 참뜻, '천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준제진언, 여래 십대발원문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어, 불자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혜국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 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7,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자경문(自警文)〉은 야운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가는 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발현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따끔한 말씀으로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비춰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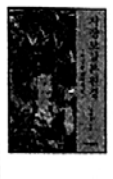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제 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오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事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육바라밀 수행법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성불을 보장하는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해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서술하였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책.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과 지장염불을 할 때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방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업장소멸 소원성취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무구스님은, 자나깨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수행을 지성으로 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무구스님은?

무구 스님은 1929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다. 귀한 손자가 태어나자 조부는 사주를 세 번이나 보게 했는데 나중에 '중 될 팔자'라는 사주가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스님이 되고 싶어 열일곱에 김용사로 갔다. 처음엔 받아주지 않아 부목방에서 잠자면서 걸레로 마루도 닦고 마당도 쓸고 하니까 당시 강사였던 화산스님이 지켜보다 초발심자경문 암기를 시키는 등 자질을 보고 출가시켰다. 예불 불공 시식 등 불교의식 공부를 마치자 화산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을 수 있었다.

강원에 들어간 스님은 이미 진척돼 있는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 밤이면 큰 화로에 재를 담아 강당 지대방에 가져다 놓고 몰래 공부하곤해 나중엔 월반까지 했다고 한다.

"부젓가락으로 재를 들쑤셔 훅 불면 재가 벌개지니까 그 빛으로 책을 읽곤 했는데 그때는 젊어 눈이 좋아 그런지 책글씨가 다 보여. 그렇게 밤새 공부하고 아침 기침종 치면 나가곤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강원을 졸업하고 선방을 10년정도 다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청담스님의 추천으로 설악산 신흥사 주지를 하기도 했다. 당시 모 스님에 의해 신흥사 소유 10만평 땅이 팔린 것을 알게된 스님은 재판을 해 신흥사에 되찾아 주기도 했다.

스님은 태허 스님(현 본원종 종정) 등과 89년 본원종을 창종하고 현재 중앙원로의장으로 있다.

17세때 김용사로 출가…본원종 원로의장

요즘 유덕사에는 '절대 사수, 유덕사는 영원하리라' '과천사암연합회는 끝까지 유덕사를 지키겠다'는 말이 쓰여진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이 근처로 기무사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절이 폐쇄될 위기에 놓이자 신도들과 과천사암련이 유덕사를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나서고 있는 것. 무구스님의 소원은 한가지다. "그냥 여기서 목탁 치며 기도하다 죽었으면 하는데…"

들면 업장소멸



발을 가꾸는 무구스님.

결국 마음이 바로 잡혀야 되지 른 도리가 없어요. 참선수행자 에는 자상하게 일러 주고 점검 주는 선지식이 옆에 있어야 는데 그게 어려운 일 같아요"

위전 일을 잠시 회상한 스님은 그냥 으로만 하는 염불은 백날 외워도 헛 이라고 강조하신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다면 부처님 명호는 본래 자기 참이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불을 하면 저절로 마음이 정화 고 우리 마음이 정화되면 그만 세상이 청정해지고 우주가 정 된다고 믿으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르려면 부처님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염불도 그냥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일념으로 믿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로지 염불 삼매에 빠져야 업장이 녹아집니다."

염불삼매에 들려면 취미삼아 하는 것처럼 하다 말다 하지말고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그래야 망상이 생기지 않고 저절로 입에서 염불이 나온다. 일하면서도 휴식시간에도 자기전에도 늘 부처님을 생각하며 염불을 해야 한다.

시냇물에 떠내려가는 배춧잎 하나를 줍기 위해 10리를 따라 내려왔다는 옛날 큰 스님 이야기가 전할 만큼 절에서는 고춧가루 한 톨, 종이 한 장 함부로 낭비하는 일이 없다. 원로 스님들일수록 절약에 철저하다. 옛날 절살림이 몹시 어려웠으므로 철저하게 검약하며 사는 법을 몸에 익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재인 시줏물을 함부로 축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사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구스님도 철저하다. 자가용이 없는 스님은 혹 외출을 할 때도 큰 길까지 나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큰 길까지 가려면 십리도 넘는 먼 거리지만 스님은 혹 누가 중간에서 차를 태워준다고 해도 거절하신다. "다리 멀쩡한데 걷는게 좋다"는 것이다.

멀리 출타를 하더라도 신도집 신세를 가능한 지지 않으려고 한다. 부득이 신도들 집에 들릴 일이 있을 때 신도들이 거마비라며 드리는 경우가 있다. 스님은 거의 받지 않지만 부득이 받을 경우 그 돈으로 꼭 향, 초를 사서 불전에 공양 올린다.

"정재를 소중히 써야 합니다. 내가 출가할 당시는 물자가 귀한 때니까 은사스님께서 당신이 입던 장삼을 줄여 출가 기념으로 주셨지요. 그래서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입었습니다. 요즘엔 뭐든지 흔해서 절집에서조차 절약정신이 희미해 졌어요. 요즘 같은 물질위주 세태일수록 정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불자들부터 물질적인 행복추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물질적 쾌락만을 좇다보면 정신은 황폐해지고 허전해 지기 마련이기에 이것처럼 경계해야 할 일도 없다는 말씀이다.

스님은 재가불자들이 수계할 때 받은 오계만이라도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하신다. 또 가능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다. 고기라는 것이 동물들이 강제로 죽임을 당하면서 분노에 찬 독을 내뿜어 몸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원래 채식동물인 인간은 대장이 긴데 고기 먹으면 그 대장에서 소화되어 나가는 기간이 길고 따라서 고기를 소화시키면서 내뿜는 독소가 간장에 침입한다는 것이다. 요즘 간암, 간경화 등 간장병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우리 사회에 만연된 육식문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육식을 안 하면 불살생계를 지켜서 좋고 건강에도 좋으며 채식을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 진다.

염불이든 참선이든
일념으로 하세요

불법 따르려면
부처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받아들여야

스님은 요즘 불자들이 수행에 관심을 보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며 참선이든 염불이든 일념으로 하기를 강조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신묘한 진언이지만 수천번을 외워도 마음이 다른데 가 있으면 아무 영험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창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불법을 만났으니 그냥 저냥 안개와도 같은 허욕에 휩싸여 목적없는 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불제자다운 참다운 서원을 세우고 인과법을 믿으며 수행을 게을리 말기 바랍니다."

글=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명성스님

내가 살아 있는 동안 / 다 미칠 수 있는 일이란 / 이 세상에 없다.

진정코 이 세상이란 / 몇 천년이나 걸려야 / 집 한채 지을 수 있음이여

이 시는 고은선생의 '눈물을 위하여'이다. 한국이나 중국의 선사상이 한 생에 몰록 깨달을 수 있다는 돈오(頓悟)사상이라면 인도의 선사상은 자타카이야기를 비롯해 소승사과(小乘四果)의 수도론에서 윤회를 하는 삼계(三界)가 설정되어 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인도선사상은 한 생이 아니라 몇 생을 거듭난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점수(漸修)사상이다.

이처럼 전세(前世)에 닦은 수행의 결정체로 지혜와 복덕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 스님이 계시다. 불가에서 회자되는 말 중 '지혜가 아무리 수승해도 복덕이 없으면 대중(학인)이 모이지 않는 법'이라 했다. 그 어른은 청도 운문승가대학장 명성스님인데, 내가 중노릇하는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선지식이기도 하다. 10년을 훌쩍 넘기고 그리고 3년, 저 시간의 강을 넘어 이제자는 절집밥만 축내는 '밥충'으로 남아있건만, 스님께서는 30년 넘게 젊은 학인들을 보듬는 넉넉한 품의 호거산처럼 여여한 모습 그대로다.



만공스님으로부터 '본공(本空)'이라는 법호를 받은 비구니스님이 계셨다. 본공스님은 만공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을 만큼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고, 효봉 · 한암 등 선지식을 친견하며 평생을 제방에서 치열한 구법행각으로 일관한 수행자셨다. 1955년 본공스님께서 해인사 국일암에 머물던 시절, 손주상좌로 명성스님을 받아들였다. 이때 본공스님은 명성스님이 '훗날 대강백이 될 것'을 미리 관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나는 스님을 생각할 때마다 근엄하고 엄격한 스승의 모습은 떠오르지 않는다. 스님을 모시고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학자의 모습으로 보다 인간적인 체취가 물씬 풍기는 어른으로 여전히 내 가슴에 남아있음이다.

운문사 도량에 가 본 사람이라면 옛 절 다운 풍모는 느끼지 못할 것이다. 명성스님께서 도량 전체를 가꾸고 불사를 잘 하여서 운문사는 그 어느 곳보다도 질서정연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모습 뿐 아니라 운문사는 규칙이나 제도도 짜임새가 완벽하다. 나는 이러한 운문사의 풍모가 학장스님의 평소 수행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운문도량의 질서처럼 스님께서는 수행자의 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을 만큼 당신관리에 철저하고 한치 어긋남이 없는 엄격함으로 평생을 일관하셨다. 스님은 '미리미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한치 어긋남 없는 평소의 풍모에서 붙여진 별명이다.

보통 일반인들은 약수터나 수각에 바가지를 엎어둔다. 운문사 도량 수각에서는 바가지를 엎어두어서는 안 된다. 청소를 할 때도 의자 등을 책상 위에 엎어두거나 신발을 엎어두는 경우 스님께서 보시면 경책하신다. 스님께서는 "사람도 거꾸로 세워두면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모든 우주 질서는 가지런해야 하고 바르게서 있어야 한다. 상(上)을 향해 바르게 두는 것도 다 수행"이라고 하신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운문사에서 금강경을 공부할 때다. 스님께서 수업 전에 우연히 학인들 지대방에 들어오시게 되었다. 큰 방과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대방은 학인들이 몸이 불편할 때 쉬기도 하고 자유로이 대화를 나누는, 휴게실이나 다름없는 장소이다보니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있다. 어지러운 모습을 보신 스님께서는 "어찌 수행하는 학인들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못하느냐, 마음을 이렇게 놓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한치 어긋남없는 여법함으로 일관

"순간순간 자신의 발 밑 살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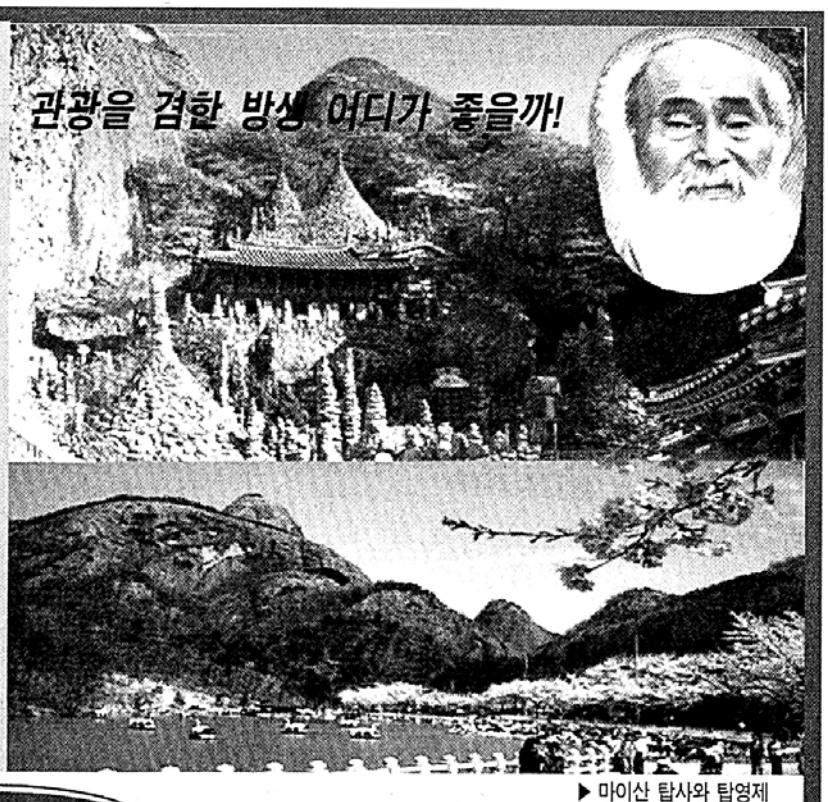
걱정하셨다.

운문사에서는 예불 후 큰 방으로 돌아갈 때도 줄을 맞추어야 하고 가사를 수할 때도 바르게 해야 한다. 흩어진 가사를 추스리고 줄을 맞춤으로써 "수행자는 수시로 자세를 바르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자신의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며 순간 순간 자신의 발밑을 살피라(照顧脚下)"는 스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살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지 않는가. 나무를 심듯 학인을 지도하는 스승다운 사상으로 제자들에게 평생을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일러주셔야 한다는 것이 당신의 지론이다. 최근 운문사를 졸업한 후배스님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스님께서는 운문사 불사를 할 때 학인들에게도 불사비를 내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학인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마는 천원이라도 불사비를 내어, 지혜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행자로서 보시를 행해 복덕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이번호부터 8회에 걸쳐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는 정운스님은 82년 명우스님을 은사로 성심사에서 출가했다. 스님은 89년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97년 동국대서 석사학위를 받고 2000년 동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 니련선하원 한주로 있으며 동국대 선학과에 출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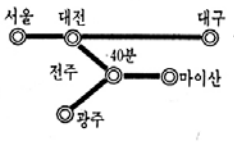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

선무도 화랑 수련회

신라 화랑정신의 고장인 경주 골굴사의 禪武道 大金剛門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2002년 7월 1일부터 2개월간(1주, 2주, 1개월)
▶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종 사회 단체 위탁 연수)
▶ 수련내용 : 참선, 선요가, 선무술, 전통문화 (무용, 다도)
▶ 동 참 금 : 학생(1일 – 2만원, 1개월 – 60만원) 일 반(1일 – 3만원, 1개월 – 65만원)
▶ 접수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 수 련 비 입금 계좌 : 농 협 721107-52-037300 예금주) 설 기 준
▶ 준 비 물 : 개인 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필기도구, 우산

1천 5백년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 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대 자연 속에서 불교와 선무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홀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일 과 표

4시	기상, 예불 (불참시에는 3천배 참회 및 전 대중이 1일 불식)	13시	독서와 사색
		14시	오후 수련 및 전통문화 강습(학생)
5시	좌 선	16시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6시	조깅, 등산	18시	저녁공양
7시	아침공양(발우공양)	19시	예불후 학생은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9시	오전수련		
11시	108배 참회기도(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 기림사, 감은사지, 문무대왕 수중릉(봉길해수욕장)성지순례

※ 입산 후 개인 외출, 이성교재, 술, 담배, 간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어길 경우, 3천배 참회 및 죽비나 회초리로 체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golgulsa.com 또는 sunmudo.com
※ 수련회 참가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스님, 사범등 지도진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 및 전공자), 다도강사 2명(부산여대 다도 대학원 졸업생)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 굴 사
세계 선무도 협회 大金剛門 선무도 대학

그림·조각으로 보는 '나'

문범강 교수 'BG MUN I LOVE YOU' 展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의식은 결코 둘이 아니다.
얼핏 선사의 법문처럼 들린다. 하지만 선사의 말이 아니다. 한 화가가 그림과 조각으로 '보여준(?)' 말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대 교수로 뉴욕과 워싱턴의 화단에서 인정받고 있는 화가 문범강 교수(47). 그는 자신의 그림들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난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서울 세종로 네거리 일민미술관(동아일보사 구 광화문사옥)에서 자신의 겉과 속을 때론 은유적으로 때론 직설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의식속에 들어있는 과거, 현재, 미래는 결국 한 선상에 있음을 나타낸 '셋은 결국 하나'.

이번 전시 'BG MUN-I LOVE YOU'에서는 회화 40점과 조각 작품 11점을 내놓았다. 특히 조각 작품은 문 교수의 변신을 보여준 증거물들이다.

1층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자화상'이다. 머리를 떼어내 두 손을 받쳐놓고 '몸'이 내려다 보고 있다.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시각적인 혼란과 섬뜩함마저 느껴지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면 이내 복잡했던 머릿속은 깨끗이 정리된다. 문 교수는 "이 작품은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집요하게 묻는 일종의 화두 참구 모습을 표현했다"며 "면벽 좌선한 상태에서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감싸고 있는 땅어리인 두뇌를 보며 의식의 실체에 대해 끊임없이 캐묻는 모습을 그렸다"는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인 조각 작품들도 문 교수 특유의 기발한 상상력과 재치있는 아이디어가 나타나 있어 다채롭고 재미있다. 재료도 철망, 헝겊, 한지, 흙 등 다양하다.

불자들이라면 당연히 고개를 갸우뚱거릴 작품도 있다. '부처와 그의 네 명의 아내'. 위쪽에는 면벽 좌선을 하는 부처님이 아래에는 네 명의 여자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부처님에게 웬 네명의 부인? 물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작품 역시 보이는 세계 너머의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 문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참자아를 찾기 위한 면벽 좌선을 통해 깨침을 얻으면 속세의 잣대로 보는 경계를 넘어 부인의 숫자는 하나든 열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거울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참나를 찾기 위한 과정을 표현한 '고요한 투명' 앞에서 작품설명을 하고 있는 문범강 교수.

"'나는 누구인가' 화두 참구 모습 표현"

회화 40점·조각 작품 등 11점 선보여

아이디어 기발, 재료도 철망·헝겊·흙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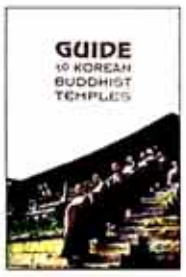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80년 미국 메릴랜드 대학원에서 뒤늦게 미술공부를 시작한 문 교수의 작품 곳곳에 이렇듯 불교 사상이 녹아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을 친견하면서부터다. 당시 한국에 있던 누나와 형 등의 권유로 85년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대행 스님 법회에 참석하고 난 뒤 문 교수의 마음속에는 무엇엔가 크게 얻어 맞은 듯한 큰 감동이 일었다. 그 뒤부터 대행 스님의 법문과 책들을 구입해 탐독하기 시작했다.

또 문 교수는 조지타운대내에 '명상클럽' 교실도 만들어 학기중에 미국 학생들에게 참선도 시키는 등 포교에도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다.

20~27일 오후 7시 일민미술관 강의실에서 '현대미술에 나타난 섹스와 죽음'을 주제로 강의를 마련한다. ☎2020-2055

문화 담당=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영문판 한국사찰 가이드북 발간



외국인 및 외국어 사찰안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영문 소책자 〈Guide to Korea Buddhist Temples〉가 나왔다.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백원기)와 포교원이 공동으로 만든 이 책에는 간략한 한국불교사와 사찰 기본예절, 전각의 구조와 의미, 고승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책 뒷부분에는 많이 쓰이는 불교 용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각 용어에 대한 간단한 해설도 붙였다. 또 템플스테이를 실시하는 사찰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담았다.

이 책의 영문 표기법은 정부의 로마자표기법이 아니라 충북대 국제경영학과 김복문 명예교수의 '국어의 영어식(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국제포교사회는 앞으로 삼보사찰 등을 소개하는 영문 소책자도 만들 예정이다. 값 7천원.



◇해인사 보경당에서 소리공양을 하고 있는 '살타첼로'.

풍경소리와 재즈가 만났다

獨 재즈그룹 해인사서 템플스테이 소리공양

민요·대중가요 연주… 잔잔한 감흥

10일 월드컵 한·미전이 열리던 날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는 이색적인 음악회가 있었다. 독일의 5인조 재즈그룹 '살타첼로(salta cello)'가 해인사 템플스테이 문화이벤트의 일환으로 보경당에서 작은 연주회인 소리공양을 한 것. 이번 이벤트는 축구공인 이들이 월드컵 축하공연을 위해 내한했지만 행소 한국의 산사에서 연주해 보고 싶다던 뜻을 전해들은 진명 스님(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페터(피아노)와 볼프강 신들러(첼로) 형제, 미니 슐츠(베이스), 헤르베르트 바흐테르(드럼), 페터 레헬(색소폰) 등으로 구성된 '살타첼로'는 92년 결성돼 99년 7월 이후 세 차례 내한 공연을 갖는 등 한국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져 왔다. 이날 공연에서는 '진도 아리랑'과 '밀양 아리랑', 민요 '옹헤야', 트로트 '나그네 설움' 등 한국의 전통 민요와 대중가요 등을 연주해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진명 스님은 "살타첼로는 이번 공연에 앞서 해인사에 하루 묵으며 템플 스테이에 참가했다"며 "한국의 자연과 음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 이번 소리공양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월드컵 한미전이 끝난 뒤, 길거리 응원전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광화문을 지나가게 되었다. 굵은 빗줄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도 흥분이 채 식지 않은 붉은 옷의 젊은이들이 여기저기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모두들 무언가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하고 난 뒤의, 여한이 없는 듯한 표정들이다. 외신들은, 한국인들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발전에 이어 이제는 성숙한 문화적 시민의식까지 표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했다. 한국인들이 공동운명체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세계에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순수하고 자발적인 길거리 응원이야말로 우리의 발목을 잡던 과거의 역사적 기억과 집단적 무명(無明)을 태우는 거대한 정화의식이며 축제였던 것이다.

그날 비를 맞으면서도 의연하게 쓰레기를 줍고 있는 청년들의 맑간 얼굴이 참 보기 좋았다. 그 얼굴은 나에게, 얼마 전에 보았던 교트 광릉사의 목조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떠올리게 했다. 일본의 국보 1호인 그 유명한 보살상의 재료는 경상도 지방에서만 나는 홍송(紅松)인 것으로 판명되어 신라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부처님과 용수보살의 전기를 쓴 독일의 실존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 미륵보살상을 친견하고 이렇게 썼다.

"나는 지금까지 철학자로서, 인간존재를 최고로 표현한 여러 예술품을 접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들의 조각이나 로마시대에 만들어진 훌륭한 작품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아직 완전히 초극되어지지 않은 지상의 인간적인 냄새가 남아있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을 표현한 로마 시대의 종교적인 조각상에도 정화된 인간 존재의 참다운 기쁨이 완전히 표현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 지상의 감정의 찌꺼기를 남겨둔 인간의 표현이었을 뿐, 진실로 인간 존재의 깊숙한 밑바닥까지 이르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가사유상에는 진실로 완전무결한 인간 존재 최고의 이념이 남김없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어서 모든 시간적인 속박을 초월하여 달성해낸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하고 원만하며 영원한 모습의 심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몇 십 년 철학자로 살아오는 동안, 이만큼 인간 실존의 평화로운 모습을 구현한 예술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불상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간직된 영원한 평화의 이상을 최고도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라인이 표현한 인간의 이상상(理想像)인 반가사유상의 얼굴은 번뇌를 태워버린 이만이 지을 수 있는 엷은 미소를 띠고 있다. 길거리 응원전을 통해 가슴속의 찌꺼기를 모두 태워 정화시킨 청년들의 모습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신감의 미소를 보여준다. 우리는 일치 단결된 공동의 힘을 표출함으로써 집단적인 정화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 순간 우리의 얼굴은 반가사유상의 이상적인 모습을 조금이나마 닮았을 것이다. ■문학평론가

월드컵응원과 반가사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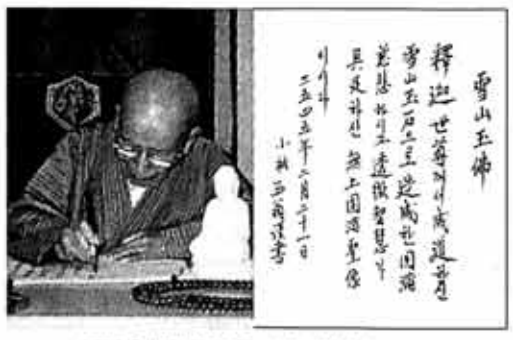
번뇌 태워버린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엷은 미소'

응원전 청년들 웃음 다소나마 닮았을까…

玉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고불승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8동 1663-6 새한빌딩 401호
TEL :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테마독서 틱낫한 스님의 책들



조국 베트남에서 추방당한 후 평화 운동가이자 난민공동체의 지도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틱낫한 스님의 책이 최근 몇 년 새 10여종이나 나왔다. 이쯤 되면 '틱낫한 현상'이라는 말을 붙여도 그리 과장된 말은 아닐 성 싶다.

그렇다면 과연 국적과 종교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스님은 우선 우리들에게 잠시 걸음을 멈출 것을 권한다. 그리고 그 권고는 뿌리칠 수 없는 어떤 힘으로 우리들의 가쁜 숨결을 가라앉히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세상을 꿈꾸게 한다.

국내에 번역된 틱낫한 스님의 책은 약 10여종이다. 처음 소개된 책으로는 10년 전 나온 〈평화로움〉(장격각)과 〈그대 웃음 꽃한 송이 피우리라〉(한길사)를 꼽을 수 있다. 이후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그리스도〉(학민사), 〈귀향〉(모색), 〈거기서 그것과 하나 되시게〉(나무심는 사람), 〈첫 사랑은 맨 처음 사랑이 아니다〉(나무 심는 사람) 등이 차례로 나왔다.

최근 나온 〈화 Anger〉(명진출판)의 경우 각 서점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거기서 그것과 하나 되시게〉는 87년에 나온 책으로, 오래 전

테러 세상 향한 평화 메시지

'이순간의 경이로움을 즐기라'

절판됐다가 명상서적 전문출판사인 '나무심는 사람'이 다시 내놓은 것이다. 이 책에서는 위빠사나 수행법을 알기 쉽게 풀어 '마음모음'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와 불교의 화해를 다루고 있는 〈귀향〉에서는 질시가 아닌 이해, 배타적 시선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태도가 이 '재앙적 테러의 시대'에 필요한 덕목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사랑은 맨 처음 사랑이 아니다〉는 틱낫한 스님의 첫사랑 고백서이며 대승경전에 대한 강의집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화 Anger〉는 화내기 쉬운 세상에 어떻게 화를 다스려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상에서 비롯되는 화(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은 곧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일이요,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수행임을 깨우쳐 주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틱낫한 지음, 류시화 옮김, 김영사)도 이런 '틱낫한 열풍'을 타고 나온 책이다. 류시화 씨가 스님의 저술 20여권과 편지 등에서 고른 글을 11개의 주제로 담았다.

스님은 우리에게 말한다. '지금 이 순간의 경이로움을 즐기라'고.

분등선

왕즈위에 지음

김진무·최재수 옮김

다섯 종파宗風·주요선사 법맥 소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燈)에 비유한다.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불법(佛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것을 전등(傳燈)이라고 부른다.

달마로부터 시작한 선종은 육조 혜능을 통해 꽃을 피우고 다시 다섯 분파로 나누어졌다. 분등선(分燈禪)이란 당, 오대 시대 선종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다섯 종파, 즉 위앙종, 임제종, 조동종, 운문종과 법안종을 말한다. 이 분등의 시기가 중국선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종파의 종지(宗旨)는 모두 혜능 남종을 계승한다. 한 나무의 다섯 가지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다섯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 줄기에 해당할 보편적 특징은 무엇이고, 다섯 종파 나름의 가풍(家風)과 방편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에 친절하면서도 상세한 답을 해주는 책이 바로 〈분등선〉이다.

운주사가 펴내는 선학총서 시리즈 여섯 번째 권인 〈분등선〉(왕즈위에 지음, 김진무 · 최재수 옮김)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분등선'의 개념과 그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오가(五家)의 기본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그들이 가지는 역동성을 다루는 한편 이들 종파의 역사와 종풍(宗風), 주요 선사들의 사상과 법맥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송대에 나타난 문자선(文字禪)과 그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묵조선 및 간화선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가(五家)의 종풍을 살펴보면 우선 위앙종은 소박한 가운데 묵계(默契)를 깊이 함유하고, 말이 없이 드러내지 않으며 체용(體用)을 모두 밝힌다. 중국 불교사에 큰 영향을 미친 임제종은 선을 가르치고 학인을 제접할 때 입처(入處)가 통쾌하며 깨달은 후의 참선이 자연스러운 종풍을 가지고 있다. 반면 조동종은 가풍이 세밀하고 반복하여 살펴주는 풍격을 가져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때문에 '임제장군(臨濟將軍) 조동사민(曹洞士民)'이라는 비유가 생긴 것이다. 북송시기에 가장 영향력을 떨친 운문종은 종풍이 위험하고 험준하여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고, 그 학인들은 언의(言意)를 초탈해 정견(情見)을 남기지 않는다. 법안종은 종풍에 관한 여러 의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법안종풍은 간명한 곳은 운문종과 유사하고 은밀한 곳은 조동종과 유사하다고 본다.

천려유칙 선사는 이러한 각 종풍의 특징을 "임제는 통쾌하며 위앙은 근엄하고 조동은 세밀하며 법안은 상세하여 분명하고 운문은 고상하여 옛 풍취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여러 분파로 나누어졌지만, 선의 본질은 하나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다. 중봉명본 선사의 "달마가 홀로 도를 바로 가리켜 전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섯의 종파로 나누어졌는가? 이른바 다섯 종파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다섯이지 그 도가 다섯은 아닌 것이다"라는 말 또한 그런 맥락이다.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서술되어 있고, 각 종파에 대한 설명을 읽다보면 선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도 더해진다 값 2만원.

분등선의 개념·전개과정 정리

쉽게 서술, 禪에 대한 이해 도와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승만경 · 여래장경 · 부증불감경

'승만경', '여래장경', '부증불감경'은 여래장 사상을 설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전인 '여래장 삼부경(如來藏三部經)'이다. 여래장이란 '여래를 간직하고 있는 창고', '여래의 모태'라는 뜻으로 여래장 사상은 중생 속에 본래 여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승만경 · 여래장경 · 부증불감경〉(시공사)은 삼부경을 우리말로 해설하고 그 뜻을 설명한 책으로, 각 장의 끝에 경의 내용과 구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붙인 것이다. '승만경'은 승만부인이 정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고하자 부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칭찬하신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래장경'은 중생이 번뇌 속에 있지만 더럽혀지지 않는 여래장이 실재함을 설하고 있고 '부증불감경'은 중생계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가에 대한 견해들이 논파되어 있다. 값 1만4천원.

여래장 사상 설한 대표경전

연꽃속의 부처님 박희진 시집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담은 시집 '문화재, 아아 우리 문화재' 등을 펴낸 원로시인 박희진 씨가 1993년 펴낸 〈연꽃 속의 부처님〉에 시 '룸비니 찬가'와 '백팔달마찬'을 추가한 〈연꽃 속의 부처님〉(시와 진실)을 펴냈다.

'관세음상에게'와 '산중문답'을 비롯한 145편의 시가 담긴 이번 시집에는 시작연표와 연보를 담아 시인의 깨달음을 향한 궤적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느꼈던 절망감을 딛고 희망과 확신을 갖게 해준 것이 불교"라는 시인은 "앞으로 석가모니불의 생애와 사상, 그 일대기를 장편 서사시로 엮어볼 예정"이라고 말한다.

1955년 조지훈의 추천으로 등단한 시인은 고희가 넘은 나이에도 '우이동 시낭송회'와 '인사동 아트사이드 시낭송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값 1만2천원.

'산중문답' 등 시 145편 담아

신묘장구 대다라니 강해 임근동 지음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번역됐다. 〈신묘장구대다라니 강해〉(임근동 지음, 솔바람)는 그동안 몇 차례 시도는 있었으나 번역되지 않았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번역하고 강의 형식으로 그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천수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산스크리트어로 이루어진 기도문이다. 범어 원문과 분석 그리고 한문 경전과의 비교연구를 담았다. 값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마음은 없다	데이비드 갓든	탐 구 사
3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4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5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전 재 성	한국불교태고종
6	법성게 강의	석 우	관 음 손
7	만행	현 각	열 림 원
8	영가현도	우 룡	효 림
9	참선교육1	현 담	도서출판 선
10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 근 동	솔 바 람

도서 안내:(02)737-0695

붓다의 깨달음 톰 로웬스타인 지음 서장원 옮김



불교의 인도 태동기에서부터 서구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까지 불교의 발자취를 복원한 〈붓다의 깨달음〉(창해) 증보판이 나왔다.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 철학을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들을 깊이 있게 해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가 발상지인 인도에서부터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티베트 등지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불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김미숙 씨가 쓴 '한국의 불교'를 책 뒷부분에 추가했다. '한국의 불교'에는 삼국의 불교 유입과

불교철학 형성·전파과정 소개

발전과정, 일본과의 교류, 오교 양종과 고려불교, 조선의 배불 정책을 비롯해 원융회통의 한국불교 등이 담겨 있다. 값 1만5천원.

- 마음고치 벗고풀어 나비되고 비단짜기 -
참나 온전 깨침
www.hanahan.org

법안명상기공지상강좌
변형국판, 72쪽, 값 : 8,300원
기공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수련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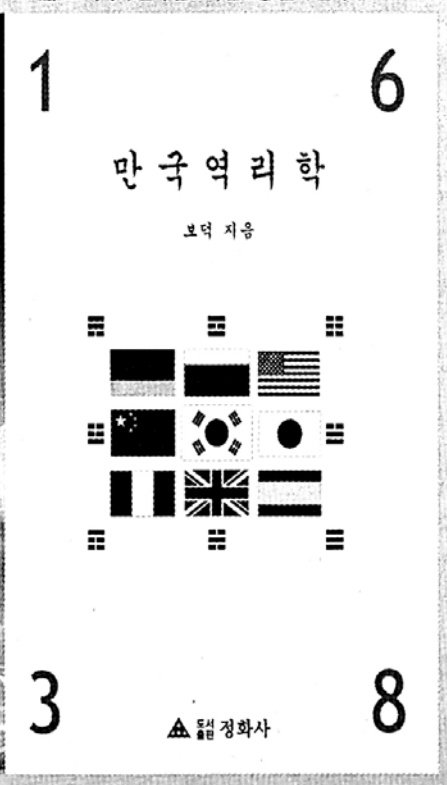
만국역리학
신국판, 112쪽, 값 : 6,300원
역의 원리를 통달해 9종 역리를 창안하고 만국인의 운세를 그 나라의 말과 글로 푸는 9종 운세 풀이서.

이름운세풀이
신국판, 160쪽, 값 : 7,200원
이 책을 보고 자신의 이름과 상호의 운세를 풀어보세요.
※ 대한민국 월드컵 본선 1차전 승리 예상 적중 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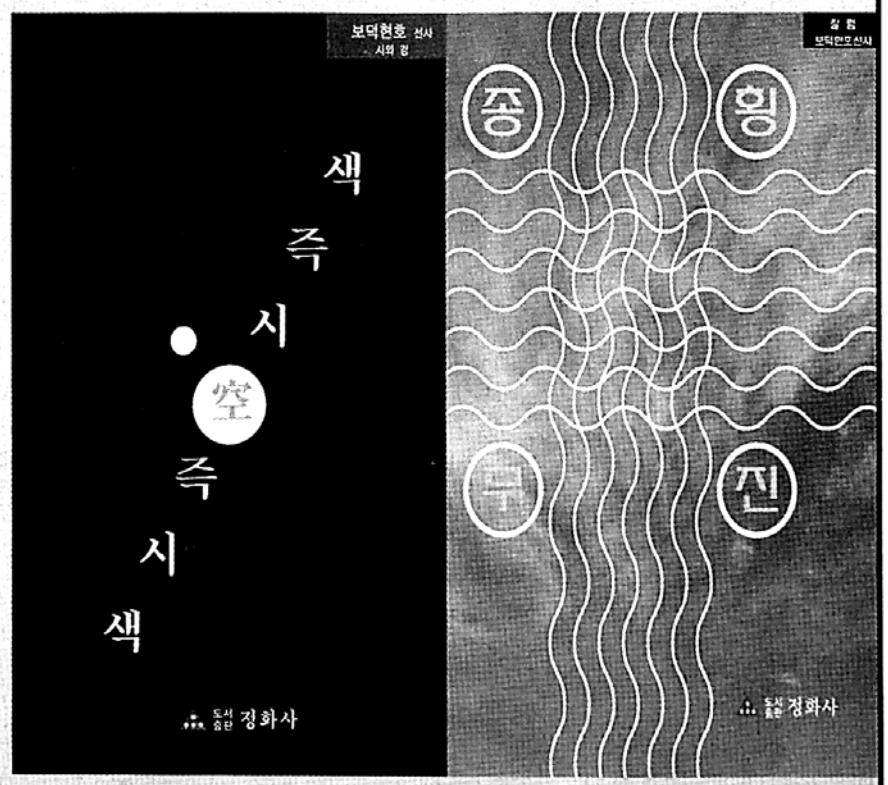
색즉시공즉시색
신국판, 112쪽, 값 : 5,400원
시와 경과 사진의 조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깨달음의 조화.

종횡무진
신국판, 192쪽, 값 : 6,800원
창조적 지혜로 현실을 바로보고 진실을 일깨워주는 21세기 자성인의 교양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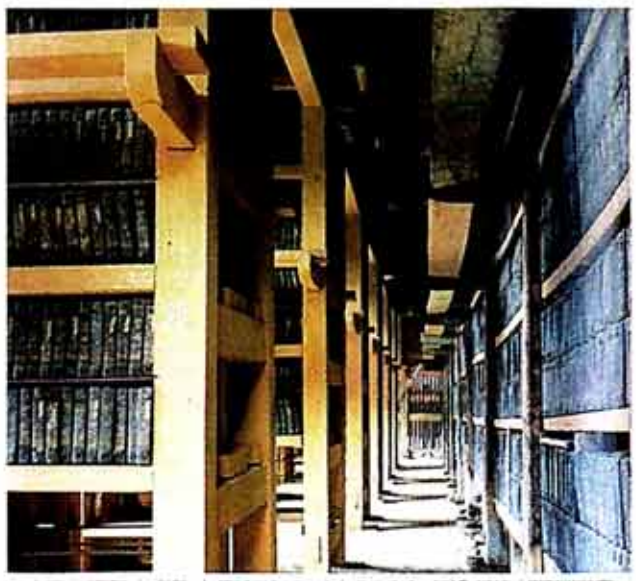


도서출판 정화사 (우) 339-834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Tel : 041)867-4000 Fax : 041)867-4001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

팔만대장경 2005년까지 DB화

1차 4,500경판 완료, 법보 · 수다라전 보관분 진행

과학적 보존 · 훼손부분 복원 등 가능



◇팔만대장경이 3차원 디지털 영상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진은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52호)에 보관된 고려대장경판(국보 32호).

국보 32호이자 세계적 문화유산인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의 경판수가 8만여장에 이른다는 '어림짐작'을 빼고 나면 우리가 팔만대장경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

대장경 판각장소를 둘러싼 이견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장경의 권수나 경판의 수마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문화재청 자료에는 일제시대 조사 자료를 근거로 1,496종 6,568권 81,258장으로 기록돼 있지만 정부가 설치한 문화재 안내문에는 1,501종 6,708권으로, 국사 대사전에는 1,511종 6,802권 81,137장으로 나와 있다. 경판 한 장 한 장에 대한 자료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3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판 한 장 한 장을 디지털 카메라에 담아 이를 3차원 디지털 영상으로 보존하는 작업이다.

지난해부터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디지털 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진행해온 문화재청과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연구원은 1차로 법보전에 보관중인 4500경판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마치고 최근 조사 자료집을 발간했다. 〈대지도론〉 〈금강반야론〉 〈섭대승론〉 〈유가사지론〉 등 대승불교서의 논서에 해당하는 경전들이다.

동 · 서 사간전에 보관된 고려각판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이미 완료한 상태고, 법보전과 수다라전에 보관된 고려대장경판에 대한 조사는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0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완료되면 대장경판의 원형에 대한 자료를 영구 보존할 수 있어 고려대장경의 과학적 보존과 체계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디지털 영상화 및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은 사람으로 치면, 경판 하나하나에 대한 '호적'을 정리하고 '건강진단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우선 경판 한 장 한 장에 주민등록 번호에 해당하는 고유 코드 번호가 부여돼 무슨 경, 몇 권, 몇 장이 장경판전의 무슨 판전, 몇 번 판가, 몇 층, 몇 번째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고려대장경 영인본과 한글대장경, 일본의 신수대장경에서는 몇 권, 몇 쪽에 해당하는지도 비교할 수 있다.

게다가 경판의 앞 · 뒤 사진과 함께 그 경판의 길이, 폭, 두께, 무게 등 각종 제원, 경판의 부식 상태, 글자 마모나 훼손 정도 등 현재 보존 상태를 세밀하게 컴퓨터에 입력해 놓음으로써 경판의 점검과 보수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은 세계적 문화유산이면서도 경판 하나하나에 대한 각종 제원 및 상태를 기록한 자료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완료되면 경판의 원형에 대한 자료를 영구 보존할 수 있어 고려대장경의 과학적 보존과 체계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my@buddhapia.com

"고려때 선종부흥은 居士禪 영향"

조명제 씨, 선학회서 주장

지배층 문인들 승려들과 밀접한 교우관계

이자연 · 윤언이 등 혜조 · 담진에 사상적 영향

고려 전기 선종사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거사선(居士禪)'의 출현이다. 그렇다면 이자현(1061~1125), 윤언이(1090~1149) 등으로 대표되는 거사불교는 당시 선사상의 흐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15일 '한국선이란 무엇인가-고려전기의 선'을 주제로 열린 한국선학회 제2차 정기학술회의에서 '고려 전기의 거사선(居士禪)'을 발표한 조명제(일본 고마자와대 특별연구원) 씨는 "고려시기의 지배층 문인들은 불교계와 밀접한 교우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거사들이 일방적으로 승려들에게 사상적 영향을 받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상적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에 따르면, 의천의 천태종 개창으로 최대의 타격을 받았던 선종은 12세기 들어 부흥의 기반을 다져나간다. 이 과정에서 선사상에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는데, 우선 〈능엄경〉이 성행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안선의 경향을 담고 있는 각종 어록이 수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능엄경〉은 지눌 이후 13세기 수선사 계통에서도 중시됐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적 흐름은 바로 이자현 등 거사들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 조 씨의 주장이다. 12세기 이후 이자현에 의해 〈능엄경〉이 중시되었고, 그의 사상적 영향으로 선종계에서도 선의 이론과 실천을 담은 하나의 소의경전으로서 〈능엄경〉이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조 씨는 "이자현은 혜조국사 담진, 탄연 등과 교유하면서 사상적 영향을 주었고, 원진국사 승형은 이자현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 〈능엄경〉을 널리 유포시키기도 했다"며 "〈능엄경〉이 고려후기 사상사에서 갖는 의미와 관련지어 볼 때 이자현의 사상적 영향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조 씨는 "12세기 고려 불교계에는 간화선이 수용될 수 있는 내적 기반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선종계의 역할도 크지만 거사선의 흐름 속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그것이 선종계와의 교류와 영향을 통해 더욱 확산되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 중 · 후기 선사상 종합규명

권기종 동국대교수 '고려시대 선사상 연구' 출간





선사어록 · 행정 등 통해 성립 · 전개과정 밝혀

맥 달리하는 '조동선' 등에도 상당부분 할애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권기종 교수(사진)가 최근 펴낸 〈고려시대 선사상 연구〉(한국불교연구원)는 고려 중 · 후기 선사상의 종합적 규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려 후기 선사들의 저술과 어록, 행장과 금석문을 기초로 그들의 선사상을 규명하고 있긴 하지만 특정 선사의 선사상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고려 후기 약 200년간 있었던 선사상의 정립과 전개 과정, 그 중심사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지눌 이후 고려후기 불교의 선사상은 한국불교 선사상의 전통이 확립되던 중요한 시기다. 정혜결사운동을 바탕으로 한 지눌의 선사상은 조계산 수선사를 중심으로 16국사에 의해 선의 중흥을 가져왔고 교종의 이론까지 수용해 새로운 한국적 선사상의 체계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권 교수는 지눌계의 사상과는 맥을 달리하는 흐름에도 주목한다. 교종 이론을 원용한 지눌 선사상에 반대한 지겸의 위앙선, 일연의 조동선, 천책의 〈선문보장록〉 사상 등 재래 구산선문의 선사상에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고려말 임제선의 도입과 선양에 힘쓴 태고, 나옹, 백운에 대해서도, 태고의 경우 지눌과 일맥상통하는 간화선풍을 선양했지만 나옹, 백운은 지눌계와는 다른 선사상을 주창했다고 파악한다.

'견성성불'의 자력 신앙인 선이 일종의 타력 신앙인 정토사상을 흡수했다는 점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정토교는 지눌, 보우, 나옹의 선사상에 수용되어 지눌의 정혜염불, 보우의 공안염불, 나옹의 무념염불로 발전됐다.

권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일반독자들이 읽기 쉽게 새로 고쳐낸 책이다. 논문에서는 한자로 된 용어를 한글로 고쳐 한자는 괄호 안에 넣었고, 한자로 된 원문 역시 한글로 번역했다.

경주 나정부근 팔각건물터 발견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태어난 전설을 간직한 우물인 경주 나정(사적 245호) 일대에서 통일신라시대 팔각형 건물터가 발견됐다.

지난 5월부터 나정 일대 정비사업을 위해 이 지역을 발굴 중인 중앙문화재연구원은 12일 한 변의 길이가 8m, 동서 · 남북 길이가 20m쯤 되는 팔각형 건물터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화강암을 쌓아 만든 이중 기단 형태의 건물터 남쪽으로는 앞은 돌을 깔아 사람이 다니도록 한 도로시설이 20여m 확인됐다. 사자문수막새, 연화문막새, 당초문암막새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봐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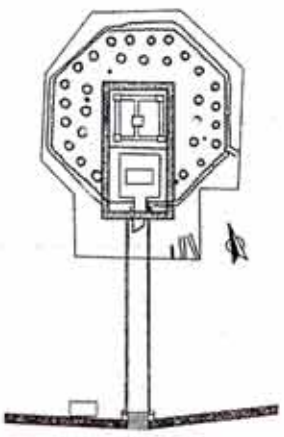
중앙문화재연구원은 "기존에 조사된 팔각 건물터가 대부분 목탑지인 것을 감안하면 일단 목탑이 있던 곳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삼국유사〉에는 월성으로 궁을 옮기기 전에 청림사지 안에 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현재의 나정 바로 남쪽에 청림사지로 추정되는 절터가 있다. 이 지역이 월성으로 궁을 옮기기 전의 근거지였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하지만 팔각 건물이 격이 높은 건물에만 쓰이고 이 일대가 박씨 가문에서 신성시하는 지역이다 보니 박혁거세 등과 관련된 제사 시설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오재진 선임 연구원은 "팔각 건물터가 경주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며 "건물터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나정 전체를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목탑지 추정…제사시설일 가능성도 검토

통행할 수 있게 돌포장 도로 20m 조성



◇경주지역에선 처음으로 나정(사적 245호) 일대에서 발굴된 팔각 건물터 유구 배치도.

현양성교론 색인집

'권 7' 부분 첫 발행

최종남(중앙승가대 강사) 씨가 〈범어 · 티베트역 · 한역 대조 현양성교론 색인〉(한국전통불교연구원)을 최근 펴냈다. 〈현양성교론〉은 유식학파의 제2조인 무착이 시조인 미륵의 〈유가사지론〉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섞어 모아 20권(11품)으로 구성한 책. 이번에 펴낸 색인집은 〈현양성교론〉 중에서도 계 · 정 · 혜 삼학을 설명하고 있는 '권7' 부분으로 〈유가사지론〉의 '성문지(聲聞地)' 권21, 22, 26, 28, 33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발간된 15종의 색인집은 모두 일본에서 나왔었다.

기존의 색인집이 〈현양성교론〉 권7에 나오는 용어를 적고,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1938년 티베트 사원에서 발견된 〈유가사지론〉 '성문지'의 산스크리트어 필사본, 티베트어 번역, 한역본에서 찾아 배열하는 방식이었다면 문헌학적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새롭다.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제10기)
- 지도방법 : ① 출강 …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학습내용

① 승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 · 조석예불 · 각단예불 · 향수해례 · 사성례 · 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식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마감 : 2002년 7월 6일까지(현재 접수중)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 개강일시 : 2002년 7월 10일 (수)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의 특징 -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지도와 편의 제공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www.pubsa.org

직원모집

불교활동에 의욕적이고 돈독한 신심으로 근무할 업무직원을 모집합니다.

① 자격 : • 남 · 여 관계없음
• 컴퓨터 가능자
• 불교 기자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
② 모집인원 : 0명
③ 접수방법 : 이력서 지참 면접
④ 모집기간 : 7월 6일까지

법사불교신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오가피를 아신다면 이글을 꼭 읽어보십시오"라는 거짓 광고를 고발합니다!!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자
(주) 한국자연과학 대표
강 훈 구 氏

▣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의 비교

구 분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
학 명	Acanthopanax Senticosus	Acanthopanax
각국의 명칭	한 국: 가시오가피 러시아: 시베리안 진생 중 국: 자오가(바우지) 일 본: 에조우고기	한 국: 오가피 러시아: 없음 중 국: 오가 일 본: 우고기
각국의 정부정책	한 국: 보호아생식물 러시아,중국: 국가보호수	해당사항 없음
국내생지 가격	수입산: 리터당 30만원 국내산: 구하기 어려움	국내산 리터당 5만원
최국 석학들의 논문 및 보고서	· 러시아 브레크먼박사-가시오가피의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보고 · 독일 바그너박사-한국산 가시오가피의 유효성분이 가장 뛰어남 · 중국 체훈징 박사의 연구보고 외 논문 다수	해당사항 없음
오장내	바늘같은 진기시가 백백함	장미가시 같은 큰 가시가 듬성듬성 나 있음

식 품 명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류			
		지리오가피	서울오가피	설오가피	영오가피
엘레우테로사이드 E 함량(mg/g)	1.92	1.10	0.86	0.35	0.24

- 농촌진흥청 호남작물시험장 연구 보고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4민사부 결정을 조롱하는 당신!

수신오가피 성광수씨에게 묻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결정이면 깊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법의 존엄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당한 당신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거금 5억원이라는 공탁금을 걸고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문도 휴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늘 현재까지 권법금고로 사법부의 판결을 비웃고 있습니다. 법의 존엄과 법의 결정은 휴지입니까?

지난 몇 년간 가시오가피 내용으로 오가피 제품을 팔아 승승장구하던 수신오가피가 최근 조작까지를 서슴치 않는 것은 가시오가피의 진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어서 입니까? 특히, 막대한 광고비를 들이면서도 영업에 압박을 받게 되자 본인 의도하에 조작된 성분을 이용하여 실험해 놓고 마치 본인의 제품이 가장 우수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위기감의 발로입니까? 함박재가시오가피 농장에서 재배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보호식물로 지정한 가시오가피입니다. 당신은 오가피 나는 가시오가피이므로 가는 같이 다릅니다. 당신이 무엇이라 하던 오가피가 가시오가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신오가피 성광수씨의 물음에 답하고 묻습니다!

1. 당신은 자기 제품(수신 토종오가피)의 시료는 농축하고 함박재가시오가피 제품 여는 물을 먹여 시료를 조작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호남작물시험장 연구 보고」(도표참조) 그런데, 당신의 손을 거치면 없는 것이 나타나고 타사의 것은 작아집니까? 당신은 분명 도계비 방망이를 지녔습니다.

2. 당신이 말하는 가시오가피의 지표는 이칸토사이드D가 아니라 이소프락시딘입니다. "이소프락시딘이 없으면 가시오가피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진짜 가짜를 식별하는 지표로 삼는 것은 가시오가피에만 있는 성분으로 다른 식물에는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미량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이소프락시딘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수신오가피 성광수씨는 오가피를 가시오가피 내용으로 광매하고 있었습니다.]

- ▶ 당신이 편저자이고 수백만부 이상을 푸린 (토종오가피의 효능) 이라는 책자 40쪽부터 47쪽까지 복용사례, 기타 인용문 중 오가피는 가시오가피입니다.
- ▶ 일본의 에조우코기는 오가피가 아니라 우리말로 가시오가피입니다.
- ▶ 구 소련의 브레크만이 인삼 대타로 연구하여 세계에 그 약리작용을 알린 것은 오가피가 아니라 엘루테로콕푸스 즉, 우리말로 가시오가피입니다.
- ▶ 독일의 석학 바그너 박사가 한국산이 소련산의 4배, 중국산의 6배의 엘루테로사이드 E가 많다는 것은 오가피가 아니라 가시오가피입니다.
- ▶ 구 소련의 우주비행사나 올림픽 출전선수들이 음용한 것은 오가피가 아니라 가시오가피입니다.

3. 국내 최대 오가피 재배자라고 주장하는 수신오가피의 성공수씨 천안 수신면에 위 치한 농장이 당신이 주장하는 최대의 농장입니까? 그 농장의 생산량은 당신이 현 재에 판매하고 있는 원재료의 1개월분도 채 안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농장은 러시아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까?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 머피의 말

문의전화 (02) 2272-4900

정신계 · 물질계 같이 돌아가야 자유인

여러분과 같이 오늘 한 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러나 일제하의 역사를 낱낱이 봐 왔고 6. 25의 참변을 낱낱이 봐 왔습니다. 물론 임진왜란 때는 얘기로만 듣고 책으로만 봤겠지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허나 직접 당하고 너무나 생생하게 봤기에 저 국기만 보면, 국기라는 이름을 떠나서 진실한 전체 우리들의 나라에 대한 마음들이 그 국기 하나에 도사리고 모두 걸음들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의 호국영령들과 더불어 평민으로서 또 많은 조직을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순국했다는 사실, 평민이 수없이 죽어갔다는 사실이며 일제 치하에 앞장서서 총받이로 끌려간 군인들, 징용으로 끌려가서 탄광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힘이 부족하고 먹지 못해서 지치면은 실험대로 끌려가고 또는 정신대로 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으리만큼 모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총으로 그냥 팍 쏴서 죽이는 것 같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닙니다. 역사라고 이름을 해서 그렇지 어제오늘 내일도 없는 오늘, 그 아픔을 어찌 다 말로 하리까.

그리고 6 · 25가 났을 당시에 한강 다리가 끊어지면서 수 없는 사람들이, 차와 사람이 그대로 물로 들어갔습니다. 모래톱에서 총을 맞아서 다리가 떨어지고 이래도 그냥 뜁디다. 아무 정신 없이, 살아있기만 하면 팔이 떨어져도 그냥 뜁디다. 군인들도 평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한강 저쪽 한강 이쪽, 장작개비 던져놓듯 포갬포갬, 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난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모두가 얼마나 아팠으며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나 그뿐입니까?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에 그것도 전세를 겨우 모면해서 인제 내 집인가 했더니 그것도 갈려서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딨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영령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는 이렇게 털털하게 염불 몇 번하고 말았습니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천년 전 아니 십 년 전, 이십 년 전, 삼십 년 전, 사십 년 전, 몇 천년 전을 떠나서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사실을 아마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로,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모두 공(空)한 속에 같이 한마음으로써 생산처에다 연결시켰습니다.

제주도에도 법회가 있어서 엊그저께 갔었습니다. 거기도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허나 처음에 제가 들어섰을 때에, 4 · 3 병고가 생겼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숨어서 살아나려고 골골마다 앨 쓰고, 어떤 돌 뿌리든지 흙 뿌리든지 들어가서 살 양으로 애를 쓰다 죽은 영령들이 전부 뱀으로 화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함부로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한생각을 잘하고 한 말을 잘해서 이끌어 가는, 바로 다스리는 마음의 선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숨어서 살 양으로, 숨어야 산다는 그 마음이 오직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였던 것은 저쪽으로 하여금 죽고 이쪽으로 하여금 죽고, 그냥 그대로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이 제주도에서는 참변을 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을 지내는데 오늘 마지막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뱀이 나오지 않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전 만 하더라도 장 속에 들어가 있고, 방 아랫목에 와서 앉았고, 지붕 꼭대기에 와 앉았고,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열 마리 뭉쳐서 그냥 부엌에도 있고, 뭐 말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오늘 내가 눈물을 금치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만이 단 줄 아시지 마세요. 지금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물질계의 발전이지 정신계의 발전은 아닙니다. 본래 알고 보면은 정신과 물질이 같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정신계를 무시하고 가는 반면에 천체물리학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심성천체물리학을 연구해야지,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돌아가야만이 자유인으로서 자유스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더더욱 아픈 것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나쁜 짓, 사기, 도둑 질, 뭐 말로 어떻게 다 할까마는 그렇게 마구 사는 분들이 있지요. 요즘 더더욱, 젊은이들이 더 그렇구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래도 많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신계 50%를 모르고 산다면 바로 반쪽만 사는 격이 됩니다. 반쪽만 살아서 항상 걸리고 걸려서 자유스럽게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유스럽지 못하게 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모습을 또 바꿉니다.

우리는 캠핑 나와서 한철 서로 인연이 되어서 만나서 서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듯이 그저 걸망 하나 짊어지고 캠핑 갔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선장으로 자기를 다스린다, 다스려서 놓는다, 일임한다 맡긴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이 관하는 거죠. 행주좌와 관하면서 일생을 살아라. 그러면 생활이 즉 부처님 법이요 우리들의 법이다. 생활이 도고 생활이 참선이지 딴데 가서 도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를 찾고 미래를 찾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주어지고 영계성 · 유전성 · 세균성 · 업보성 · 윤회성 이 다섯 가지가 다 내 몸 속에 악업 선업으로 모습과 생명이 헤아릴 수 없이 모두 있습니다. 딴 데 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고가 딴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떠나면 그 자체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부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리에 바로 중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의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많은 의식들이 왜 그렇게 고와, 윤회성 · 영계성 · 업보성 · 인과성 · 세균성이 모두 그 속에 있느냐 이런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발전이 돼서 우리가 컴퓨터를 쓰지마는 자동적인 컴퓨터를 여러분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알고 짓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됐으면 입력된 대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된 것이 현실에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입력된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팔자 운명은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지 않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무마시킬 수가 있고 바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자동적인 컴퓨터, 오신통이라는 자체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심안으로 보는 천안통, 심안으로 듣는 천이통, 또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신족통.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타심통, 부모를 통해서 자기 영혼의 뿌리가 자기를 형성시키는 데는 남녀의 정자 난자를 빌어서 바로 삼합이 한데 합쳐짐으로써 형성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형성을 시켜서 자기가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부모는 인연에 따라서 빌려서 내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어디서 나온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숙명통(宿命通)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다 포함해서, 한 가지만 거기서 떨어져도 자동 컴퓨터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다섯 가지가 다 한데 합쳐서 하나로 돌아가는 반면에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인간에게 다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팔자 운명, 고라는 것을 어떻게 면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삼천 년 전이나, 몇 억 광년 전이나, 지금이나 1초 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습에 끄달리고 관습에 끄달려서 그렇지, 한번 생각을 넓고 깊게 해보십시오. 시공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본래 여러분이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착을 두고 붙잡고 늘어지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를 가져야 한다, 내가 망했다 내가 벌었다 이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이 시공을 초월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하던 말을 과저 이어야죠?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적인 여러분의 컴퓨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그대로 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면서 연방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당신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상대성의 원리도 없을 것이고, 이 세상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종교도 없었을 것이고, 부처 중생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없다면 무효다. 당신이 이 세상에 났으니까 모든 게 있는 것이다. 잘하고 잘못하는 것도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라.' 하고 말입니다. 나무가 뿌리로 인해서 살고 있죠. 싹은 뿌리에게 영양소를 투입하고 태양열과 공기력을 투입하고, 뿌리는 철분과 지분,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싹이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뿌리와 싹을 뚝 잘라 놓는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벌써 송장이 될 겁니다. 그와 같이 영혼의 뿌리란 여러분의 몸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져서 떨어질 뿐 이듬해 봄이 오면 다시 이파리가 싱싱하게 자라나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관습에 끄달리지 말고, '내가 업보가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이런 마음도 가질 필요가 없죠. 또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늘 내가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고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몽땅, 헌쇠를 용광로에다 놓으면 다시 재생이 되듯이 자가발전소에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용광로에다 찌그러진 쇠를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갑니다. 용광로에다 넣어서 다시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다 생산시켜서 내보냅니다. 그와 같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 따질 것도 없습니다. 바로 나를 형성시킨 고놈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니까 내면세계 정신계를 파악하고,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할 것도 없어요.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론으로만 배운다고 그래서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걸 배우지 말고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선(禪)과 교(敎)는 둘이 아닙니다. 천지도 둘이 아니요, 남녀도 둘이 아니요, 늙음과 젊음도 둘이 아닙니다. 일체가 다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암흑세계로부터 지 · 수 · 화 · 풍이 한데 모여서 지평선에 에너지가 이루어졌었고 그것이 또 우주를 형성시켰고, 우주가 형성되는 반면에 은하를 형성시켰고, 또 불바퀴를 형성시켰고, 지금은 블랙홀이라고 합디다마는 큰 별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느 회사 같으면 회장님을 하나 세웠다 이거죠. 그 회장으로 인해서 모든 은하의 별들이 서로 조직적으로 움죽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냈다 들였다 하는 작용을 하시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이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움죽거리고 작용하고 이러죠? 그거와 같이 일체 우주의 전체 태양계와 외성과 모든 별성들이 모두 그렇게 움죽거리고 있습니다. 내고 들이고 내고 들이는 작용으로 하여금 모두가 생산이 되고, 모두가 옷을 벗고 다시 새 옷을 입고 하는 작업을 지금 쉴 사이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발전해서 창조력을 기르고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돌에다 세워놔도 살 수 있는 기본이 생김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것이 바로 교(敎)입니다. 뜻으로써 연결이 되고, 마음으로 연결이 되고, 말로 연결이 되고 통하고 하는 것이 교예요. 풀 한 포기의 생명도 바로 불(佛)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삼천대천 세계가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용하고 먹고살고 죽고 하는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요즈음 종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신심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의 차원이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무슨 불교가 망했네, 불교가 다했네 이런 소리들을 하시지만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립니다. 여러분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계가 바다 밑바닥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파도가 일고, 위에 것이 아래로 가고, 아래가 위로 오면서 순환을 거듭거듭 해야 만이 위거는 아래 걸 먹고 아래 거는 위 걸 먹고, 찬 기운을 온기로 먹을 것을 모두, 물이 모두 비타민C처럼 공급이 됨으로써 모든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종단도 역시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 작용이 없다면 어떻게 개선이 되며, 어떻게 개혁이 되며, 어떻게 발전을 이루며, 어떻게 창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풀 한 포기만 살아도 불교는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공부라는 게 너부터 알고 너부터 찾으라는 겁니다. 달마대사도 그랬고 사대성인들이 다 너부터 알라고 한 겁니다. 과거에 살던 너를 만남이 있어야 바로 무의 세계의 전체를 알 수 있고 자유인이 되느니라. 그걸 가지고 이름해서 도라고 하며, 그걸 가지고 성불이라고 하며, 그걸 가지고 바로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업신여기면 안됩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다른 싹을 믿고 다른 형상을 믿으면서 살려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공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 하나 있다면, 싹은 반드시 제 뿌리를 믿어야만이 제 뿌리에서 바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이끌어 가기 때문에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 맺고 열매가 맺으면 제 나무에서 무르익는 열매 맛 하나에, 한 맛에 만 가지 맛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 나무에서 익은 열매는 두루 일체 중생들, 유주 무주 보이는 중생이나 안 보이는 중생이나 다 맛있게 먹고 깨우친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끌어내려서 지금의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그걸 잘 못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부처님이 그 시대에 방편을 썼던 말을 지금 현재의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더욱 좋은 것은 싹은 싹대로 귀결이 되고, 한마음이 이루어지고 똘똘 뭉치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고, 우주 전체가 또는 세상 전체가 뿌리에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싹도 같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한마음이라면 뭐는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모습, 생명, 의식들이 세포 하나 하나에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째고 온통 야단들을 하는데 지금 의사들이 정신계의 의학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밖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도 안되죠. 한 30~40%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죽네 사네 하고 끝내는 고생하다가 죽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면 여러분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60%는 바로 여러분이 의사가 돼야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틀린가. 여러분 몸 속에 수 없는 생명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물 한 컵을 마셨다 할 때 혼자 마셨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밥 한 그릇을 먹었을 때에 혼자 먹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관리인이고 바로 심부름꾼이고 집합소예요. 그쪽에서 모든 생명들이 나 좀 달라고 할 때마다 나는 먹고 싶어지고 먹고 싶으면 먹여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진정으로 믿고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 할 때 바로 대뇌로 통신이 되고 중뇌 또는 소뇌를 거치면서 중뇌에서 판단하고 책정해서 사대로 통신을 하면 통신을 받은 생명들은 모자라는 데는 채워주고 넘치는 데는 줄이고, 이렇게 작용을 해서 끌고 다니는 자기 몸을 살리며 건강하게 이끌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성의학이기도 하고, 심성과학이기도 하고, 심성첨학이기도 하고, 심성천체물리학이기도 하고, 심성천문학이기도 하겠지요. 허허.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 · 수 · 화 · 풍이 바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땅 속에서 금이 나오는 원리도 그러합니다. 지 · 수 · 화 · 풍이 아니라면 금이 될 수도 없고, 금을 캘 수도 없고 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세계가 금속 아니면 쓰지를 못하듯이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그거 아니면 못 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선장이라는 자체의 원리는 바로 금속과 같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보배죠. 지 · 수 · 화 · 풍이 바탕으로 돼 있어요, 지평선이 바탕으로 돼 있으면서 우주를 형성시켰듯이. 지금 여러분의 몸 자체가 지 · 수 · 화 · 풍으로 바탕이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 · 수 · 화 · 풍이 없으면 못 살아요. 지 · 수 · 화 · 풍을 먹고살지요. 그런 반면에 거기에 자력과 원리가, 힘이 주어져 있단 얘깁니다. 뭐가 주어져 있느냐? 자력 · 통신력 · 광력 · 전력 네 가지가 모두 여러분한테 본래 주어져 있는 겁

☞ 18면으로 계속

일상생활이 道요 참선

딴 곳에서 찾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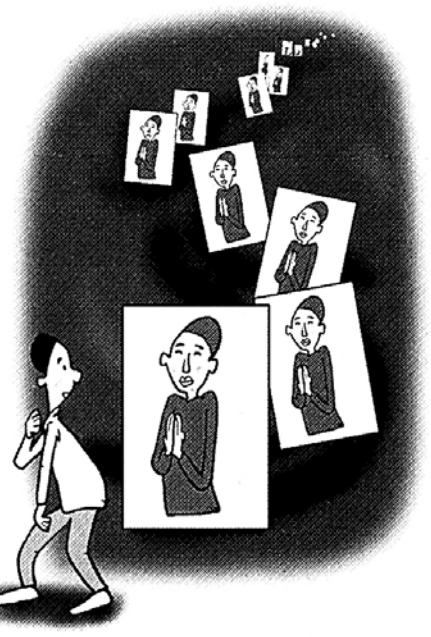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하늘이 무너져
세상이 다 죽어도
풀 한포기 살아있으면
불교는 살아 있는 것

☞ 17면에서 계속

내 마음 한생각이 바로 금·보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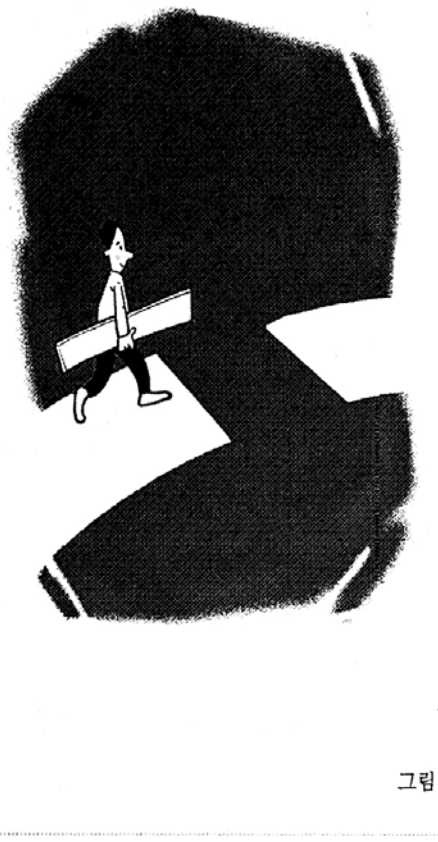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시하고 단전호흡을 해서 얻느니, 기를 어디서 주워 모아다가 넣어서 내가 살아야 하느니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구요, 모두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기는 내가 만들어서 사는 것이지, 한생각이면 기가 나오고 한생각이면 기가 죽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엉뚱한 생각입니까? 선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단전호흡을 하다가 병이 들린 사람들이 수가 없어요. 명상하다가 병이 걸린 사람이 수가 없구요.

왜 병이 드느냐 하면은 모두 타의에서 구하거든요. 싹이 제 뿌리를 믿고 제 뿌리에다가 모든 거를 일임해야 도를 이루고 자기 마음을 발전시키는데, 싹이 딴 데를 보고서, '아이고! 나 좀 통하게 해주시오! 나 좀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연방 틀어끼고 앉아 가지고 상대를 믿고 돌아가니 영령들이,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이 어디서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또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는 그 한 몸 속에 둘이 사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뭘 좀 하려면 이쪽에서 튕기고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미쳤다고 그러죠. 그리고 정신병이라고 병원에 데리고 가죠. 그게 어디가 어떻게 돼서 그런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마음으로 병이 난 거는 마음으로 다스려야죠. 그래서 임제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의 주인이 없다면 빈 집이기 때문에 이 영계 저 영계, 이 혼백 저 혼백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집만 망가지고 네가 맘대로 살수 없다고 하신 거죠.

날더러 만날 말을 하래서 하기는 하는데요, 날더러 말만 하래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을 책으로만 보고 이러는 게 도를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못났든 잘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다니는 게 어떤 놈으로 인해서 내가 걸어다니는가를 한번 진심으로 생각해 볼 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걸어다니는 자체도 걸머지고 다니지는 않겠지요. 여러분이 지금 걸머지고 다닙니까? 그냥 놔버리고 다니죠. 살아가는 것도 놔버리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고정됨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걸 보면 저걸 보게 되고, 이걸 들으면 저걸 듣게 되고, 저기 가게 되면 여기 가게 되고,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걸 먹으면 저걸 먹게 되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까닭에 고정된 사실이 하나도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질 않아요. 여러분은 걸레를 빨아서 쭉 짜면 아무 데나 팽개칠 수 있는데 만약에 금이라면 장 속에 갖다 넣느라고 야단이나죠. 걸레 팽개치듯 그렇게, 금이 있다 할지라도 장 속에 넣긴 하되 걸레 짜서 버리듯이 착을 두지 말라 이 소립니다. 모든 게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는 관리인일 뿐이고 바로 생명들의 집합소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한생각하는 게 금입니다. 보배고요.

한생각에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제주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큰 구렁이가 똘똘 틀고선 집 앞에 와서 항상 옆에 와서 앉아서 계란을 하나씩 갖다가 툭툭 깨뜨려 먹더랍니다. 하하하. 그래서 말입니다. 아, 이놈의 구렁이가 왜 우리 귀한, 예전만 해도 얼마나 계란이 귀했습니까? 지금은 흔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깐 우리도 못 먹는 거를 구렁이가 갖다가 먹나, 얼마나 얄미웠던지 저걸 죽여야지 하고 밤에 잠을 자려니까, 이건 어느 스님의 얘기입니다.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아마 삼매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구렁이가 턱 일어서는데 보니까 자기 친척집 할아버지더랍니다. 할아버지가 4. 3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그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래, 네가 얼른 이 옷을 좀 벗겨다오." 이러시면서 "내가 옷 벗기 위해서 네 눈에 이렇게 띄고 있지 않니?"하더랍니다. "제발 좀 이 옷을 벗어야 할 텐데 내가 자유로이 옷을 벗을 수는 없구나." 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죽으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사흘이 지난 후에 돌을 가지고 그냥 죽였답니다. 그런데 죽이던 날 저녁 꿈에 할아버지가 또 나타나서 "내 모습을 이렇게 벗겨줘서 이제는 환생을 하느니라."하면서 그냥 긍중으로 사인교를 타고 가시더랍니다.

이러한 일도 있듯이, 꿈과 생시가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꿈도 그렇게 꾸어지고 꿈에 생각을 하는 것이 생시에 '주인공은 바로 내 뿌리야. 한마음이 뭉쳐진 뿌리는 바로 나를 이끌어 가고 있어.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내 앞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 뿌리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맡겨놓으면 원자에서 분자가 나가고 입자가 돼서 화하듯이, 그러는 것입니다.

> 내 마음의 주인이 없다면
> 빈집이기 때문에
> 이 영계·저 혼백이
>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 결국 집만 망가지고
>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의심하고 자기를 자기가 못 믿지 마시고 관법(觀法)을 열심히 배우셔서 실천해 보실 때에 체험도 하시고 성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체가 바로 우스워집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자기가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우습게 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한 쪼가리도 스승 아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주 천지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일체 만물만생은 다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성 내면세계에 마음을 통하시면요, 우주하고도 통하고 이 세상에 모두 가설이 돼서 통하고 보고 알고 합니다.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은 바로 실천하는 게 도지, 물질을 보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을 하나 켜려면 전기 줄과 전기 줄이 맞들어가야 불이 켜지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보배인 것입니다. 진짜 보배인 것입니다.

컵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길이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이것이 뭣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를 다 상세히 알아 맞춰도, 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도 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도라고 하지 말라, 오신통을 도라고 하지 말라, 오신통에서 벗어나서 오신통을 굴릴 줄 알아야만이 도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과학자들이 이거를 다 알아내고 끝도 없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다 안다고 해도, 만약에 비행기가 우리나라를 산산조각을 낸다고 합시다. 그래서 삽시간에 온다, 지금 이북에서도 난리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송국 사장님께서 말입니다.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이나 당했지 두 번 당하지 않는다.' 는 결론입니다! 천만에 말씀이지요. 수소폭탄으로 이 세상을 다 죽인다, 수소폭탄이 제일 위대하다 하고 해놨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소폭탄이 있기 이전이 있다.' 어때요? 그 핵을 만들은 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이 되고 그 핵이 내가 된다면 자기가 자기 죽이는 일이 없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먹이 이 주먹을 칠 수 있겠습니까? 제 주먹이 제 주먹을 칠 수 있겠느냐구요! 몰랐을 때 한 번은, 여러분과 똑같이 말입니다. 한 번은 당했을지언정 두 번 당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자1: 조금 전 말씀 중에 사람은 윤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유가에서는 제사를 4대까지 지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제사를 모시는데, 저희들 윤회를 한다고 그러면은 통상 사람이 죽어서 영이 언제쯤 다른 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들어가고 나면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스님: 반드시 지내야 되겠죠. 그런데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된 도리를, 교훈을 잃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돈이 많이 드네 뭐 어쩌네 하고 찡찡거리고 애들을 데리고 이걸 어떻게 차리나, 뭐 어쩌나 하고 이렇게 성가시게 마음을 쓰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모신다면 조상님들도 싫어하시니까 웃는 낯으로 좋은 마음으로 아주 편리하게 하라고 합니다.

요새 기증 떡 둥그런 거 있죠? 옛날에는 모찌떡 큰 것 갖다가 세 켜놓고 꽃 한 송이 놓고 물 한 그릇 떠놓고, 향 세 개 피우고 초 켜고 나서 무릎 꿇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아니, 공짜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다 길러서 학교 공부 가르쳐서 사회인으로 길러주고 그만큼 노고를 했으면 그래도 은혜를 알아야죠.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상이 먹고자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제사 지내달라고 하는 조상 봤습니까? 나는 원칙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나라를 걱정할 때는 나라의 은혜를 생각할 때가 있고, 부모 생각을 할 때는 부모의 은공을 생각할 때가 있는 거고, 그런 때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자연을 볼 때는 자연의 은혜를 생각하고, 국민의 은혜, 돌의 은혜, 물의 은혜, 불의 은혜, 모두 있지 않습니까. 물의 은혜, 공기의 은혜가 너무 커서 때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 갚으려면 정도를 생각해라, 이 세상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원리를 알아라. 그렇다면 한생각에 다 갚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위 법문은 1994년 6월 12일 울산 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분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기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쿤달리니, 디간과 직회 차크라계발, 에너지이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 본체, 녹색광인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펌사)
* 오라진동무선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광안경(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펌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펌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톤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시면 자세한 카다로그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마인드테크 : (02) 888-2142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5월은 십목의 계절입니다.
우리결혼할까요?
10년 노하우의 공든탑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불자 인연을 찾아 현대로 지금...
당신을 기다리는 인연의 사람과
함께 할 수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위 치 안 내 ◁
1호선 부천역 하차 북부역쪽 광장 우측 첫번째 골목으로 200m정도 직진 희원오피스텔 202호
※ 방문전 전화약속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32)654-5411
연구실 : 032)346-5422
휴대폰 : 011) 288-2944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彩'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백과 차단) 특별보시!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백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희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1개월분 ₩150,000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후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전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걱차 없어집니다.
· 간후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후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명상태교

하루 15분 눈감고 마음 집중

혼히 건강하고 똑똑한 2세를 낳기 위한 노력을 태교라고 한다. '뱃속의 1년이 태어나서 10년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통적으로 태교는 중시돼왔다.

최근 이런 태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태교음악'이나 '태교를 위한 그림책', '태교를 위한 소설' 등 관련서적과 음반이 여느 때보다 활발히 나오고 있다.



구본일 원장의 명상태교법

명상태교문화원 구본일 원장은 〈명상으로 하는 태교와 육아〉(우리출판사)에서 "태교는 태아를 잘 길들이는 교육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태(胎)를 잘 기르는 것"이라며 "어머니의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명상"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태교가 생명 그리고 정신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한다. 때문에 부모 되는 '나'의 본래 마음자리와 깨끗한 심성을 가꾸어야 하며 그것은 단순히 열 달의 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명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똑똑한 아이를 기르겠다는 일념에서 강권하듯 태아에게 음악을 들려주거나 영어를 읽어주는 등의 태교는 오히려 해롭다고 말한다.

그가 주장하는 명상태교는 하루 15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때 자아를 반성할 수 있고 감사의 마음이 싹트면서 심성이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러할 때, 부수적으로 집중력과 두뇌 기능이 향상된다고 한다. 구본일 원장의 명상 태교법을 배워보자.

명상 태교 준비

명상을 위한 장소는 자신이 안정을 느끼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다.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고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 곳이 집중하기에 좋다.

하루 중 명상에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이다.

처음 명상을 시작할 때는 집에서 혼자 실천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몸 풀기

명상을 하기 전에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벼운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①양팔을 쭉 펴서 위로 올린 후 천천히 내린다. 팔을 올릴 때 숨을 들이쉬고 팔을 내릴 때 숨을 내쉰다.

②발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양손을 깍지 낀 다음 팔을 앞뒤 위아래로 쭉 편다. 목을 천천히 회전시킨다.

③앉아서 다리를 펴고 상체를 무릎까지 닿게 구부려 등의 근육을 부드럽게 해준다. 왼손으로 오른쪽 발을 잡아 옆구리 근육을 부드럽게 한다. 호흡을 조절하며 천천히 반대편도 한다.

④양팔을 뒤로 해서 지탱하고 앉아 발목을 돌리고 발가락에 힘을 주어 앞으로 당기고 뒤로 젖히는 운동을 반복한다. 배에 무리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어머니 마음 건강이 바람직한 태교
강제로 음악 들려주기 오히려 해로워

명상태교법

①방석에서 엉덩이가 닿는 부분에 방석을 하나 덧대든지 접는다. 엉덩이 부분이 약간 높으면 다리와 허리에 힘이 덜 들어간다.

②다리는 결가부좌나 반가부좌가 좋으나 힘들 경우에는 가벼운 책상다리로 앉는다.

③등을 곧게 세우고 몸에 힘을 빼서 편안한 상태를 취한다. 배에 힘이 들어가면 태반이 딱딱해지고 태아가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④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고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거나 가운데 모아 양 엄지손가락을 살짝 맞붙인다.

⑤눈은 완전히 감거나 반개하는데 시선은 방바닥의 1m 정도 전방을 바라본다.

⑥입은 꾹 다물지 말고 가볍게 입술을 붙이고, 혀는 끝부분을 윗니와 입천장 경계선에 가볍게 붙인다.

⑦처음 명상태교를 하는 사람들은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들숨 날숨을 쉰다.

호흡에 너무 매달리다보면 태아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호흡을 강요하게 되므로 인위적으로 호흡을 조작하지 않는다.

⑧매일 명상을 하고 난 후에는 명상을 하면서 느꼈던 체험을 기록해둔다. 명상일기를 명상지도자에게 보여주고 지도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여성인권유린 대책위 발족

불교 등 23개 종교 · 사회단체 참여, 여성인권보호

지난 2월 발생한 LG직원에 의한 비구니 스님 폭행사건 등 공권력과 기업에 의한 여성 성직자와 노동자 폭행사건 해결을 위한 '여성인권 짓밟는 공권력 오남용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1일 서울 광화문 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발족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최근 발생한 비구니스님에 대한 폭행방조, 여성노조원에 대한 알몸수색 등 어쳐구니 없는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사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경찰청장의 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공권력에 의한 여성 폭행 사건 진상 알리기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서명운동과 법률적 대응 방안 마련 △경찰청과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사이버 시위 등을 통해 여성인권 보호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책위에는 한국불교조계종비구니회,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과 천주교, 개신교 단체 등 모두 23개 종교 · 사회단체들이 참여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조선시대 스님 형상화
'브론즈 인형' 나왔다

조선시대 승복을 그대로 재현한 브론즈 인형이 나왔다. 이 인형은 청동을 이용해 조선시대의 스님을 형상화한 것으로 가사와 장삼을 입고 있다.

조선시대 승복은 길이가 길고 소매가 넓은

클릭!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장삼과 장방형의 삼베를 25조로 나누고, 각 조마다 가로로 다섯 칸을 나누어 총 125개의 조각을 이어 붙인 25조 가사로 이루어져 있다. 인터넷 불교용품전문점 마하몰에서 판매한다. 값 15만5천원.02)732-1520



신행담

제7회 신행수기 당선작

관음종 총무원장상

그림자 (下)



저승길 경험 … 불행 극복 힘 얻어
새벽 2시 천수경 독경 · 참회기도

고통스러운 투병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5월 중순에 떠난 내 집으로 다음해 3월 하순에 돌아왔다. 비록 간병을 요하는 몸이지만, 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던 내가 허무와 무상, 칼날 같은 고통을 배우고 살아서 왔다.

지금 나는 집안에 파리가 한 마리 들어오면 며칠 놀다 없어지기에 그냥 두고 본다. 귀여운 외손자의 배설물 냄새에 개미가 들어와도 그냥 쓸어 밖으로 보내곤 한다. 미물도 인연 따라 왔다 가는 우리 집 손님이기에 잡아 죽인다고 없어질 것은 아닌 것 같다.

지아비는 나보다 훨씬 늦게 불문에 귀의했지만 목탁까지 치며 법회를 진행하신다. 그리고 1년 동안 공부해 3회 포교사 시험에 합격하시는 등 불교에 몰입하신다. 평소에는 수저까지 들어 주어야 그것도 신문 보면서 식사하던 분이 이제는 옥상에서 큰 빨래는 말려 오고 설거지도 직접 하시면서 "빛 값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려" 하신다.

저승기행은 꿈이었다. 하나 현실과 차이가 없으니 경험한 자신을 이승사람에게 보시하기 위해서다. 삼라만상 어느 것 하나 존귀하지 않은 게 없다. 저승은 뜨거운 것도 아니요 무서운 것도 아니요 흑암바다에 빠진다 해도 찰나의 움직임이 있다. 불덩어리라고 했던 기둥을 안아보니 따스한 예쁜 색채였다. 이승에서 어르신들께서 저승보관창고를 얘기 하시는게 바로 손바닥 크기의 나의 행위만 기록된 것을 말하시는 것 같다.

나는 남보다는 조금 먼저 저승기행을 했다. 그로 인해 험한 불행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왔다. 이제는 확실히 웃으며 저승사자를 따라 갈 수 있다. 그때 더 자세히 물어 보았다면 더 쉽게 얘기 할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

나는 능엄경을 좋아해 크게 오차 없이 소화하고 있다. 가끔 죽어 가면서도 목숨을 담보로 기도에 들어가서 의문점을 보곤 한다. 기도 시작과 함께 밥 한 공기를 3등분해서 뭍에 말아 먹고 반찬은 물김치만 먹는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촛불을 켜고 천수경을 음미하면서 읽는다. 읽기는 마치면 촛불은 끄고 향불만 켜놓은 상태로 관세음보살과 정근을 한다. 참회기도와 반야심경을 새벽 4시경에 끝낸다. 마지막 회향 기도 시간에 슬라이드 화면처럼 분명하게 직경 30cm, 정확하게 녹두알 크기의 향빛에서 원추형으로 벽면을 비춘다. 이때 나는 눈도 깜박이지 않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본다.

전부 내 탓이다. 타인의 탓이 하나도 없다. 한때는 백치처럼 살았던 여생에 지아비와 시부모를 원망하여 울며 통곡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것이 저승길을 경험 한 후 좋은 습으로 바뀌었다. 그림자는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보인다 안보인다 할 뿐."(끝)

장원각성(광주시 서구 농성2동)

'2002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

참 가 자 모 집 공 고

학생봉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인성개발과 공동체의식 및 자원봉사정신을 고취시키며,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모집구분

차수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인원(선착순)	모집대상	활동내용	활동시간
1차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효 실천의 날	6월 23일(일) AM9:30 ~ PM 4:30	예명양로원	100명	청소년	어르신들 점심대접 및 양로원 청소등	총 7시간
2차	장애인과 하나되어 (수영교실)	8월 25일(일) AM9:00 ~ PM 4:00	곰두리 수영센터	100명	청소년	지체장애인 식사보조 및 수영활동보조 등	총11시간 시전교육4시간 수영교실7시간
3차	외국인과 함께 우리문화 보존하기	9월 15일(일) AM8:00 ~ PM 2:00	탑골공원 및 종묘	230명	국내거주외국인 일반인 및 청소년과가족	문화재 청소, 주변환경 정화활동	총 5시간
4차	함께하는 밝은 세상 (시각장애인용 도서 제작)	7월 ~ 12월	본회사무국	100명	청소년 ※컴퓨터워드 작업 가능자	시각장애인용 점자 도서 제작	총 20시간

◈ 접수기간 : 제1차 - 6월 20일 / 제2차 - 8월 10일(8월 15일 자원봉사자 사전교육)
제3차 - 9월 10일 / 제4차 - 7월 20일(7월 27일 자원봉사자 사전교육)

◈ 주 최 :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 ◈ 후 원 : 서울특별시, 현대불교신문사

◈ 접수및문의 :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9-1 상운중심 3층
TEL : (02) 737-9260, 735-8165 / FAX : (02) 722-6623
E-mail : yeba@chollian.net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2001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판매!

현대불교신문 2001년 합본집을 판매합니다.

현대불교신문에는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내 용 : 2001년도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301호~349호)
- 판 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55cm)
- 방 법 : 전화 신청 / 입금확인 후 택배 발송
- 가 격 : 60,000원 (발송비: 지역별 3천원~7천원)
- 입금구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 민 245-25-0001-461, 농 협 053-01-236053,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전화 : 02)737-0090 直 02)737-8881 代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 합본 4호 ('98)와 6호 ('00)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호 구입가격은 50,000원 (발송비 : 지역별 3천원~7천원)입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배우자 구함
가축인공수정소를 운영하고 있는 41세 미혼남성입니다
평생을 불심으로 함께 할 미혼여성을 원함
018)415-0086

강원도 산속의 사찰입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세 상운사
033)482-3382~4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 은 **연락** 바랍니다
051)462-7374
018)523-7374

부전스님 모십니다
017)560-6676
053)252-3986

불화를 그리며 생활하는 보살입니다
평생 불심으로 함께 하실 배우자 구합니다.
(男, 51세 이하)
019)553-3256

무료 명상수련
'삿상' 개원 1주년 기념
일시 : 7.3 ~ 7.7 (4박 5일)
장소 : 경기 광주시 퇴촌면 전화신청(선착순마감)
전화 : 031-768-7180
명상수련원 삿상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각종 행사 문안 작성
설법 · 법문 · 발원문
권선문 · 축사 · 인사말
출판제작(법요집)
글 밭 농 원
전화 02)312-6636
팩스 02)393-6606

대표 김정현
◇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상업공간, 광장
◇상가, 병원, 학원
◇신축, 개축, 보수
◇조립식, 칸막이, 건물
◇도장공사
TEL : 02)683-4631
FAX : 02)683-4632
H·P : 011)412-0051
동방인테리어건축

사주학의 최고봉
기문둔갑 강좌
수강생 모집. 명리 무료강의 : 미래를 예측하고 운기(運氣)를 조정하는 역학의 최고봉
"정통 기문 대가 直講
현재 불교 방송국 개강
초중연구 3개월 금요일
문의처 : 02-703-0108
휴대폰 : 011-775-8709

수려한 산새와 공기좋은 도량에 공덕을 쌓으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545-237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성북구, 종로구
나이 : 50세 ~60세사이
주민등록등본 지참
02)379-8544

삼명 수려한 도량입니다
공부, 기도 요양 하실 분 모십니다
청 강 사
055)932-5706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천안 보현사
60세 미만
041)554-8486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경남 거창군 덕유산 입구 소재 사찰 터 싸게 내려 합니다
016)857-4500

행자스님 구합니다
수락산 백운사
02)939-022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77-7514

신심깊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가족처럼 불심으로 사실분 연락주십시요
(서울시내)
02)2238-3285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중·대·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정릉 보림사
02)914-6187

부산 근교 경관이 수려함 부전스님 모십니다
018)581-1155

사 찰 안 내

• 위 치 : 논산	• 위 치 : 서울	• 위 치 : 부산
• 법 당 : 20평	• 법 당 : 27평	• 법 당 : 23평
• 요 사 : 100평	• 요 사 : 110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900평	• 부 지 : 175평	• 부 지 : 166평
• 가 액 : 4억 3천	• 가 액 : 9억	• 가 액 : 3억 7천

※ 전국사찰, 포교당대량보유, 양도·운양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인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20분거리 원주 새말 IC에서 10분거리
• 건평 : 약 100평, 대웅전 30평 요사채 큰방 5개, 산신각(5평)
납골당 100개 향나무 시설 완비
• 특징 : 산세좋고, 기도처로 최적 사용가능 부지 약 1000평
• 가액 : 1억 5천(전세)
오래계실스님을 원합니다
011)771-5597
033)345-5597

암자전원주택지안내
• 대지 : 603평 조경완비 1억 9천만원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당진리
• 대지 : 314평 조경완비 1억 4천만원
• 위치 :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208번지 주인직거래, 각각 별도 매매
018)315-9080

포교원 (특혜) 안내
• 소재지 : 대구시내 중심지역
• 특혜 : 본사찰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간 수행하다가 인수조건이 구비될때 인수하실 참신한 스님
011)458-295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건물 : 4층 건물 중 3층 50평
• 법당, 주방, 방 3개
• 주차장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 46만원
• 시설비 2천만원 절충가능
017)843-9144

약 사 암
원인모르게 병고에 시달리는분
가정에 우환이 많은 분들
상담바람
02)796-8514

권 대창불교건축 권 대 창 목 재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781-4989
H P 016)768-4324
011)246-2210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토굴 안내
• 위치 : 김천(추풍령 10분거리, 김천역 15분 거리)
• 전답 1천 500평
• 대지 : 300평 • 집 : 27평 (마당까지 차량진입 가능)
• 가액 : 8천 2백만원
※ 산 4만 4천 500평(평당 2500원)
011)465-1017
054)432-245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북 왜관시내 중심가
• 건물 : 2층 건물 중 2층 (70평, 방 2, 주방 1)
• 시설완벽, 포교당최적지,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822-9622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 부평
• 건물 : 4층 건물 중 3층(34평)
• 법당, 주방, 주지실 별도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1200만원 결정 가능
011)577-2251

토굴 안내
• 충북 단양읍 소재 유진 빌라 6동 306호 14평 3층
개인적인 학문연구나 건강휴양처로써 나만의 공간이되어 걸망 풀어놓고 편히 쉴 수 있는 토굴이라 생각하고 마련할 스님이나 불자님은 연락바랍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 입니다.
• 가액 2100만원
011)9770-1581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해인사 055) 932-7252 김창본
신부락 011) 545-7252 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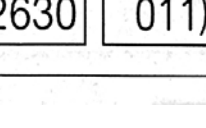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홍성 소재
• 부지 : 3,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양도가 : 2억
• 산새 좋은 정진 도량임
• 위치 : 서울근교
• 대지 : 85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양도가 : 5억 8천
• 산새 및 계곡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최요지 사찰
• 대지 : 1000평 • 법당 : 40평
• 용왕당 요사 50평 후원식당 30평 주차장 150평
• 공시시가 평당 150만원
꼭 하실분 전화요망
절충가능
011)811-360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반성면
• 대지 : 204평 밭 110평
• 건물 법당 용왕 산신 요사 2채
• 가격 1억 3천만원
011)9526-9693

사찰 터 안내
• 주위 경관 수려하며 절터로서 최상급 임
• 경북 영주시 소재(시내에서 10분 거리)
• 전 : 약 730평 (실평수 1천평 내외) 현재 1차공사로 터 조성과 전기+지하수관정, 시공한 상태 임
• 가액 5300만원(절충가능)
011)9770-1581

포교당 안내
• 불심이 깊은 수원에서 포교당 하실 스님
• 삼존불, 후불신중 · 지장 · 칠성탱화
• 3층건물에 2층 20평 (법당 15평, 스님방 5평)
• 주방시설 완비, 수원역 5분거리 수원도청입구 대로변
•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
• 시설비 700만원
031)257-6622
011)313-0206

장수건강
돌침대 볼大할인
잠자리 바꿔 보세요 - 건강이보입니다
좋은 잠자리가 보약입니다.(사계절용)
돌침대는 세멘바닥의 사기(邪氣)와수맥을 막아줍니다.

▲싱글보료
02)424-9427
장수건강온돌(리빙스톤)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육모정 근처 • 대지 : 1200평 중 종교부지 : 300평
• 전 : 700평 [하천부지 : 300평, 주택지 : 283평 사용가능]
• 대웅전 : 20평 • 산신각 : 4평 • 독성각 : 2평
• 요사채 2동 방 4개 조립식 건물 • 회의실 : 13평 1동
• 현시세 신축건물 매매가격 3억만원(절충가능)
• 불사 할 수 있는 도량. 스님 및 법사님 환영
063)625-9992 011)9642-8833 011)9642-1202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에서 10분거리 상단 중단 칠성 산신용왕 탱화 및 불상 사리 3과
• 시설 및 살림도구 일체
• 대지 : 110평
• 가액 : 3800만원
054)833-8779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 부지 : 약 100평
• 건물 2층 2동
• 법당 20평
• 특징 : 범종각 9층석탑 텃밭 전통사찰 법당
• 가액 : 4억
011)9775-1156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스키장 근처
• 부지 1300평
• 건물 : 25평 55평 20평 3동
• 산세수려하고 전망이 좋음 납골당도 가능
• 가액 4억
031)533-2420

사찰 안내
• 위치 : 안성시 일죽면
•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방 3칸 거실 큼 주방따로 전체 면적 680평 기름보일러
• 가액 : 전세 3000만원
017)324-3892

사찰 양도 안내
• 부지(종교용지) : 2013坪 • 法堂 : 13평
• 요사채 : 20坪 매가 : 8억 5천만원 • 위치 : 서해안
• 특징 : 1. 1400년된 전통사찰(사지)
2. 마이여래불(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성연대 고려말로 추정)
3. 암반약수(수량풍부) 4. 자동차 진입 가능
5.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람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한 대찰터임
6. 지방 문화재 보전 사업비 지원 사찰임
사찰정보센터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 안강
• 면적 : 85평
• 법당 : 25평
• 요사 : 35평 (신도관리가 용이한 도심사찰)
• 양도가 : 2억 5천

토굴안내
• 위치 : 밀양시 상동면
• 면접 : 379평
• 요사 : 20평 (종수만점의 마을인근 토굴)
• 양도가 : 1억 5천

촌집 안내
• 위치 : 울부 웅촌
• 면접 : 155평
• 가옥 : 20평(자연녹지) (토굴로 개조 가능한 외딴집)
• 양도가 : 9천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토굴안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 법당겸 요사채 50여평 산신각 7평
※ 종중땅임(400여평 사용) 절앞소방도로 확정되었으므로 내년이면 차량진입이 가능
심야보일러 온수보일러 설치
• 가액 : 9천 5백만원(절충가)
011)9770-6598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신암동
• 법당 : 2 · 3층(약 50평)
• 특징 : 삼존부처님, 문수보살님 그외 여러 부처님 모심(완벽한 법당 내부시설)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별도 : 6천만원 (현장방문 후 가액조정)
성 불 사
011)398-9807
053)957-9551

사찰 안내
• 절입구 도량내에 소나무가 울창하고 산수경관이 수려한 기도도량 임
• 위치 : 부산 약 30분 울산 약 15분 양산시 웅산읍 서창리 대운산 탑자골
• 면적 약 600평
• 극락전 지장전 용왕전 삼성각 요사채 2동
• 가액 : 3억 5천
055)386-7463
016)355-4264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덕산 옆
•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20평(새건축)
• 대지 : 640평
• 70년 전통의 물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사 찰 안 내
• 위 치 : 수원근교 • 대지 : 100평
• 법 당 : 15평 • 요사 : 20평
• 가액 : 1억 2천 만원
※ 사찰 암자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 부지 : 1300평중 대 200평(국유지 80,000평 매입가능)
• 건물 : 약 20평 • 시설 : 전기 전화 완공
• 허가 : 형질변경 필 전용허가 필 건축물대장 필 • 시가 : 45000만원
• 특징 : 바위밑에 대웅전터지 어느 재상이 먹고 나았다는 석간 약수 또는 200명 양의 식수, 7미터 락차에 폭포수예정지 또는 반석위로 흐르는 서출 동유수 지리학상 수천명이 운집할 만한 자리인지는 직접 관찰하시는 분에게 달려있고 70 고령노장은 수행 대덕을 찾으며 본인이 직접 하실 분만 관찰 하십시요!
※ 공주 - 천안간 4차선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10분거리
연락처 : 041)858-1331

사찰 안내
• 전철역 10분거리 버스종점에서 5분거리
• 대지 : 38평
• 특징 : 주택가이면서 주변녹지가 있고 전원주택 같은 외관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한눈에 들어오는 경관수려
• 가액 : 1억 2천만원
016)481-6909
019)276-2388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통령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터어 아주 좋음
• 가액 : 3000만원(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사찰 급안내
• 위치 : 화성시 팔탄(도로근접)
• 법당 : 23평
• 산신당 5평, 요사채 70평
• 부지 : 240평
• 가액 : 3억 절충가능
- 관심있는 분만 전화요망 -
011)785-567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2층 건물 37평, 1층 요사채 2층 임법당
• 가액 5,500만원(융자있음)
※ 지하수, 뒷편공원, 교통편리 거의 새집
061)762-2630

암자 용도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근교, 대구서 50분 ~ 1시간
• 부지 : 밭 600평, 중심에 대지 150평 + 계곡부지
• 건물 : 신축한옥 30평 (큰방 2, 작은방 2, 큰마루, 부엌, 화장실) 외 창고 12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마당앞엔 사철 흐르는 청정계곡이 있고 마당까지 큰차진입
• 가액 : 7800만원(실제공사비)
054)337-5156
011)9857-5156

불교 이래서 좋다

박민지 대구가톨릭대 불교학생회장

"다른사람 탓하지 않게 돼"



불교가 왜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떠올랐다. 분명 나에게는 불교가 왜 좋은지에 대한 수십 가지의 대답이 있었지만, 그 대답을 어떻게 표현해야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지 무척이나 어렵게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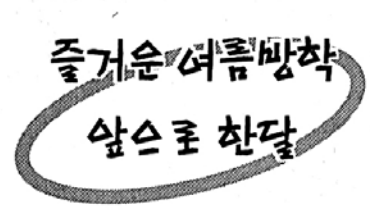
우선, 내가 처음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은 불교가 좋아서라는 막연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저 사찰의 아름다운 단청과 건축 양식, 그리고 법당 안의 향 내음이 좋아 불교학생회에 들면 사찰에 자주 갈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불교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내 안의 불성을 깨달아 수행 정진하여 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아둔한 나로서는 우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즐거운 일인 것이다.

내가 배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구나, ~겠지"라는 표현이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라도 이렇게 행동했겠지. 나와는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보며 실망하고 괴로워했던 나에게 "~구나, ~겠지"의 마음은 늘 남의 탓만 하던 내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게 되고, 작게나마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다 준 행복의 비결이다.

나는 불교가 좋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불교가 좋다. 그리고 증오와 미움 속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도록 일러주는 불교가 좋다. 앞으로도 불교를 좋아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불어 다른 이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수행 정진해나가겠다.

사찰 ·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다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여름방학을 앞두고 전국의 각 사찰을 비롯해, 지역 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단체들은 역사문화탐방, 독립영화 제작, 자원봉사활동 등 '테마' 중심의 이색캠프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표 참조>



'테마' 중심 이색캠프 · 수련회

올해는 예년에 수련회의 주류를 이루던 3~4일간 '맛보기' 식 수련회를 탈피, 과감히 4주 동안 삭발 출가하는 청소년 단기출가수련회, 한문학당, 효행불교학교 등 특화된 '불교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독립영화를 감상하고, 영화감독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영상세대를 이끌고 있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춘 영상캠프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관장 범산)은 올해 들어 세번째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경남 하동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영상창작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시나리오를 직접 써 영상창작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 활동, 영화와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경륜)은 서울종합촬영소 방문, 영상 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제1회 청소년 영상캠프'를 8월 1일부터 4일까지 연다.

장애인시설 및 농촌을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 캠프 등도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부산지부(지부장 성오)는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삼랑진 여여정사에서 '흙사랑 농촌봉사활동캠프'를 연다. '벌레가 친구 되는 자연체험'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서는 농작물 기르기, 김매기, 짚신 짜기 등 체험중심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8월 1일부터 2일까지 장애인 복지시설을 탐방해, 장애체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제4회 청소년봉사캠프를 마련했고, 청소년교화연합회 대전지부는 7~8월 중에 '2002 농촌봉사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맛보기' 식 탈피… 4주 단기출가 등 특화
영상창작 · 농촌봉사활동 · 국토순례 등

지역 역사 · 문화 및 자연문화 탐방, 국토순례 등 청소년들이 '발'로 찾아가는 캠프도 준비되고 있다.

비로자나 청소년협회(회장 혜명, 이하 비로자나)는 '밀교의 숨결을 찾아서'란 주제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울릉도 전역을 도는 '제3회 비로자나 청소년 국토순례 대행진'을 개최한다. 곧이어 비로자나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후원으로 '어깨동무 자연탐사-동강 탐사'를 강원도 영월 일대로 떠난다.

청소년 담당=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주요사찰 · 복지관 '여름방학캠프'

기관명	캠프명	일정	참가예상인원	참가비	문의
구로사회복지관	오대산 별빛캠프	8.2~3	초등생 80명	3만원	02-852-0525
옥수사회복지관	제4회 청소년봉사캠프	8.1~2	중고등생 30명	3만원	02-2282-1100
	아동캠프	6.25~26	초등생 100명	3만원	02-2282-1100
목동청소년수련관	제1회 청소년영상캠프	8.1~4	고등생 20명	2만원	02-2646-6815
제천청소년수련관	레프팅수상훈련 캠프	7.19	초중고생 6000여명	5만원	043-651-7474
양정청소년수련관	제3회청소년영상창작캠프	7.24~26	중고생 70명	5만원	051-868-0750
파라미타 청소년협 부산지부	흙사랑 농촌봉사활동캠프	7.22~25	중고생 120명	4만원	051-853-2445
파라미타 청소년협 대구지부	제4회 청소년역사문화탐방	7.22~24	중고생 150명	무료	053-254-5669
비로자나 청소년협	제3회 국토순례대행진	7.24~27	중고생 80명	4만원	02-942-0635
〃	어깨동무 자연탐사캠프	8.1~3	중고생 40명	무료	〃
청소년교화연합회 대전지부	2002 농촌봉사활동	7~8월중	고등생 50명	미정	042-488-0733
〃	2002 청소년문화학교	7~8월중	고등생 250명	미정	042-488-0733
조계사	청소년 수련대회	7월말~8월초	중고생 50명	2만원	02-732-2115
삼보사	청소년문화체험	7.22~30	재외동포청소년	미정	02-352-6406
용주사	청소년효행불교학교	7.24~26	중고생 60명	3만원	031-234-0040
칠불선원	여름선수련회	7.27~26	중고생 무제한	5만원	033-432-3312
골굽사	선무도수련회	수시로	중고생 150명	6만원	054-744-1689
백련암	청소년단기출가수련회	7.23~8.18(4주간)	중고생 15명	30만원	051-253-0277
통도사	열린수행열린마음	8.2~5	중고생 100명	5만원	055-382-7182
미황사	한문학당	7.25~8.1	초중등생 40명	15만원	061-533-3521
봉선사	여름숲속학교	7.20~22	초등학생 50명	4만원	031-527-5974
원명선원	삼매체험수련회	7.4~5	유치원생 50명	미정	064-755-3322

청소년 단신

어린이 문화재그리기대회

'제15회 어린이 문화재그리기대회'가 24일 오후 2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광주광역시 등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어린이들이 문화재를 직접 보고 느낀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마련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초등학교 학생 중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는 20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7월 1일 심사를 거쳐 8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을 비롯한 4개 부문 61명의 입상자를 발표한다. 시상식은 7월 27일 오후 2시 국립광주박물관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062)570-7006~12, FAX (062)570-7015, E-mail : ginm@gwangju.museum.go.kr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운광)는 22일~23일까지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제29회 여름불교학교지도자를 위한 강습회를 개최한다.

'세계로 가는 기차'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강습회에서는 찬불동요, 월드컵 송과 함께 포크댄스, 포크댄스, 21C 버전세계의 명랑 운동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참가비는 일반인 4만원, 협회 회원 3만원. (02)738-7860

담배를 끊읍시다

담배보다 좋은일 7가지

① 저금 :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돈이 절약된다. 평생 피울 담배, 라이터 값을 생각해 보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는 말.

② 향수 뿌리기 : 담배를 오래 피웠거나 많이 피우면 몸에 니코틴 냄새가 배 텁텁하고 독한 냄새가 나지만, 좋아하는 향의 향수를 몇 가지 준비해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살짝 뿌려보면 하루가 상쾌해 진다.

③ 마사지 : 남자든 여자든 요즘엔 자신의 피부를 중히 여기는 추세. 남보다 깨끗한 피부를….

④ 샤워나 목욕 : 하루의 피로를 씻는 데는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⑤ 수다 떨기 :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스트레스 해소라는데, 수다떨기보다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없다. 평소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과 신나게 한번 떠들어 본다.

⑥ 천연과즙이나 야채즙 마시기 : 싱싱한 과일이나 야채를 한바구니 씻어다가 식구들, 혹은 친구들과 한 잔씩 마셔 본다. 건강에도 좋고 사이도 더 좋아질 것이다.

⑦ 심호흡과 맨손체조 : 스트레스 대처에 가장 필수적인 것인 이완(relaxation)이다. 학업이나 업무 중에도 잠시 짬을 내 심호흡과 맨손체조를 해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잠시 짬내 심호흡 · 맨손체조를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사이버 '서천법당 법우회'

군종병 출신 청년불자들 모임
군포교소식 · 자료실 등 다양한 코너

"초코파이 하나에 눈물짓던 그때를 그리며, 불국정토의 그 날까지 다시 한번 열심히 정진합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듯 초코파이 하나에 눈물 흘리던 간절한 불심이 사이버 공간에도 활짝 피었다.

2000년 12월 1일 '국군 장병을 부처님의 품으로'라는 기치아래 창립한 서천법당 법우회(운영자 이강우)가 바로 그곳. 강원도 인제군 원통에 위치한 대대급 군법당인 서천법당은 군종법사가 없는 법당으로 대대 및 중대 군종병들이 직접 법회를 주관하며 장병들의 불심을 키우는 조그마한 법당이다. 사이버 서천법당 법우회는 1994년부터 이곳 서천법당에서 군종병으로 근무한 청년불자들이 부처님과의 인연을 후배 장병들에게 회향하고자 만든 모임으로 현재 서천법당 군종병 출신 30여명과 군법사 및 기타 후원자 등 44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이버 '서천법당법우회' 초기화면.

다음카페의 조그맣게 시작한 사이버 서천법당 법우회는 현재 다음카페와 홈페이지(www.suchunbubdang.ce.ro)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서천법당의 후원에 그치고 있는 형편. 그러나 포교의 황금어장이라는 군포교의 중요성 네티즌에게 알리고 앞으로 군법사단과 포교사단 등과 연대해 군불교 후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홈페이지에는 군포교 소식, 금주의 법문, 자료실 등 다양한 코너가 있어 초심 불자는 물론 군불교에 관심이 있는 불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사이버 서천법당 법우회는 온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신행활동도 활발하다.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서울과 부산은 매번 전역한 군종병들과 상견례를 실시하고 매달 한차례 정기법회를 통해 서로의 친목을 다지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후원 : 한빛은행 531-257875-02-002 (예금주: 박도산) 김두식 기자

포교당 인수하실 분
• 시설완벽, 교통편리
• 평수 : 30평
• 위치 : 광명 4거리 도로변
• 가액 : 사정상 급, 가격 절충 가능
011)750-5424
02)2611-7024~5

사찰 급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756-4845

포교원 (특혜) 안내
• 소재지 : 대구시내 중심지역
• 특혜 : 본사찰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간 수행하다가 인수조건이 구비될때 인수하실 참신한 스님
011)458-2955

토굴 안내
• 위치 : 김천(추풍령 10분거리, 김천역 15분 거리)
• 전답 1천 500평
• 대지 : 300평 • 집 : 27평 (마당까지 차량진입 가능)
• 가액 : 8천 2백만원
※ 산 4만 4천 500평(평당 2500원)
011)465-1017
054)432-2457

암자 (급)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안계
• 건평 : 47평(법당 삼존불 칠성 지장 관음 탱화)
• 대지 140평(문중땅 영구 임대)
• 양도가 : 2500만원
• 비구니 스님 수행정진 적합
연 화 암
054)862-5027
011)9590-5027

포교당 안내
• 불심이 깊은 수원에서 포교당 하실 스님
• 삼존불, 후불신중 · 지장 · 칠성탱화
• 3층건물에 2층 20평 (법당 15평, 스님방 5평)
• 주방시설 완비, 수원역 5분거리 수원도청입구 대로변
•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
• 시설비 700만원
031)257-6622
011)313-0206

사찰 안내
• 절입구 도량내에 소나무가 울창하고 산수경관이 수려한 기도도량 임
• 위치 : 부산 약 30분 울산 약 15분 양산시 웅산읍 서창리 대운산 탑자골
• 면적 약 600평
• 극락전 지장전 용왕전 삼성각 요사채 2동
• 가액 : 3억 5천
055)386-7463
016)355-4264

사찰 급 안내
• 위치 : 인성시 죽산면
• 개인소유 420평
• 가액 : 1억 2천만원 8천만원 운영가능
• 임법당 30평 산신각 4평
• 양로원 신축 중 93평
• 1층 53평 2층 40평
011)345-3323

사찰 급 안내
• 위치 : 안성시 죽산면
• 개인소유 420평
• 가액 : 1억 2천만원 8천만원 운영가능
• 임법당 30평 산신각 4평
• 양로원 신축 중 93평
• 1층 53평 2층 40평
011)345-3323

사찰 급안내
• 위치 : 화성시 팔탄(도로근접)
• 법당 : 23평
• 산신당 5평, 요사체 70평
• 부지 : 240평
• 가액 : 3억 절충가능
- 관심있는 분만 전화요망 -
011)785-567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지리산)
• 부지 : 605평, 황토한옥 32평
• 요사 9평, 탑돌레 25m
• 연못, 남향위치, 밭 244평
• 가액 : 1억 3천 (절충가능)
055)963-4965

암자 (급)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안계
• 건평 : 47평(법당 삼존불 칠성 지장 관음 탱화)
• 대지 140평(문중땅 영구 임대)
• 양도가 : 2500만원
• 비구니 스님 수행정진 적합
연 화 암
054)862-5027
011)9590-5027

부처님 말씀 · 깨침의 소리
불교성전
5년간의 준비끝에 새롭게 출간된 불교성전!
오랫동안 불교를 믿거나 공부하고도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불자나 초심자도 『불교성전』을 펼치는 순간 환희와 신심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도 무한 경쟁시대—! 佛法을 바로 알아야 불교를 지킵니다.
중 요 차 례
⊙ 제 1 부 경전의 말씀
제 1 장 서 품 / 제 2 장 교리강령품 / 제 3 장 불 타 품 / 제 4 장 신 앙 품 / 제 5 장 업 연 품 / 제 6 장 자 치 품 / 제 7 장 대 치 품
제 8 장 포 교 품 / 제 9 장 구 경 품
⊙ 제 2 부 간추린불교
제 1 편 부 처 님 / 제 2 편 가 르 침 / 제 3 편 수 도 / 제 4 편 교 단
⊙ 제 3 부 독송경 · 발원문
천수경 · 예불문 · 반야심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원각경보안보살장 / 화엄경보현행원품 / 부모은중경 / 법성게 · 무상계 / 기도발원문 / 천도법어 · 찬불가
4×6판 최고급 호화금장 양장제본
70g 고급 미색 모조 600페이지 값 18,000원
전국 유명서점 및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법보시 및 단체주문시 특별인쇄 공급합니다.
▣ 계좌번호: 농협 053-01-102503 예금주: 김정길
弘法院 (02)739-8745~6



◇6일 금정중학교에서 천마재활원 축구부와 부산보현법우회 자원봉사자팀이 축구경기를 하며 한국 월드컵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오~필승 천-마" "한골 더"

보현회, 장애아·고아·소년소녀가장 한마음운동회

재활원생·자원봉사자 등 즐거운 하루

축구·2인3각경기 승패 상관않고 최선

"오~ 필승! 천-마! 오~ 필승! 천-마!"

6일 금정중학교 운동장에서는 천마재활원 축구부와 부산보현법우회 자원봉사자팀의 축구 경기가 한창이었다. 응원석 곳곳에서 "한골 더!"라는 함성이 터지고 불편한 몸으로 뛰고 있는 천마재활원 선수들의 몸놀림이 더욱 빨라졌다. 드디어 천마팀의 골이 터지고 환호성이 터졌다.

천마재활원 원생들과 성덕원, 소년소녀가장, 부산보현회(회장 안성이) 회원,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한데 어울려 뛰고, 소리 높혀 응원전을 펼친 이날 운동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한마음 운동회.

"하루만이라도 몸이 불편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차별을 없애고 한마음이 되기 위해 한마음 운동회를 열게 됐다"는 안회장의 설명처럼 이날, 곳곳에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어우러져 한마음이 되었다. 때론 부모가 되어주고, 때론 언니, 오빠가 되어 놀아 주었던 회원들과 함께 한 이날 하루만큼은 장애의 불편함도, 부모없는 설움도 끼여들 틈이 없었다. 송글 송글 땀방울이 맺힌 아이들과 이들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회원들의 얼굴에는 한순간도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천마재활원의 축구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축구경기에 이어 2인3각 경기, 피구, 족구, 풍선 터뜨리기, 이어달리기 등의 종목이 펼쳐졌다. 일등이냐, 꼴찌냐를 상관치 않고 푸짐한 상품과 트로피를 안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전해졌다.

이날 운동회를 개최한 부산불교보현회는 올해로 창립 20년을 맞이한 불교신행단체다. 부산불교신협을 비롯 종교를 초월한 후원자들의 정성을 모아 300여명의 회원들이 군부대 방문, 고아원, 소년소녀가장 결연 후원 등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날 운동회에서 정상인들을 상대로 일방적 승리를 거둔 천마재활원 축구부는 산하 청년회인 부산불교보현청년회(회장 전진호)가 10년째 축구 지도를 해온 곳. 청년회의 한결같은 사랑과 봉사로 천마재활원 축구부는 '2001년 아시아 정신지체인 축구대회'에서 세계 3위에 입상하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청년회원들의 이같은 활동이 알려지자 여러 시설에서 축구 지도를 요청해오고 있지만 축구화, 축구복 등 일체 장비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재정적 부담때문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다.

안회장은 "더 많은 장애인들이 한마음 운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게시판

▲자원봉사자 모집=보건복지부는 APEC 장애청소년 IT캠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분야는 통역, 행사보조 등으로 각각 20명, 15명 선발. (02)2636-3423

▲Power1318 가곡경연대회=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은 7월 20일 오후3시 '부산진구청청소년어울마당 power1318 가곡경연대회'를 관내 7층 소극장에서 연다. (051)868-0750

▲발반사요법 자원봉사자 모집=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발반사요법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참가비는 3만원. (02)734-0612~3

▲가정봉사원 모집=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무의탁 독거노인 도우미를 모집한다. (02)929-4663

▲무료법률상담=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1, 3주 화요일 오후 2~5시에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051) 628-6737~9

▲무료 인터넷 카페 개설=능인종합복지관은 무료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다. (02)571-2988

▲이전=인천 피안사회복지관은 1일 인천 남구 숭의동 7-34번지로 이전. (032)881-8226

농촌살리기 '1백인 100일 걷기'

인드라망생명공동체등 54개 도시 순회

'우리쌀 지키기' 주제 릴레이 강연·좌담

불교계 및 시민, 환경단체들이 '1백인 1백일 걷기 운동'을 통해 농산물 수입과 쌀값 폭락 등으로 고통받는 농촌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원불교 천지보은회, 한살림 등 54개 불교·시민·환경 단체 시민들은 오는 30일 전남 진도에서 '1백인 1백일 걷기 운동' 발대식을 갖고 7월 1일 출발, 10월 10일까지 서울 등 54개 도시를 순회하는 국토답사를 실시한다.

'1백인 1백일 걷기 운동'은 농산물 수입 개방 이후 어려움에 처한 농촌 경제를 살리고 쌀 수입 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열리는 것. 이 기간 동안 시민환경단체들은 전주, 대구, 대전, 원주 등지에서 10차례에 걸쳐 '우리쌀 지키기' 주제의 릴레이 강연회와 좌담회를 개최해 쌀 개방의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농산물 개방으로부터 농촌 지키기를 위한 농업회생연대의 발족도 준비하고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이정호 사무처장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의 추가 개방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보상지불제의 확대실시와 농업 협동조합 개혁을 통해 유전자조작농산물(GMO) 등으로부터 농촌과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108배 전법사 된 의사

하동 고려의원 한만택 원장



◇고려의원 한만택원장은 환자를 진단하며 틈나는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

경남 하동 고려의원 한만택(44) 원장은 매일 108배를 하는 등 신심을 닦아 증풍을 이겨낸 것은 물론, 환자들에게 절하면서 병 낫는 법을 가르쳐 화제가 되고 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지극한 정성으로 108배를 하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한 원장의 설명 덕분에 고려의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이 불교에 귀의했다. 심지어 타종교인들이 불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원장이 환자들에게 108배를 권유하고 나선 계기는 자신의 체험에서 비롯됐다. 98년 8월, 한 원장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하고도 다시 쓰러지기를 수차례 하다보니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했다.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한 원장은 그동안의 생활을 참회하며 부처님에게 의지하고자 지극한 마음으로 매일 108배를 했다.

108배를 시작한 후 뇌졸중 후유증으로 나타난 손발의 저림과 어지럼증이 말끔히 사라졌다. 한 원장은

"지극한 절수행 심신 치유"

"108배를 하면 임상학적으로 심신의 안정을 가져와, 피가 맑아지고 순환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른 속도로 분비돼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설명한다. 특히 갱년기 장애와 손발 냉증을 앓고 있는 여성에게는 규칙적인 108배가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으니, 매일 108배 하기를 권했다.

한 원장은 "지극한 마음을 모아 호흡법 따라 정성껏 올리는 108배는 마음의 정화를 가져다주고, 나아가 몸의 정화를 가져와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다스리기와 불퇴전의 정진"이라고 강조했다.

하동=박봉영 기자

대승종 법계품수식 안양 만장사서

대한불교대승종(총무원장 일오)은 8일 안양 만장사에서 법계품수식을 봉행했다. 법효(원로원장), 법정(종회의장), 기현(포교원장) 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모인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봉독, 종정 법어, 법계품수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서 도암 종정스님은 법어를 통해 "스님들이 인천(人天)의 사표가 될 때 불교가 중흥된다"며, "오늘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은 더욱 더



◇8일 안양 만장사에서 열린 대승종 법계품수식.

열심히 정진해 현대화된 실천·생활 불교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품수식에서는 필기시험과 공적심사를 통해 대선 44명, 대덕 14명, 공적심사와 논문을 통해 종덕 15명, 공적심사를 통해 종사 17명 등 총 90명이 법계를 품수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2명의 사미·사미니 금강계단 수계법회도 봉행됐다.

남동우 기자



◇8일 봉행된 동화사주지 지성스님 진산식.

동화사주지 지성스님 통일대불전서 진산식

조계종 제24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진산식이 지난 8일 통일대불전에서 정대 조계종총무원장, 지하 중앙종회의장, 김기욱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1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됐다.

이날 진산식은 삼귀의례, 헌화, 격려사, 취임사, 축사,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의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지성스님은 동화사 승가대학 학사 건립 완성, 대구불교회관의 조속한 완공, 지역 포교활성화 주력 등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총지종령자문위 구성

경관대정사등 위원 7명

총지종은 종정 운영상 중요사안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령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록정 종령은 경관 대정사, 혜산 대정사, 효강 종사, 원봉 종사, 수성 종사, 법장화 지수, 총지화 지수 등 7인을 종령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다 이 어 트
단지 몸매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활기찬 삶과 인생까지 변하게 합니다.
오랜 세월 명산을 오가며 한방에 관심이 많으신 법우스님.
난병의 원인인 비만으로 인하여 다이어트 수요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인 선전광고에 의존하는 현실을 아쉬워하며 순수 한방 약이면서 무독성으로 탁월한 효능이 입증된 한방 다이어트 약을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그동안 2000여명의 복용자 중 95%의 효능이 입증된 전주 W대 한방병원 임상실험 결과 한방다이어트 약은 신진대사 촉진으로 기 순환을 활발히 하여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 속의 유해수분과 지방질 흡수작용을 강하게 하여 한달복용으로 4~5kg 감량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인류의 적인 성인병을 예방하고 비단의 합병증인 관절통을 치료하며 외형적 변화가 놀라워 변화된 모습에 주위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며 본인도 상쾌하고 가벼워진 자신의 몸매에 감탄할 지경입니다.
체중 감량 후 나타나는 요요현상을 다스리는 방지책이 준비되어 있어 다이어트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안성맞춤이라 하겠으나 좋은 만남도 불가의 인연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순이익금을 불사자금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우합장
비만에 특효
(한달 복용 4~5kg 감량)
■ 한달 분 가격 : 30만원
■ 전화 주문 시 택배 무료배송
■ 주문 상담문의 : 011-615-7630
농협 100115-52-232981 김종석

"코골이, 당뇨, 암, 특효"
(코골이 연구 10년)
KBS 2002. 3. 13 토요아침 방영
MBC 1999. 8. 7 고향은 지금
경양위 제365호 특허 13629출원
달마사 백련스님
오랜 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육학+음양오행+신통력+선도특수법+천지 민간 약초로 수년을 연구하신 백련스님
공기오염 자동차 매연 오염된 물 농약에 찌든 채소과일등으로 현대병이 많은 이런 분께 드리겠습니다.
1. 오랜 세월 코골이와, 비염, 축농증 고생하신 분
2. 간 복수찬대, 각종 암 생사에 허덕이시는 분
3. 만성변비, 약 드실 때만 괜찮고 재발 하신 분
4. 당뇨병으로 수년간 고생하신 분
5. 류마치스 관절염, 신경통 산후병 고생하신 분
6. 위장병 고민하신 분
이 제품은 깊은 산중에 자생하는 약초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모든 제품에 효능을 직접 느끼십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달마사 불사에 쓰여집니다.
◉ 단위농협 813015-56-022193 정광채
TEL. 055-385-0065~6
H.P. 011-570-3357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순추복 재질:목화솜 50%
하복 재질:목화솜 50%
1.직삼, 바지, 쪼끼 ₩130,000
적삼형 / 판방형
2.중 방 ₩110,000
3.두루막 ₩120,000
※ 순면(무늬 있는 먹물) ₩130,000
하복 구김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13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조끼·몸배 ₩50,000
셔츠 ₩30,000
라운드형 / 차이나형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지역 대리점 모집

확실한 영가천도
천도재를 해야되나 어디에서 할까 고민하는분
천도재를 여러번 실패하여 영가장애를 해결못한분
얼굴이 어두운분 눈이 맑지않고 탁한분
하시는 일마다 장애가 많은분
영가장애로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해결 못하신분
정토사에서는 100% 영가천도에 성공을 약속합니다
아직 한번에 실수도 없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까지도 알게됩니다.
정토사에서는 아미타 1000일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기도동참 하신분은 100인씩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정토사
TEL 031)771-0227
H.P 016)999111-61



◇동국대 목정배 교수가 12일 동료 교수와 제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퇴임 고별 강연을 가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삼독심·번뇌 녹여버릴 마음속 종말처리장 시급"

목정배 동국대 교수 정년퇴임 고별강연

75년 전임강사로 출발, 석사 50명 키워

9월개강 서울대학원대학 학장에 취임

강의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밖을 서성거렸다. 자리가 없어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동국대 목정배(불교학) 교수가 12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정년퇴임 고불법회를 가졌다. 목 교수는 이날 '인간, 자연, 불교'를 주제로 1시간 동안 고별 강연을 했다. 목 교수가 20여 년 지도교수로 있었던 동국대 불교학생회에서 그의 정년퇴임을 맞아 종강 법회를 확대해 정년퇴임 고불법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고별 강연에는 동국대 불교대학장 보광 스님을 비롯한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 대한불교법사회원, 불교학생회원 등 250여 명이 자리를 지켰다.

목 교수는 강연에서 "인간은 오물이나 오수를 치우기 위해 종말처리장을 만들었지만 사람 마음 썩는 것이 제일 더럽다. 그것은 치울 수도 없다"며 "'아(我)'자를 떼어버리고, 삼독, 번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기 마음속에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 남포동 골목에서 김동화 박사가 쓴 〈불교학 개론〉을 구해 읽고 감명 받아 1958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했다는 목 교수는 1975년 전임 강사로 재직한 이래 석사 50여 명과 20여 명의 제자를 키워냈다. 1962년 재창립 과정에서 20여 년 지도교수를 맡았던 동국대 불교학생회는 동문 수가 1천여 명에 이른다.

평소처럼 열정적인 강연을 마친 목 교수도 불교학생회 제자들이 마련한 감사패를 받고, 자신이 직접 작사·작곡한 '동불가(동국대 불교학생회가)'를 부를 때는 잠시 감회에 젖었다. 정각원은 경희궁 부속건물인 '숭정전'을 동국대로 옮겨와 '정각원'으로 이름을 바꿀 때 실무를 맡았던, 강사시절의 그가 '한번이라도 여기서 강의해 봤으면…'하는 서원을 세웠던 곳이기도 하다.

목 교수는 그러나 40여 년 몸담았던 동국대는 떠나지만 9월 개강하는 서울대학원대학 학장으로 후학 양성의 길을 이어간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새로운 사회복지방법론 모색

서울노인복지센터, 29~30일 워크숍 열어

새로운 사회복지방법론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열린다.

서울노인복지센터(소장 지완)는 29~30일 이틀간 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복지에서의 질적 연구방법론'을 주제로 워크숍을 갖는다.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계량이나 수치 중심으로 수혜자 만족도 등을 조사하던 양적 연구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간의 발달과 이해에 대한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사회복지의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독일 마인츠대 데틀레프 가이즈 교수가 '사회복지에서의 질적 연구' △ 악셀 필하머(마인츠대 연구원)박사가 '객관적 해석학' △실케 바트만(마인츠대 연구원)박사가 '생애사 분석'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이효선 교수가 '도덕적 목소리' 등을 주제로 각각 강의에 나선다.

이에 앞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1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회의실에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하는 세미나를 연다.

지완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 소장)과 차흥봉(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노인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역할'과 '우리나라 노인문제와 사회문화적 통합의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김동일 교수(이화여대 사회학과), 변재관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애인정책개발센터)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철우 기자



◇일심화보살이 동국대 송석구 총장에게 자신의 재산을 기증하고 있다.

80세 이일심화 보살 동국대 아파트 기증

"불교발전에 써달라"

80세 노보살이 불교학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아파트를 기증해 화제다.

이일심화 보살(본명 이명기)은 11일 동국대 송석구 총장을 찾아와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서울 전농동 소재) 한 채를 기증했다. 이 아파트는 일심화 보살이 수십년간 방직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전재산이다.

일심화 보살은 평생 혼자 살면서 모은 전재산을 기증하면서 "평소 불교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불교대학인 동국대에 기증함으로써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국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14개 업체 대표들도 2천8백만원을 모금하여 일산 불교종합병원 건립 기금으로 기부했다.

권형진 기자

"40~50대 보살들 '바른 신행한다'

'기복불교 주범' 잘못된 견해"

재가연대 서울거주 여성불자 설문조사

소위 '치마불교'로 폄하되어 온 40~50대 이상의 여성불자들이 기복불교의 주범이라는 기존 통념과는 달리,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서울지역 25개 사찰, 40~50대, 신행경력 10년 이상의 주부, 중간 정도의 생활 수준에 있는 여성불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여성불자들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이웃과 중생을 위한 기도야말로 진정한 복전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결과는 재가연대가 발행하는 격월간 〈참여불교〉 5·6월호에서 특집으로 다룬 '복을 빌면 복은 오는가'에 자세히 소개돼 있다.

설문내용에 따르면 '가족친지의 무엇이 성취되기를 소원했는가'라는 질문에 43% 이상이 '마음의 평안'(22.8%), '깨달음'(15%), '좋은 사람과의 인연'(5.6%) 등 수행, 마음공부와 연관지어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업번창·학업성취·승진 등을 바라는 기복적 성향은 20%에 불과했다.

또 '불교발전 혹은 사회, 중생을 위해 기도한 경우 주로 무엇을 소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어려운 이웃의 고통해결'(32.8%), '전쟁과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21.2%) 등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불전의 액수와 기도 효험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별로 상관이 없다'(83.7%)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등의 크기와 위치에 따른 소원성취 효험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에도 같은 대답(91.1%)이 나왔다.

'어떤 기도가 가장 공덕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깨달음을 위한 기도'(30.1%),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한 기도'(29.3%)가 가장 공덕이 크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서 상임대표는 "대다수 여성불자들이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대승불교의 기도공덕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앎의 차원을 넘어 '삶'과 '실천'에 이르게 하기 위해, 스님과 재가불자 지도자들이 이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한마음선원, 연등축제 최우수상 수상



◇한마음선원 최선회 신도회부회장이 봉축위원회 집행위원장 원택스님으로부터 최우수상인 봉축상을 받고있다.

조계종 한마음선원이 봉축위원회가 14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개최한 연등축제 시상식서 최우수상인 봉축상을 수상했다.

한마음선원은 우주탑과 수박등, 비파연등 등 새로운 등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연등축제를 한층 풍성하게 했다는 평이다. 우수상인 연등상은 능인선원과 천태종, 장려상인 정진상은 조계사, 보문종, 진관사, 진각종이 각각 수상했다.

행사별 부문상에는 한마음선원 청년회(연등놀이) 한마음선원 중고등학생회(공연포교) 국제포교사회(불교문화마당) 봉은사 무용단(연희단) 혜안스님(불교문화마당) 용호산업(축구공 등 제작)이 각각 받았다.

김원우 기자

고속철 금정·천성산 통과 부산시민대상 여론조사

'금정산 고속철도 통과반대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3일부터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산·천성산 관통에 대한 부산시민 여론조사에 나섰다.

이번 여론조사는 고속철도의 금정산·천성산 통과 문제에 대한 국민의 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대책위는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경부고속철도 대안노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지속적인 여론수렴과 홍보활동을 통해 고속철도의 금정산·천성산 관통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북한산공원 살리기 삼보일배 정진행사

세 걸음 후 한 번 절하는 '삼보일배(三步一拜)' 참회정진을 통해 북한산 지키기 의지를 다지는 행사가 19일 열린다.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저지를 위해 송추에서 정진 중인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과 북한산 회룡사 스님 등 15명의 스님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LG 본사 앞에서 입재식에 들어가, 정부 종합청사와 청와대를 경유해 20일 오후 조계사에서 도착하기까지 '삼보일배'를 통해 북한산을 살리자는 뜻을 시민들에게 전한다.

이번 행사는 북한산 국립공원 등을 살려 청정국토를 후대에게 전하고 지난 3월 26일 조계종 원로회의의 유시를 봉대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20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향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사찰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가 24일 개최키로 한 '북한산 파괴 규탄 범불교도대회'는 26일로 일정이 변경됐다.

강유신 기자

신세대포교 만화로 '불교만화이야기' 창간

'신세대 포교는 이제 만화로.'

대구 영남불교대학 불교만화연구소가 만화 포교지 '불교만화이야기'를 창간했다. 7월1일 창간호가 첫 선을 보이는 '불교 만화이야기'는 신세대가 좋아하는 만화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며, 격월간으로 발간된다. 불교계에서 만화 잡지가 발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 만화이야기'는 일반 불교 잡지와는 달리 주 독자층인 어린이·청소년의 취향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 특징. 불교설화, 큰스님 이야기, 생활 법문, 학생들 작품 소개, 불교문화계 소식 등 다양한 불교만화와 불거리를 통해 재미있으면서도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교공부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합시다' 코너를 삽입해 법회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모든 지면을 컬러로 제작, 다양한 색채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했으며, 80쪽 분량으로 읽는 부담을 덜었다.

불교만화연구소는 '불교만화이야기'가 포교지로 제작되는 만큼 전국의 어린이·청소년 법회와 각 학교 학생회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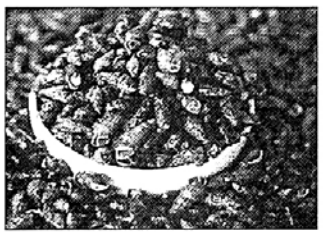
한명우 기자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성모암 능제 연꽃축제 및 수륙방생 천도재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조선 명종때 불거촌에서 탄생하신 진묵대사님은 동양의 소 석가라하여 진나라 능인적묵(能印寂默)의 자리에 오르사 진묵이라 청송하여 후대에 업적이 길이남아 우러러 전한다 그중 만경의 능제에 남기신 행적은 하도 기이하여 구전됨에 후학들이 아래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행중에 밝은 혜안으로 보니 지금의 능제 저수지에 고기잡이하는 처사님과 아이들을보고 황급히 달려가 야단을 치니 처사님들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되려 매운탕을 권하며 대사를 능하여 이에 대사는 받아먹고 용변으로 죽은 물고기를 살아숨쉬는 고기로 다시 방생하는 기이한 행적을 보이사 모두 놀라 엎드려 절하며 참회 하였다 전합니다.

바로 그곳 능제 저수지에 지금은 연꽃이 만발함에 축제를 열고 수륙 천도제와 방생법회를 봉행하오니 모두 참석하시길 모든 대중에게 아룁니다.

성모암 대중일동

■ 일시 : 2002년 7월 17일 수요일 11시

■ 장소 : 능제 연꽃 축제 대행사장

※모든 방생물은 주최인 성모암에서 준비하며 자라, 청거북, 가물치, 등등 방생금지 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점심은 성모암에서 일괄 무료로 준비하오니 사찰에서 동참하시는 스님께서는 미리 전화주시길 부탁 합니다.

연락처 : 성모암 종무소

Tel. 063)544-0416, Fax. 063)542-6991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폐사지를 찾아서

장지연의

잊혀진가람 탐험

원주 거돈사 터



고려초 법안종 중심사찰
대표적 폐사지로 꼽혀

거돈사(居頓寺)터. 전국의 폐사지 가운데서도 대표적 폐사지로 손꼽히는 바로 그 절터다. 분명 폐사지이기는 한데 황량한 느낌보다는 꽉 채워진 정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여느 폐사지를 답사할 때와는 사뭇 그 느낌이 다르다. 공허가 주는 충만함, 바로 그 재미에 오늘도 폐사지를 찾는 부류가 생겨나고, 거돈사 터는 그 버릇을 들이는 첫 관문의 노릇을 하는 것이다.

만신의 무속인들이 돗자리를 들고 신령한 기도처를 찾아 헤매듯 폐사지 답사 여행도 무엇엔가 홀려 산하를 뒤지는 반쯤은 제 정신이 아닌 짓이다. 언젠가 세월의 저쪽에서 향촉을 밝히고 소지(燒紙)를 올렸던 흔적들, 그 불탄 영험들이 시무상주(是無上呪) 시무등등주(是無等等呪)가 되어 21세기에도 손길을 뻗치는 것이다.

남한강 가에 널려있는 무수한 절터들을 알일이 다 살피기는 어렵다. 원주 문막 일대만 해도 지난 371호에 다녀온 법천사를 비롯 거돈사, 흥법사 등 이름하여 3대 폐사지가 있고, 목계나루 청룡사 터, 안성 봉업사 터, 충주 중원의 탑평리7층석탑, 여주의 고달사 터와 이포나루 계신리 마애불, 수몰된 정토사 터, 또 오갑사 터를 비롯해 하남 천왕사터까지 세월의 물살에 휩쓸려 강나루 물밥 같은 무수한 폐사지들이 물길을 따라 널려있다. 모두가 하나같이 나말여초에 건립되어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어느 시기에 폐사되었는지 알 수 없는, 비밀과 아픔을 간직한 절터 들이다.

거돈사 터 역시 자작고개 하나를 넘어 법천사지 지척에 있고, 조금만 강 기슭을 거스르면 갈참나무 숲속에 오롯히 숨겨져 있는 청룡사 터와 탑평리 석탑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런 갓들을 모두 다 답아내기에는 허락된 것들이 여의치 않아 그냥 거돈사 터에 이른다.

거돈사 터에 닿으면 언제나 변함없이 반겨주는 수령 천년의 느티나무가 있다. 석축과 함께 늙은 몸을 뒤틀며 절터를 떠받친 거돈사 터의 늠름한 수호신이다. 그러고 보면 여주 고달사터에도, 고개 넘어 법천사터에도 우람한 느티나무들이 버티고 서 있다. 세월을 거스르는 데는 느티나무 만한 것이 없다. 건당(建幢)이고, 방부(房仆)이고 간에 그저 고목의 그늘 아래서 쉬었다 가라는 옛 주인들의 배려일까. 거돈사터 느티나무는 그 중 연장자로, 수령 1천년이 넘는 것이며 그 생김만 보아도 길 쪽에서는 허리까지 석축에 잠긴 반 지하 상태이고, 절터 쪽에서 보면 지상으로 죽지를 뻗어 1만여 평 사지를 넉넉히 품을 태세다.

법천사와 거돈사, 두 절 사이는 현존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고, 폐사된 지금에도 이웃사촌 같은 정겨움이 느껴진다. 동시대에 이러한 거찰들이 작은 고개 하나 사이로 공존하고 있었다면 이 일대야말로 한 때 한국불교의 중심지였으며, 오늘의 한국불교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다. 법천사가 진리(眞)의 새암이라면 거돈사는 그 샘물을 가둔 웅덩이쯤 된다. 법천사가 소실된 이후, 철저히 망가진데 반해 거돈사가 비교적 사역이 잘 보전된 것은 야트막한 야산이 절의 삼면을 병풍으로 둘러싸고 절터 옆에 천혜의 저수지를 법의 웅덩이인양 끼고 있어 폐허의 룹삼조차 수위 조절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법천사 터에 불두화 같은 지광국사(智光國師, 984~1067)의 향기가 남아 있다면, 거돈사 터에는 필레꽃 같은 원공국사(圓空國師, 930~1018)의 온기가 스며있다. 원공국사는 누구인가. 국사의 법호는 지종(智宗)으로 여덟살 나이로 개경 사나사(那那寺)에서 출가, 955년 중국 오월에 유학하여 법안종(法眼宗)의 법맥을 전수받았다. 그 후 중국 천태종의 근본도량인 천태산 국청사에 들어 '대정혜론(大定慧論)'을 배우고 천태종지를 가르치는 교수사가 되어 970년 고려로 돌아와 역대왕들의 신임을 받던 고승이었다. 원공국사는 귀국 후 왕권 강화를 위해 개혁정치를 표방하던 광종의 비호를 받으며 법안종 세력을 고려 불교계에 크게 떨쳤다. 그러나 광종이 사망하고 그의 급진적 개혁정치가 중도에 그치면서 법안종 세력도 급속도로 위축되고 원공국사도 89세인 1018년 병든 몸을 이끌고 거돈사에 이르러 입종을 맞는다.

거돈사는 고려 초기의 불교계를 주도해 왔던 법안종의 중심사찰 역할을 하며, 한껏 필레꽃 향기를 머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고려 중기에 이르러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면서 영암사(靈巖寺) 지곡사(智谷寺) 등 5대 교종 사찰과 함께 천태종의 기반 사원으로 흡수되었다.

원공국사 지종은 입멸 후에 현종으로부터 국사로 추증되었으며, 탑비와 함께 비의 서쪽 기슭에 부도가 건립되었다. 그러나 지금 거돈사 터에는 현종16년(1025) 조성된 부도비(보물제78호)만이 절의 한 켠을 지키고 있다. 원공국사승묘탑(圓空國師勝妙塔)이라 불리는 부도(보물제190호)는 짝을 이루지 못하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와다(和田)가 서울의 자기 집으로 옮겨간 것을 회수, 1948년에 경복궁으로 옮겼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뜨락에 외롭게 서 있다.

거돈사지는 1968년 2만4천7백 86㎡의 터가 문화재보호구역(사적 제168호)으로 지정되어 1982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했다. 91년까지 10여년에 걸쳐 한림대박물관이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벌인 후, 1차로 7천5백평의 사역을 단아하게 정비하였다. 거돈사 터에서는, 사지 보존도 이 정도 되면하는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법하다. 마침 이번 방문 길에도 안개비가 부슬거리는 가운데 잡초제거 작업을 하는 여남은 아낙들의 평화로운 정경이 눈에 들었다. 원주시가 중원문화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7억5천만원을 투입, 정비작업을 완료한 후, 그런대로 관리를 해나가는 모양이다. 문화재의 보전은 예산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안목이 중요한 것이다.

거돈사 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물은 사지 한가운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삼층석탑(보물 제750호)이다.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이 없는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의 형태이나 폐사지의 허전함을 잘 메꾸어 주고 있으며, 동쪽 언덕 위에 올라 사역을 조망해 보면 더욱더 친근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다가와 눈길을 떼지 못하게 한다. 탑 전면에는 연꽃이 새겨진 아담한 배례석이 놓여 있는데 연꽃 조각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거돈사지의 또 하나 명물은 금당지 중앙에 통돌을 대충 다듬어 놓은 화강석 불대좌다. 높이 약 2m정도 되는 것으로 그리 큰 편은 아니나 삼층석탑과 함께 조화를 이루워 거돈사 터 특유의 애잔한 모습을 연출한다.

거돈사터 탐방에서 그냥 지나쳐서 안되는 것은 사지 앞을 흐르는 개울을 건너 옛 년 봄 폐교된 정산초등학교 교정에서 심드렁하게 누워있는 홀로 된 당간 지주 한짝을 만나보는 일이다. 옛날 현계산의 남매장사가 당간지주를 옮기다가 남동생이 죽어 한 짝은 옮기지 못해 하나뿐이라는 설화를 간직한 이 당간지주는 9.6m나 되는 길이로 폐교 이전에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 추억 조차 꿈속의 일인듯 모로 누워 오수를 즐기고 있다.

이번 탐방 길에 새롭게 발견한 보물은 다름 아닌 사지 왼쪽 편에 모아놓은 석조물들이다. 맷돌, 장대석, 주초들이 즐지어 누워있는 것이, 원공국사승묘탑이 있던 지대석 자리에서 내려다 보니 마치 관짝을 정돈해 놓은 것처럼 숙연해 보이기도 한다. 저 석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자작고개를 넘나들던 현계산 산승들의 불국정토 원력일까. 마음을 향해 지줄대며 흘러가는 바람처 뛰노는 시냇물 소리일까. 그 석물들이 한갓이 고개를 향한 서쪽 1만여평의 농경지에서는 지금도 석축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거돈사터가 일어버린 사역을 도두 되찾을 때 중원불교의 제2 중흥시대는 열릴 것이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원주 지정면 흥법사터 편



◇지난 69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원주 거돈사터. 오른쪽이 보물 750호인 삼층석탑, 왼쪽이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불대좌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삼층석탑·불대좌가 조화…애잔한 모습
잇단 석물발견, 보호구역 추가지정 시급



◇'원공국사승묘탑'이라 불리는 지종스님 부도(보물 제190호).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뜰에 세워져 있다.



◇폐교된 정산초등 교정에 외롭게 누워있는 당간지주 한짝(9.6m).



◇삼층석탑 전면에 놓인 배례석에 새겨진 연꽃문양.



◇사지 왼쪽면에 모셔져 있는 석조물들. 거돈사의 역사를 증언해준다.



◇원공국사 지종스님의 비(보물 제78호).

현대불교신문사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 · 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몰"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02-725-1132
대표)02-737-8881